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는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고도의 정보테크놀로지, 세계적 차원의 초경쟁(mega competition),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장경제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경제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의 총역량을 동원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등의 국가발전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에서는 그 동안의 인력개발체제가 산업화 과정의 기능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고도 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는 인력개발, 노동시장의 유연화·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미흡, 경제환경의 변화에 낙오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지원 미흡-하고 다음과 같은 인력자원개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참조: 재정경제부 외, 2000).

첫째,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둘째,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셋째, 평생직업을 위한 평생교육기반의 구축 넷째,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다섯째, 취약계층별로 특성화된 지원 및 훈련강화 등이다. 특히 청소년층의 인력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정규 교육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청소년층에 친숙한 사이버 훈련 강화, 인터넷방송 실시 등 특성에 적합한 능력개발 지원 및 훈련프로그램의 제공 등의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국민의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청소년

년정책에서도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청소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그 동안의 청소년정책이 주로 청소년의 인성함양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의 직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활동이나 자원봉사와 직업체험활동을 연계하는 등 청소년의 직업능력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최충욱, 2000: 112-113)고 제안한다.

실제로 각종 청소년관련 단체에서는 부분적으로 청소년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올바른 직업의식 습득, 선호직업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를 증진시키고 진로에 대한 방향 및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참조: 서울특별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1999).

그런데 청소년관련 기관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들은 비체계적으로 관련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존하면서 주로 공공 직업훈련을 보완하는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활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시범 운영되는 청소년직업체험활동 역시 아직까지는 매우 초보적 수준에서 이틀간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매우 단기간의 일회성적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훈련이나 서비스는 주로 학교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이나 직업진로지도 등의 이름으로 20여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 산하의 각종 직업훈련·안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직업준비에 필요한 기능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직업안정을 위한 정보 개발 제공, 진단 및 직업지도 등의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학교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지도는 지금까지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제도적으로는 정착되어 왔고, 적지 않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교과교육이나 특별활동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이나, 진로교육·지도의 산·학 또는

산·학·관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의 모색 노력도 적지 않게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진로교육·지도의 제도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진로지도와 교육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학교교육의 진로교육·지도에 대한 학교 안팎의 문제진단들은 혹독하고 광범위하다(참조: 장석민, 1991;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3; 김현옥, 1997; 장석민, 1997; 한국교육개발원, 1997; 송병국, 1998; 이무근, 1998; 이재창, 1998; 정일동, 1998).

즉, 문제진단들은 한국사회의 왜곡된 직업의식과 진로교육 인식 부족 및 입시위주의 교육과 진로지도 등 의식과 교육풍토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진로지도활동과 전문가의 부족, 진로지도자료의 개발과 연구의 미진, 전달체제의 미구축 등 진로교육 내용과 체계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개선방안 역시 정규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지도, 체험중심의 지도프로그램, 산·학·관 연계 등 진로지도 체계 구축과 전문가 양성과 전문화를 통한 기능 강화, 정보자료 개발과 활용체계 구축 및 진로의식 및 학교교육 개혁 등으로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한편으로 지식기반사회와 디지털경제시대의 도래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차원에서 최근 OECD 국가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청소년실업의 증가와 고용불안의 해소, 기량과 직무능력의 향상을 통한 원활한 학교-직업세계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 노력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급증하고 있다(참조: 장원섭, 1997; 신명훈, 1998; 오정란, 1998; 이상오, 1998; 박창남, 1999; 장원섭 외, 1999). 청소년의 진로개발(발달) 관점에서 볼 때, 학교-직업세계 이행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간의 괴리 심화, 학교교육의 인문화 경향과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 노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불안정한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과 배치 측면에서 학교교육과 직업세계 사이의 연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학교-직업세계 이행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은 기존의 학교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지도의 문제진단과 활성화 차원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진로와 직업교육훈련 문제뿐만 아니라 산·학·관 연계를 포함한 이행 네트워크 구축 등 총체적인 현장개선과 관련 정책개발 등에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학교-직업세계 이행 문제에 대한 연구와 실천노력이 아직은 개념과 프로그램 소개 및 부분적인 적용 시도에 그치고 있다. 이행 실태를 비롯한 이행 전반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틀의 정립을 위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장원섭 외, 1999: 2-3).

이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교육·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직업세계 이행 문제에 대한 규명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여전히 학업성적이나 장래의 진로문제로 가장 고민하고 있으며, 고민의 의논상대로는 친구, 부모 형제, 교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참조: 멩영임, 1998; 이광호 외, 1998). 어떤 면에서 청소년들은 제도적 진로 지원망을 철저히 제외시킨 채 '스스로 알아서(do-it-yourself)'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참조: 박창남, 1999; 장원섭 외, 1999).

또한 우리 사회에서 진로교육·지도나 학교-직업세계 이행에 대한 논의들은 청소년발달이론(youth development theory)이나 관점을 거의 고려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진로교육지도와 학교-직업세계 이행 과정에서 진로의식, 탐색, 준비 등으로나 직업세계준비, 이행과정, 이행결과 등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과업이나 내용을 구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때로는 청소년의 발달 욕구를 간과하는 진로교육, 직업준비 및 고용을 강조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청소년발달은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 동안에 그들이 학습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광범위하게 기술한 용어이다. 청소년발달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인간발달을 설명해주며, 청소년발달의 주요한 전략인

지원(support)과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해준다. 또한 청소년발달이론은 청소년들이란 누구이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발달 경험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련의 개념과 원칙들을 제공한다.

실제로 진로교육·지도와 학교-직업세계 이행 체제 및 청소년발달이론에서는 모두 성인기를 위한 청소년들의 준비를 강조한다. 단순히 문제행동을 예방·차단하는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학습과 주변 환경에 의해 성장한다는 믿음과 청소년들에게 높은 기대 수준을 지니고 있는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지도를 포함한 학교-직업세계 이행 논의와 청소년발달이론은 모두 사회적 지지망(social network)과 광범위한 지역사회 파트너십(broad local partnership)의 창출을 강조한다(The National STW Learning and Information Center㉑, 1996: 1).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교육은 진로교육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며, 교육에서 차지하는 진로교육의 절대적 비중을 강조하는 주장(이재창, 1998: 46)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학교-직업세계 이행 논의에서 청소년발달이론의 원칙과 전략들을 결합시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참조: Cahill, 1995; Hamilton, 1995;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1996; Zeldin, and Charter, 1996; The National STW Learning and Information Center㉒, 1996). 즉, 학교-직업세계 이행 과정의 관점이 청소년들이 가족과 지역사회 및 일터에 공헌하도록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직업세계 이행 체제는 학교 중심, 일터중심 그리고 진로지향 요소들의 통합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모든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직업세계 이행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발달이론의 주요 요소의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The National STW Learning and Information

Center①, 1996: 1).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가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체제 구축을 당면한 국가발전과제로 설정하고, 정규 교육체제와 직업훈련제도를 개편하는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력개발체제의 확립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리를 위해 청소년발달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틀을 확립하고, 이를 기존의 진로교육지도나 학교-직업세계 이행 체제와 결합하는 노력과 아울러 이에 바탕을 둔 청소년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과 진로탐색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발달이론과 결합된 인적자원개발 전략에 기초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지원망 구축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진로교육·지도와 학교-직업세계 이행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발달이론과 결합한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대한 발달적 접근을 정립하고, 청소년들의 발달요구에 기초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진로교육·지도나 학교-직업세계 이행에 관한 관련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즉, 청소년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진로개발의 개념과 틀을 고려한다. 청소년발달의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상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과 기회부여의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학교중심이나 일터중심의 진로교육이나 직업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학교를 거점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의 지원망 형성,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및 일터 등과의 산·학·관 연계와 같은 개념적 틀을 채택하지 않는다. 청소년발달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의

각종 기관 및 자원들을 연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기회제공 및 질 높은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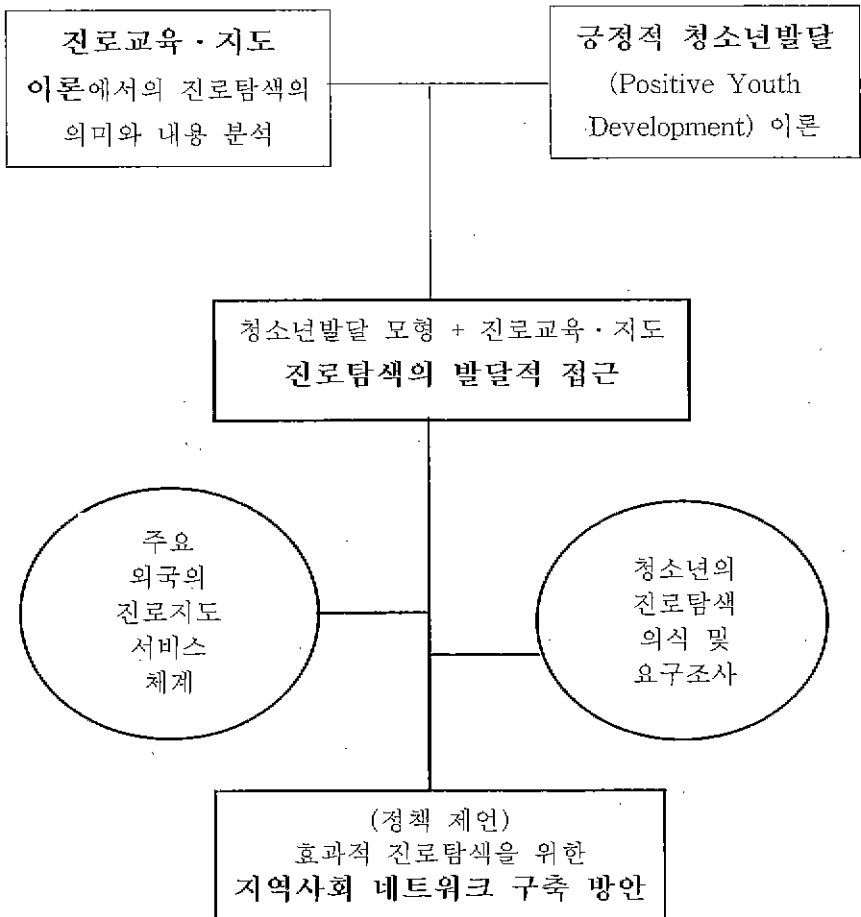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모색을 위해 긍정적 청소년발달이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존의 진로교육지도와 학교-직업세계 이행의 진로탐색 개념과 내용을 분석하며, 청소년발달 관점에서 진로탐색에 대한 발달적 접근이라는 통합적·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주요 외국의 청소년 진로지도나 탐색 지원과 같은 진로 서비스의 내용과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대한 의식과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기존의 진로교육·지도 논의에서 진로탐색의 개념과 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한 진로교육 과정으로서 진로의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등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개념 틀과 내용을 정리 분석한다.

둘째, 청소년발달의 이해를 위한 청소년발달의 내용과 틀을 분석한다. 청소년발달에서는 최근 미국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긍정적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개념과 이론적 틀(참조: Pittman, 1996;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7; Catalano, et. al., 1998)을 분석하여 원용한다.

셋째, 긍정적 청소년발달과 진로교육을 결합한 통합적 진로탐색으로서 진로탐색의 발달적 접근을 고찰한다. 진로탐색의 발달적 접근은 청소년



[그림 1-1] 연구체계도

년의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요구되는 청소년발달이론과 진로탐색적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접근 모형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넷째, 외국의 진로교육이나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진로지도 서비스의 내용과 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우리 사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관련한 의식 실태와 요구를 조사 분석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진로의식, 현행 진로교육·지도에 대한 인식, 진로탐색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한다.

여섯째, 진로탐색의 발달적 접근에 기초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청소년관련 기관과 조직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기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과 협의 및 청소년의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비고
1. 현행 진로교육지도 논의에서의 진로탐색의 의미와 내용분석	○ 관련 문헌 및 자료분석 - 국내외 논문, 저서, 연구 보고서 수집 분석	
2.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이론 분석	○ 관련 문헌 및 자료분석	
3.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에서 본 진로탐색에 대한 발달적 접근 구성	○ 관련 문헌 및 자료분석	
4.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의식 및 요구 조사	○ 설문조사 -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대상	
5. 주요 외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관련 내용 및 체계 분석	○ 관련 문헌 및 자료분석	○ 외부 집필진
6. 지역사회 중심 진로탐색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 관련 문헌 및 자료분석	

Ⅱ. 진로탐색의 의미 및 실태

1. 진로탐색의 의미

2. 진로탐색의 내용 및 실태

II. 진로탐색의 의미 및 실태

1. 진로탐색의 의미

급속한 기술적 변화와 노동양식의 변화에 따른 조직과 직업에서의 구조변화는 일의 세계에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고 있다(참조: Reich, 1991).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같은 조건에서의 작업과 지위 예측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직업과 조직의 요구변화에 따른 직업에서의 예견된 변화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탐색주기와 일의 전념이 사회경제적 집단과 문화경계를 통틀어 불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참조: Rifkin, 1995). 이러한 변화기류 속에서 개인과 조직간의 심리적 계약인 '평생 직업'의 개념이 사라지고 조직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에 걸쳐 자기개발(self-development)에 더 많은 책임을 떠맡아야만 하게 되었다(참조: Watts, 1996). 즉 조직의 새로운 변화는 근로자들에게도 대등한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작업환경에서 적응적 진로행동의 하나가 되기 쉬운 변화에의 융통성의 대부분은 탐색적 태도, 기술 및 활동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직업세계의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변화들의 일관성은 사회과학 및 진로발달 분야에도 유사한 수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예가 Super의 직선형 발달모델에서 수정된 생애진로무지개모델(life-career rainbow model)로, 이 모델에서 직업의 역할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생애 역할들 속에서 하나의 특정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추고 진로발달 이해 측면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진로탐색 및 연구에 새로운 인식을 일으키는 데 특히 중요

할것으로 여겨진다. 진로탐색에 대한 현대의 전망은 개인들이 자신들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탐색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여러 요소들을 결합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진로개발 범위내에서의 탐색에 대한 개념화는 관련성(intertwine)과 유연성(pliable)으로서의 생애역할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한적인 직업적 전망 관점에서 탐색과정을 검증하기 보다는 개인들이 현대의 삶 속에서 생애역할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관점에서 개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Super의 생애진로무지개모델처럼 생애를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개념으로의 진로에 대한 개념 전이는 Erikson의 자아정체감 정립으로의 관심 집중을 초래했다. Erikson(1968)과 Marcia(1966)의 연구에 의하면 광범위한 개념에서 볼 때 탐색과정 중의 하나는 자아정체감(ego-identity)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정체감 확립의 관점은 진로개발을 고려한 유용한 발견학습의 증가를 가져와 정체감 형성 연구에 박차를 가져왔다. 진로탐색과정 이해를 위한 자아정체감 연구의 직접적인 응용은 탐색과정이 생애역할 전반에 걸쳐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와 어떻게 자아구축 과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로에 대한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의 본질은 중요한 방식으로 다른 생애역할(부모, 자녀, 학생, 파트너, 동반자 등)과 교차된 일과 관련된 역할을 가정한다. 정체감 형성에 대한 Erikson의 공헌은 정체감 형성에서 직업선택의 중심성과 불분명한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불안감을 강조한 것이다. 후기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과정과 자아정체감 형성간의 관계를 기술한 연구와 이론들은 이 두 발달과정간에 분명한 개념적·경험적 상치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자아정체감 영역에서 Marcia모델은 개인의 자아정체감 현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준거로서 탐색과 전념을 주목했다. 탐색이론에 따르면 후기청소년 발달과정의 효과적인 해결책은 '사회에 대한 현실감을 지닌 성

격의 부분들의 역동적 통합으로 개인이 실제 세계에 대한 의미있는 관계(meaningful relatedness) 및 내적 일치감(internal coherence)을 갖는 것이다'라고 정의된 안정된 자아정체감이 최고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진로)탐색은 후기청소년 발달의 주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발달시기에서 탐색경험은 탐색태도와 다음 시기로의 전이에 대한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참조: Flum & Blustein, 2000).

사실 개인의 직업적 방향은 부모나 혹은 다른 권위있는 타자들(내담자에 적합한 직업결정을 해주는 상담자를 포함)의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아정체감이 확고하게 구축된 개인은 특정 진로계획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을 적극적인 탐색과 의사결정에 기초를 둔다. 그러므로 탐색과정에 대한 전망은 개개인이 자신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어떻게 동기화된 노력을 개발하고 내면화하는가를 고려한 방법이어야만 한다. 동기부여된 탐색에 관한 연구는 Jordaan의 초기 연구 이래 계속되고 있다.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동기화과정 그리고 인간발달 혹은 자기결정의 발달간의 복잡한 관계를 상세화한 연구는 직업적 탐색과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보를 잠재적으로 준다. 이들 연구에서 내적 동기는 흥미밖의 '자신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동적·심리적 행동 모두를 포함하며, 활동 자체로부터 분리된 결과(인정, 지위, 돈 등)를 얻기 위해 혹은 도구적 이유를 위해 행동을 할 때의 동기는 외적 동기로 개념화 한다.

Deci & Ryan은 본질적으로 동기화된 행동들을 인간경험의 집합적 형태의 결정적인 요소인 세 가지 본능적인 심리적 욕구-자율(혹은 자기결정)욕구, 능력, 소속욕구-로 규명했다. 이들 기본적인 욕구들은 탐색을 설명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가치와 문화내에서 개인들이 흥미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행동을 지배하며, 자기결정 욕구 관점에 따르면 내적 동기는 호기심과 탐색을 포함한다. 그러나 행동은 외적 동기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외적으로 동기화된 조절과정은 내면화될 수 있고 자기결정을 제공해 동화되어 자아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탐색과정은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참조: Flum & Blustein, 2000).

진로발달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개인이 그들의 직업적 삶에 있어서 보다 자기결정적이고 주체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들을 통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탐색영역에서 필요한 개념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내면화 모델을 정교화시킨 Deci & Ryan은 이 모델에서 내면화는 외부에 기초를 둔 조절이 점진적으로 내적 개인조절체제로 바뀌는 개인안에서 일어나는 발달적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조절 형태로서 구조적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내면화의 연속체를 따른 움직임은 보다 자율적이고 통합적이며 자기결정적일 때 경험되는 것이다. 따라서 탐색은 내면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음으로써 자기결정 경험을 강화한다.

사실, 내면화 과정에서 탐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탐색적 행동은 자아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내면화 과정에 도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면화 수준은 탐색과정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의미있는 것은 통합을 촉진시켜 높은 수준의 내면화와 자기결정을 얻게 하는 탐색의 역할이다. 탐색은 충분한 내면화 과정을 향한 첫번째 수단이다. Deci & Ryan은 탐색은 본능적 동기화와 자기결정의 맥락내에서 자기창시적이라고 결론지으면서 동시에 탐색은 내면화와의 상호작용, 흥미 촉진, 다른 심리학적 조절구조와 비교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외적 조절의 통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과정은 자율감과 보다 자기결정적이고 자기창시적인 탐색을 길러준다. 더욱이 탐색경험은 탐색에의 추후 동기화를 위해 중요할 수 있는 개인에 의해 지각된 능력을 강화시켜줄지도 모르며 특히 관계적 지원이 유용할 때 더욱 그렇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최종목표로 하는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은 진로성숙에 필요한 경험과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일련의 학습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 개인의 능력과 적성 등의 정보

에 의존한다. 즉, 진로탐색이란 많은 기회에 관한 많은 학습, 의미있는 경험과 내용 제공, 자기이해, 자기결정, 자기지도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계획성 있는 과정을 뜻한다. 진로탐색에는 자아탐색(흥미, 적성, 능력 등), 직업흥미탐색, 미래 직업세계탐색, 직업현장탐색 등이 포함된다.

진로교육모형 중 학교중심 포괄적 진로교육모형(the school-based comprehensive career education model)은 교육과정에 진로교육 주제를 주입시킴으로써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을 연결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진로인식(유치원, 초등학교 K-6), 진로탐색(중학교 7-9), 진로준비(고등학교 10-12), 진로정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Blustein & Flum 등은 직업탐색의 개념을 내적인 속성(가치, 성격, 흥미, 능력 등)의 평가와 외적 선택의 탐색 및 관련된 교육적·직업적·관계적 맥락으로부터의 속박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탐색과정을 Tiedeman이나 O'Hara처럼 진로의사결정의 한 단계로 간주한 이론적 전망과 대비하여 Ginzberg나 Super는 진로탐색을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중요한 적응 기능 과정(as a process with critical lifelong and adaptive functions)으로 보기도 한다. 진로탐색의 과정에는 자기이해(self-knowledge)와 자신과 관계된 환경(environment)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나아가 직업탐색의 정의에는 탐색을 하고 유지시키는 개인의 동기(motivation)를 참조할 수 있는 태도 관련요소(attitudinal component)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탐색활동을 경험하면서 개발되는 탐색기술 즉, 결국에는 탐색능력을 촉진시키는 탐색기술(exploratory skills)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진로탐색은 체계적인 활동결과로서 일어나는 탐색과 계획하지 않은 혹은 우연의 생활경험으로부터 일어났을지도 모를 탐색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즉 자아 및 환경탐색으로 표현되는 내·외적 영역외에 다른 많은 속성들을 포함하여 탐색 정의에 대한 개념적 틀을 확장시킴으로써 탐색과정의 인지적·정의적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 탐색과정의 인지적 측면이란 개개인이 그들 자신과 그들과 관계

된 교육적·사회적·직업세계를 탐색하면서 얻게 되는 다시 말하면 탐색 경험의 결과로 얻게 되는 정보단위와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의적 정보까지 포함한 정보단위를 말하며, 반면 정의적 측면이란 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느낌(feeling) 및 탐색과정에서 얻게 되는 통찰(insight)까지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2. 진로탐색의 내용 및 실태

1) 진로발달이론에서의 진로탐색단계 및 내용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인식단계, 중학교 시기는 진로탐색단계,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준비단계에 해당된다.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인식단계를 거쳐 중학교에서의 진로탐색 시기를 바탕으로 고등학교는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진로발달이론에 따른 진로탐색 단계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

진로발달이론 중의 하나인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ies)을 대표하는 학자인 Ginzberg의 직업선택 이론은 직업행동과 관련된 최초의 이론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직업선택은 발달과정으로, 한번에 끝나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정서적 요인, 교육의 기회와 성취 등의 영향을 받고 개인의 흥미, 능력, 욕망과 현실사회와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행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Ginzberg는 진로발달 단계를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II-1> 참조). 첫

번째 단계인 환상기(fantasy period)는 11세까지의 시기로 개인의 욕구와 충동이 직업선택과 동일시되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인 잠정기(tentative period)는 11~17세에 해당되는 시기로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이 진로선택 과정에 사용되지만 현실적 요인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이다. 이 시기는 네 개의 하위단계 즉, 흥미가 직업선택의 기초가 되는 11~12세의 흥미단계, 능력이 진로계획에 고려되는 13~14세의 능력단계, 흥미와 능력을 통제해서 가치가 직업선택 과정에 고려되는 14~16세의 가치단계, 앞에 열거된 요인들을 전부 고려해서 직업선택을 하게 되는 17세의 전환단계로 구분된다. 세번째 단계인 현실기(realistic period)는 17~20대 초반에 해당되는 시기로 자격요건이나 교육기회와 같은 현실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간의 타협이 이루어져 실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Ginzberg는 20세 초반이나 중반에 진로의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수정하여 진로선택 과정은 개인의 일의 생애와 상호 공존하는 것으로 언제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표 II-1> Ginzberg의 진로발달단계

발달단계	하위단계	연령	특징
환상기		11세이전	○ 욕구와 충동이 직업선택에 반영되는 시기로 원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잠정기 : 직업의 요구조건 인식단계	흥미단계	11-12	○ 흥미가 직업선택의 기초가 됨
	능력단계	13-14	○ 진로계획에 능력을 고려하지만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직업선택은 잠정적임
	가치단계	14-16	○ 직업선택과정에 가치가 고려됨
	전환단계	17세경	○ 직업선택에서 흥미, 능력, 가치 등을 고려하지만 현실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기 때문에 잠정적임
현실기 : 능력과 흥미의 통합단계	탐색단계	17-20대 초반	○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로 직업기회를 조사하고 선택을 점검함
	구체화단계		○ 직업선택이 구체화되고 타협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상세화단계		○ 직업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직업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짐

(2) Super의 진로 및 생애발달이론

Ginzberg와 함께 발달이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Super는 진로발달단계를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성장기·탐색기·확립기로 구분하여 진로발달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Super는 Buehler와 Rogers의 연구에 영향을 받고 발달·변별·사회·현상학적 심리학으로부터 취해온 이론과 자아개념을 합해 진로발달의 상세한 측면을 다룬 일련의 이론들의 묶음을 제시하였다. Super는 진로(career)와 직업(vocation)을 구분하고 진로란 일생동안 인간이 하는 일련의 일들로 여기에는 열중하고 있는 일, 직업, 부업 등과 같은 인간이 종사하는 모든 일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Super의 진로이론은 진로발달에 있어서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그에 의하면 개인의 일부는 자신의 심리적·생리적 속성에 의해서, 또 일부는 의미있는 타자를 포함하는 환경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비율에 따른 전체발달의 한 측면으로서 직업적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한다. Super는 개인의 생애를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보고 5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단계인 성장기는 출생에서 14세까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주요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었다가 차차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되는 시기로 다시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3단계로 구분된다. 두번째 단계인 탐색기는 15세에서 24세까지로 자기검증, 역할수행, 직업적 탐색 등을 하게 되며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의 하위단계로 구분된다. 학교, 여가활동, 시간제 일 등을 통해서 자기검증, 역할수행, 직업적 탐색을 하며, 욕구, 흥미, 능력, 가치관, 기회 등이 고려되며 잠정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이 환상, 논의, 교과, 일, 다른 경험 등을 통해 시도된다. 세번째 단계인 확립기는 24세에서 44세까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분야를 발견하고 그 분야에서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로 시행기와 안정기로 다시 구분된다. 네번째 단계인 유지기

는 45세에서 64세까지로 직업세계에서 확고한 위치가 확립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이다. 다섯번째 단계인 쇠퇴기는 65세이후로 작업활동에 변화가 오고 급기야는 중단하게 되는 시기로 관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Super의 발달적 접근은 매우 포괄적인 이론으로 직업이란 자아의 표현과 생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표 II-2> Super의 진로발달단계

발달단계	하위단계	연령	특 징
성장기: 타인과의 관계학습	환상기	4-7	○ 욕구가 지배적이며 환상적인 역할연출이 중시됨
	흥미기	7-11	○ 흥미가 진로목표 및 내용 결정에 주요 결정요인이 됨
	능력기	11-14	○ 진로선택에서 능력을 중시하며 직업훈련 자격요건을 고려함
탐색기: 희망직업 기회발견	잠정기	14-18	○ 욕구, 흥미, 능력, 취업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며 토론, 경험 등을 통해 잠정적인 진로선택을 함
	전환기	18-21	○ 취업 혹은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며 자아개념 실천과 현실적 요인을 중시하게 됨
	시행기	22-24	○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중사함
확립기: 명구적인 직업결정	시행기	25-30	○ 직업선택이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 한두번의 직업선택에서의 변화를 시도함
	안정기	31-44	○ 진로유형이 안정되는 시기로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안정된 위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유지기: 직업안정		45-64	○ 직업세계에서의 확고한 위치가 확립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
쇠퇴기		65세이후	○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퇴기를 맞아 직업전선에서 은퇴함과 아울러 새로운 역할을 개발해야 함

(3) Tiedeman과 O'Hara의 진로발달이론

진로발달을 개인이 일을 통해 분화와 통합을 이루면서 직업적 정체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Tiedeman과 O'Hara는 일에 대한 자아 정체감 형성을 진로발달의 목표로 보고 있다. Tiedeman과 O'Hara는 진로 발달의 단계를 구분하고는 있지만 Super의 이론처럼 각 발달단계에 연령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진로발달의 단계는 연령보다는 문제의 성질에 의해 좌우되며 분화와 통합의 발달과 의사결정과정은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번 반복될 수도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진로의식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Tiedeman과 O'Hara는 진로의사결정단계를 2단계(예상 혹은 전직업기, 실행과 적응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하위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예상 혹은 전직업기(anticipation or preoccupation)단계는 4개의 하위단계(탐색·구체화·선택·명료화)로 다시 나뉘는데 그중 탐색단계에서는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가 고려되고 과거의 경험 및 자기의 능력을 고려하여 목표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평가하고 상상으로 역할을 시행해 보는 단계이다.

(4) Tuckman의 진로발달이론

Tuckman은 자기인식, 진로인식, 진로결정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아동발달모형을 기초로 한 진로발달이론을 8단계로 제시하였다. 이 중 6, 7, 8단계가 청소년기에 해당된다. 제6단계는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기결정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자기에 대한 의식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자기주장을 하게 되며 자기의 규칙과 규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이전에 탐색한 자기속성을 포함한 자기인식 요인에 초점을 두고 진로가치와 직업군, 의사결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들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제7단계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1학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상호 관계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동료집단의 문화와 인간관계의 형성이 점차 중시되고 집단의 가치가 진로선택에 고려된다. 동기·태도·가치의 인식 및 일에 대한 기대와 보

상, 작업환경, 직업에서의 육구충족, 의사결정기술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제8단계는 고등학교 2-3학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율성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자기자신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직업에 대한 탐색을 확고히 한다. 직업활동에의 참여등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진로선택의 범위를 좁혀 나간다.

2) 학교수준별 진로탐색의 내용 및 실태

(1) 중학교 수준에서의 진로탐색 내용 및 실태

중학교 시기는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진로탐색단계에 해당되는 시기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인식단계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직업에 대한 지식획득과 진로결정기술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Zunker(1999)는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기술 증진, 자아개념과 교육·직업목표와의 연계, 개인의 장점과 능력 파악 및 활용, 직업탐색 등의 활동이 중학교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학교에서는 자기자신과 직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학교에서의 진로탐색활동은 각 교과목을 통한 관련된 직업영역을 중심으로 직업의 성격, 작업조건, 학력과 훈련, 보수, 승진관계, 장래의 전망 등 각 직업을 분석해 보는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정확한 자아개념의 발달과 의사결정능력 증진, 직업정보를 통한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일의 세계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자신의 진로계획 수립 및 책임감 신장 등을 목표로 다양한 직업군 또는 직업영역에 대한 탐색활동, 일에 대한 전학과 관찰, 자원인사의 초대와 경험 듣기, 진로정보자료실의 설치 및 활용, 노동경험 프로그램(work experience program) 제공, 시뮬레이션 작업 활동 참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기, 일에 대한 가

치관 평가하기, 기초적 직업기능 훈련, 개인적인 장점 탐색활동 전개, 일에 대한 기본습관 형성,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여러 가치를 탐구하는 활동 등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참조: 김충기 편, 1989).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주로 관련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개척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끌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교과인 실업·가정과를 전면 개편하여 기술·산업과와 가정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기술·산업과는 기술,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을 통합하여 1학년에서 1시간, 2학년에서 2시간, 3학년에서 2시간을 각각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가정과 가사를 통합한 가정과는 1학년에서 1시간, 2학년에서 2시간, 3학년에서 2시간을 각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도 진로교육 관련교과는 도덕·국어·사회 등이 있으며 '96학년도까지만해도 도덕과 3학년에 '삶과 보람의 세계',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진로탐색'등 2개 단원이, 그리고 가정과 2학년에 '직업과 나의 진로' 1개 단원이 있었으나 삭제되고 현재는 3학년의 기술·산업과에만 '직업과 진로'라는 대단원이 설정되어 삶과 직업, 나의 발전, 일과 직업의 세계, 진로계획 등의 내용으로 12시간이 할애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특별활동(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시간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활동의 성격에서 '학급활동은 심신의 급속한 성장기에 있는 중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적응, 교우관계, 진로탐색 등의 분야에 역점을 두고 운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학급활동'의 내용에서 진로탐색활동은 '자기이해, 진로·직업이해, 진로적성, 진로정보활동, 진로선택'으로 설정되어 있어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준비교육보다는 미래 직업선택의 기초를 형성하는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이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서울시내 중학교의 38.9%로 일부 '진로교육 시범 운영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진로지도반을 운영하고 있는 정

도로 부진한 실정이다(참조: 김경애, 1997).

<표 II-3> 중학교에서의 진로탐색 내용

영역	활 동
자아탐색	○ 자신의 특정 능력 및 제한점 인식 ○ 자신의 흥미, 능력발견 및 선택진로와의 연관 ○ 자신의 흥미, 능력과 선택진로 수행성공과의 연관
직업세계 탐색	○ 특정 직업군의 자격요건 인식 ○ 특정 직업군에 대한 탐구를 통한 자신의 능력 및 흥미와 직업군과의 관계 이해
일에 대한 태도	○ 인간의 노력과 일에 대한 이해 ○ 모든 형태의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중요성과 차이점 인식
의사결정 능력	○ 여러 직업의 가능성 탐색 ○ 의사결정기술을 적용한 잠정적 직업선택 ○ 진로선택에서의 의사결정의 필요성 인식
인간관계 기술	○ 자신의 흥미와 좋은 인간관계와의 관계 인식 ○ 인간관계기술의 실생활에의 적용
직업의 경제적 측면이해	○ 재정의 개념 이해 ○ 생산, 분배, 소비과정 이해 ○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인식
직업의 교육적 측면이해	○ 인간의 가치 인식 ○ 교육과 생활양식과의 관계 인식 ○ 선택진로에 필요한 교육요건 인식

(2)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진로탐색 내용 및 실태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진로준비단계에 해당되는 시기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인식과 중학교에서의 진로탐색단계를 바탕으로 진로를 준비하게 되는 시기로 잠정기와 전환기에 해당된다. 개인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잠정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탐색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참조: 김봉환·김병석·정철영, 2000).

진로준비단계인 고등학교에서는 의사결정기술과 직업에 대한 지식 및 정치활동 등이 중요한 진로교육 내용이 된다. Zunker(1999)에 의하면 의

사결정기술과 문제해결력의 심화,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구비, 직업윤리 및 타인들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과 기술 등에 대한 학습, 개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 개인의 생활양식, 여가활동 등과 일과의 연계방법 학습, 취업에 대비한 구체적인 취업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내에서 산업과 기술 및 가정생활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진로를 바르게 선택하게 하고 변화하는 정보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하는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는 실업·가정과의 경우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진로·직업 등 실업·가정과를 9개 과목으로 구성하고 필수·선택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기술, 농업, 수산업, 가사과목에는 진로교육이 한 단위씩 설정되어 있으며 '진로·직업'과목은 모든 내용이 진로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진로·직업'과목은 선택과목에 들어있어 모든 고등학생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주로 진학지도에 치우쳐 있어 비진학자에 대한 진로교육은 거의 하지 않는 등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표 II-4> 고등학교에서의 진로탐색 내용

영역	활 동
자아탐색	○ IQ 검사, 흥미검사, 진로적성검사(문·이과 분류 참고자료로 활용) - 직업적성검사(진로적성검사와의 비교 자료로 활용)
직업세계 탐색	○ 진로자료: 대학요람, 입시요강, 입시정보자료, 입시월간지, 직업소개책자, 직업훈련정보, 각종 진로지도책자 및 스크랩 ○ 진로탐색 및 선택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 직접 상영 및 대여 ○ 진로의 날 행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을 초빙하여 현장정보를 듣는 직업별 모임 실시 ○ 관심있는 직업에 대한 직무조사 ○ 진로선택을 위한 직업의 세계 소개 및 기술훈련과정을 소개

Ⅲ. 청소년발달과 진로탐색의 연계

- 1.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과 전략**
- 2. 청소년 진로탐색의 발달적 접근**

III. 청소년발달과 진로탐색의 연계

1.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과 전략

‘긍정적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관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기존의 ‘청소년발달’ 논의와 ‘발달이론’을 고려하여 청소년 관련 이론가와 실천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책 혹은 실천 전략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청소년에게 자율 의사에 따라 폭넓은 기량을 습득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 및 보다 넓게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관계 형성을 통해 준비된 성인으로 이행해 가는데 필요한 서비스, 기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기존의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나 전략과 차이를 보여준다.

1)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관점과 접근 방식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관점은 기존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처방에 대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한계를 바탕으로 삼는다. 첫째, 기존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미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약물남용, 미혼모, 범죄, 폭력 등을 포함-들의 주역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참조: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7). 둘째, 청소년문제의 예량은 주로 공중위생모델(basic public health model) 즉, 문제나 병폐를 지닌 청소년을 교정하거나 치료하고, 문제와 접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태도와 습관을 고치고, 아직 물들지 않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문제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간주한다(참조: Pittman, 1996).

다시 말해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나 정책연구들은 청소년 발달과 관련하여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인성적 발달 및 자아정체성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청소년은 언제나 상처받기 쉬운 세대 혹은 상처받은 청소년과 같은 문제발생의 예비자로 간주되어 왔다. 즉, 지난 50년 전 제임스딘이나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우상들이 12~20세의 청소년들을 성욕의 시한폭탄이자 무책임한 모험과 반사회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존재로 규정하는데 일조를 한 이래로,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야만인과 '작은 범죄자'의 혼합물쯤으로 간주한다(참조: Purdum, 2000). 더욱이 우리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대면서 청소년들이 위험스러운 행동에 너무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는 낙인을 찍는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이해 관점은 청소년을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거나 어떤 기질이나 특성이 지나치거나 위험성이 있다는 일종의 '결핍 관점(deficit-based model)' 내지는 '억제 관점'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처방 역시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폭력, 가출, 자살, 혼전 임신, 약물, 비행 등-에 주목하여 그들은 누구인가,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결국 청소년에 대한 처방은 이미 드러난 문제 행동이나 범죄를 감소 혹은 중단시키려는 의도의 '개입'과,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무엇인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의도로 '예방'을 강조하면서 언제나 청소년문제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참조: Perkins, 1997).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일정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위기적 접근(the crisis approach), 청소년의 각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심리·행동적 과제들을 성취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치료하는 교정적 접근(the remedial approach), 그리고 발

생 가능한 문제상황들을 미리 예측하여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고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the preventive approach)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Myrick, 1997: 8-11).

결국 기존의 청소년의 관점과 접근 방식은 청소년을 지나치게 문제나 예방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고, 접근 방식 역시 문제를 감소하기 위한 개입이나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셈이다. 또한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상처받은 청소년이나 상처받기 쉬운 어느 한편의 동일한 청소년에게 중복되고, 초점은 지나치게 편협되어 있으며, 단기적 처방 위주의 반응적(reactive) 접근 방식에 몰두한다고 비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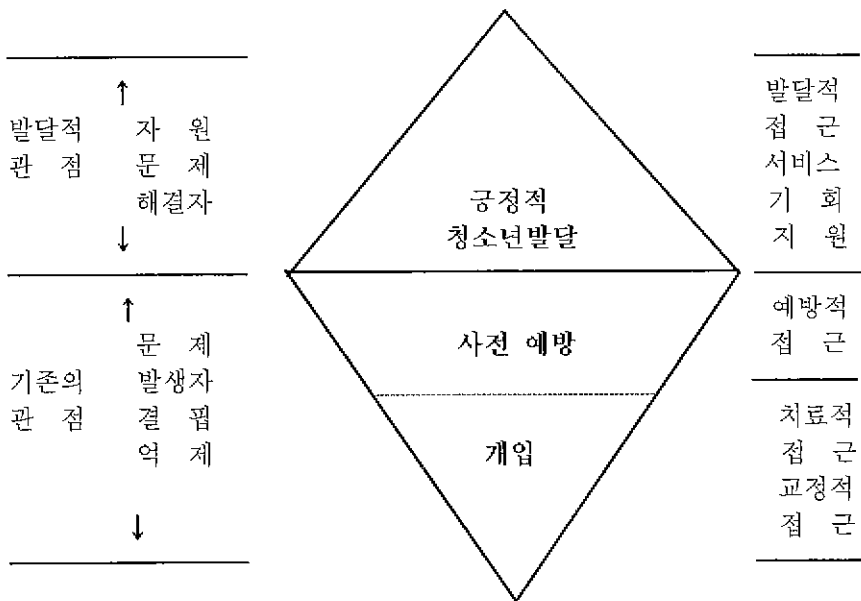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은 기존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일련의 활동을 통한 청소년과 성인의 도전 및 사회적·도덕적·감성적·신체적·인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도록 돕는 체험을 통해 청소년을 준비된 성인으로 이행해 가는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관점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경제시대의 변화 경향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즉, 복잡하고 경쟁적인 세계 시장의 형성과 함께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생산적 인력, 효과적인 부모, 책임 있는 시민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성인에 이르고 있다는 반성에서부터 긍정적 청소년발달에 대한 논의는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21세기의 무한 경쟁과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유연한 인력 자원으로 양성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책무를 다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인으로 청소년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긍정적 청소년발달 논의는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전 예방, 치료나 교정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노출되는 직접적인

비용과 인적 자원의 손실에 따른 간접비용 등과 같은 높은 사회적 비용 및 기존의 접근 방식과 프로그램에 의한 청소년문제의 감소와 같은 적절한 효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발달 논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핵심역량을 구비한 인적 자원으로 청소년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이 보다 문제에 집중



[그림 III-1]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관점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인정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활동과 체험에 청소년을 보다 더 많이 노

출시키도록 관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

이렇게 볼 때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예방이나 억제 및 부족과 문제의 감소보다는 철저하게 준비와 발달을 강조하는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청소년발달 논의는 청소년이 직면하고 야기하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는다. 다만 문제예방이나 감소가 인간발달로서 청소년의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간주할 뿐이다(참조: Pittman, Cahill and Zeldin, 1994). [그림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궁극적인 인적자원개발로서 발달적 접근과 예방과 개입적 접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친활동적이고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통한 청소년발달이 문제예방과 감소에도 보다 효과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즉,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은 위험성이 높고 긍정적 발달을 지연시키거나 탈선할 수 있는 불건전한 행동에 관계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강조한다(참조: NYDIC, 1999). 그러므로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예방과 개입이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포함하되, 건전한 성인으로서의 이행을 위한 발달과 준비를 강조하는, 예방을 뛰어 넘는 새로운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은 청소년은 누구인가에 대해 새롭게 조망하고, 그들이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고자 할 때 어떤 발달 경험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원리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우선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은 청소년을 문제나 부족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즉, 청소년은 그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자원(youth as resources)인 동시에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적극적 존재로 인식한다(참조: Nagorski, 1999; Pittman, 2000).

특히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은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해 가는 전반적인 과정이지 사건이나 분절된 시기가 아니라는 발달

과정과 경로를 강조한다. 인간 일생의 특정 단계라는 고정적이고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 아동에서 성인초가로 이행해 가는 이행과정으로서의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이행과정으로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문제나 위험스러운 행동이 일시적이고 실험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경험해야 할 기본적 요소이기도 하며, 최적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간주한다. 더욱이 이러한 위험스러운 실험적 행동들은 가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참조: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7).

이와 같은 이행과정으로 청소년발달을 인식하는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청소년발달의 특성과 경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한다(참조: Pittman, 1996; Academy of Educational Development, 1996). 첫째, 청소년발달은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인 동시에 지속적인 진행과정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나 환경적 맥락-가족구성원, 친구, 이웃과 지역주민 및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제도 등-과 연관되어 가는 과정 혹은 여행이다. 따라서 청소년발달은 가족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자연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실패한 경우 그 원인은 드러난 어떤 문제행동보다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사회제도 등으로부터 지원이 부족한데 있다고 설명되어야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은 청소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가능하도록 북돋우는 과정과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집중한다.

둘째, 청소년발달은 개인적 측면(심리적, 생물학적, 지적, 인성적, 기질적 특성 등)과 맥락적 영역(다른 사람, 친구집단, 가정, 지역사회, 사회 등)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즉, 발달과정은 개인이나 환경

의 일방적 특성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일종의 생태맥락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은 오랜 동안 청소년 개인의 심리내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개인의 역기능적 행동을 이해하는 준거들-모든 문제와 증상이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심리적 상태에 기인한다-을 거부한다. 결국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은 유기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일반체계이론에 기초하여, ‘발달과학’과 ‘발달적 맥락주의’ 혹은 ‘역동적 상호주의’, ‘발달적 구성주의’에서 제안하는 발달 개념을 반영하고 인간행동의 총체적 틀 안에서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청소년발달은 균질하지 않은 변덕스러운 과정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특히 청소년 개개인은 서로 다른 이력-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맥락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경험이나 환경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넷째, 청소년발달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 친구, 이웃, 학교교사, 지도자 및 다른 전문가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중재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환경적 맥락과의 관계 맺음, 무엇인가에의 기여 및 학습하는 기회 등의 참여를 통해 일어난다. 따라서 가족, 지역사회 등과 같은 환경적 맥락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는 청소년발달에 중요한 핵심적 관건이다.

또한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과 경로이해를 위해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개념적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과정, 발달 경로, 성인기에서의 바람직한 결과,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위한 개입 등을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삼고 있다.

2)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발달 과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인간발달을 강조하는 청소년정책과 실천에 대한 접근으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인간발달은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 이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발달 경험을 통해 충분히 준비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기존의 인간발달 단계별 과업(developmental task) 설정보다는 충분히 준비된 성인에게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가 즉, 성공적인 성인의 개념을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주목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전제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을 때 요구되는 일련의 자질(developmental assets or outcomes)이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바람직한 결과 또는 궁극적인 목적 내지는 벤치마크(benchmark)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청소년의 발달요구에 부응하는 총체적인 청소년발달에 대한 접근인 동시에 자질 지향적(assets-based approach)이고 강점 지향적 접근(strength-based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NYDIC, 1999; Search Institute, 1999).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성공적인 청소년은 누구인가에 대해 '문제예방'과 '지위성취'와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 덧붙여 바람직한 결과로서 제3의 범주를 강조한다. 전통적으로 성공적인 청소년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청소년 혹은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안정된 직업을 얻는 등의 일정한 지위를 성취한 아이들을 말해 왔다.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긍정적 자아감, 다른 사람과의 연계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성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능력과 동기와 같은 자질 습득을 더욱 중요한 성공의 지표로 간주한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발달적 자질을 성취한 청소년은 전통적인 지위성취와 예방의 기준에 의해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청소년발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일련의 결과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학문적 기량과 능력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결과나 자질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특

정지워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는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결과가 성공적인 이행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사회에서는 자기충족이 시민성이나 다른 성공적 지표보다 주요하게 간주될 수도 있다(참조: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7). 그러므로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청소년발달 모델과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합의의 도출을 중요시한다.

이와 같이 현재 긍정적 청소년발달 논의에서 발달의 주요 결과로 상정하고 있는 목적은 지역사회나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예를 들어 미국 보건성(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7)에서는 긍정적 발달과정과 경로를 거쳐 바람직한 성인으로서 이행되었을 경우의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즉, 자기 충족,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가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시민성 등을 주요한 결과 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이행과정상의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의 주요 모습으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한 연계감, 자신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 및 안정적인 정체성의 형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개발 아카데미(참조: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1996) 내의 청소년발달과 정책연구 센터에서는 청소년발달에서 지향하는 긍정적 결과로서 크게 정체성 영역과 능력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 <표 III-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I-1>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주요 결과

정체성 영역	능력 영역
○ 안전감 ○ 높은 자기 가치와 존중감 ○ 성숙감 ○ 소속감 ○ 책무성과 자율성 ○ 자기 의식	○ 신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 ○ 지적 건강 ○ 고용가능성 ○ 시민적 사회적 참여

이렇게 볼 때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발달의 결과 혹은 주요 목적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나 사회 기량이나 역량 요소 어느 하나에 국한하기보다는 인간발달의 이행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총체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발달은 안전과 보살핌, 가치 있고 유용하다는 기본적인 개인의 욕구로서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량과 능력의 형성 등 그 목적을 광범위하게 확대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발달의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목적의 확대는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주요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청소년발달이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교나 직장이 아니라 건강, 사회적 시민적 능력이며, 나아가 청소년의 자신감과 다른 사람과 사회와의 연계성을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는 더욱 중요시한다.

그리고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의 광범위한 발달 목적의 설정은 청소년발달과 관련된 실천분야에서 지향해야 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강조한다(Zeldin and Charter, 1996: 6-7). 첫째, 광범위한 목적은 청소년발달 분야의 임무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문제예방에 중점을 둔 임무 대신에 청소년발달 분야는 그 일이 어떻게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이익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 용어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광범위한 목적은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발달 과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해 줌으로써 일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목적은 그 자체에 책무성과 평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약물, 졸업, 취업 등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이 광범위한 발달 과제를 위한 그 자체의 책무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넷째, 목적의 확대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현장의 실천가들을 고무시키고,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일반적 미션을 제공한다. 또한

긍정적이고 획득 가능한 목적에 초점을 둬으로써 지속적인 실천과 행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전략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예방이나 억제 혹은 치료나 교정 등에 의한 문제의 감소보다는 준비와 발달을 강조하는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다. 그리고 기본적 전략으로는 궁극적인 목적과 지원 및 기회의 제공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청소년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예방은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참조: Pittman, Cahill and Zeldin, 1994).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는 청소년이 성공적이고 책임 있는 성인으로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준비와 발달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목적과 전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 기존의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적이거나 직업, 고용결과를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지속적으로 혹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으려는 노력이나 문제를 감소시키려는 많은 공공적 개입들-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단기간이며, 구체적인 결과에 협소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일반적 경향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 목적과 전략의 확대는 청소년발달과 이에 적절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와 이론에 기반 한 종합적인 틀 안에서 제안되고 있다.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는 현재의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인생의 복잡성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청소년발달의 복잡성과 발달과정에서의 참여가 긍정적 청소년발달 전략의 중심적 역할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청소년발달 자체에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필요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프로그램, 제도, 체제에 관한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긍정적 청소년발달은 다음 세 가지 청소년발달에 관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상정한다(참조: Pittman, 1996)). 첫째, 양질의 서비스(service)이다. 서비스는 교육, 건강, 고용, 비행예방과 같은 서비스로서 적절한 교육과 정보, 자신을 표현하고 기여하며,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집단의 일원이 되는 도전적인 기회에 대한 서비스 및 존중, 모범, 기대, 지도와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성인과 친구 등의 제공을 포함한다.

둘째, 지원(support)이다. 일상생활에서 성공을 위한 동기적, 정서적 전략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긍정적이고 존중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은 부모, 가까운 친척, 지역사회 네트워크, 교사, 청소년지도자, 고용주, 친구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제공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표 III-2>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기본 전략의 내용

기본 전략	내 용
서비스 (Service)	가르침, 보살핌과 안정적 장소의 제공 - 휴먼 서비스, 인프라스트락처, 안정적 장소
지 원 (Support)	동기적, 정서적, 전략적 지원 - 건전한 관계, 역할모델, 자원과 네트워크, 높은 기대와 명확한 준거
기 회 (Opportunities)	학습, 실수, 기여할 기회의 제공 - 양질의 교수, 훈련, 비형식적 학습 및 도전적 역할과 책무성

셋째, 기회(opportunities)이다. 기회는 청소년에게 행동하고 탐구하고 표현하고, 일하며 벌고, 소속되고 영향을 주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를 의

미한다. 기회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고 다른 역할을 시도하는 기회를 준다. 청소년은 성인과 함께 참여를 통해 가장 잘 학습할 수 있고, 학습은 모든 형태와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의 세 가지 기본전략은 청소년이 발달 과제를 성취하는데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부족하거나 상호 경쟁적인데 문제가 있다. 서비스는 종종 성인이 청소년에게,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기회와 지원을 더욱 강조한다. 기회와 지원은 서비스를 보완하고,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발달 논의에서는 청소년발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과 기회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참조: Zeldin and Charter, 1996). 첫째, 활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기회, 둘째,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기회 셋째, 성인과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 및 동기 부여 지원과 높은 기대 수준 넷째, 전략적 지원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한 지속적인 접근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이나 부모가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는 전략적 지원과 확대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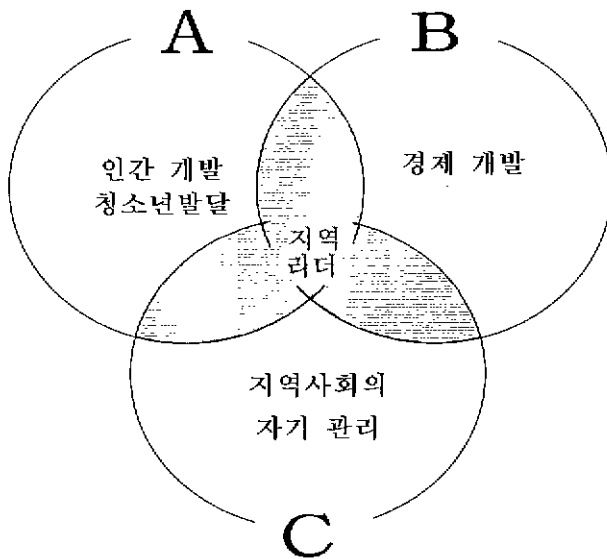
한편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는 특히 청소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 요소로서 지역사회 역할 강조한다. 모든 청소년발달 단계에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지역사회는 매력적이고 안전하며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장과 기회를 제공하며, 생활, 진로, 각종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역할을 청소년과 함께 강화하는 것이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는 청소년을 단순한 문제발생자로 보기보다는 지역사회

를 함께 변화시키고 강화시켜 가는 변화의 주체이자 문제해결자로서의 관점이 요구(참조: Pittman, 2000)되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기본전략으로서 풍부하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접근(systems approach)과 장 기반적 접근(place-based approach) 등 두 가지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Kauffman et al., 1992: 8-9). 첫째, 지역사회는 긍정적 청소년발달에 기여하는 기본적 체제의 변화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지역의 많은 체제가 청소년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 접근은 청소년발달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체제를 평가하는데 바탕을 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가정 지원체제, 초기 아동에 대한 양육과 교육체제, 학교교육체제 및 청소년의 체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발달 서비스체제의 변화와 개발에 중점을 둔다.

둘째, 청소년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체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성장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이행과정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는 핵심이 된다. 그리고 경제발전, 성장을 고무하는 인간개발, 양질의 교육기회, 시민적 자부심과 참여 등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장 기반적 접근은 이러한 건강한 지역사회(장 place으로서의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요구되는 투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의 지침이 된다.

특히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위한 건전한 지역사회 요소는 [그림 III-2]와 같이 경제개발, 인간개발 및 지역사회의 자기 관리를 포함한다. 경제개발은 주로 직업과 복지 창출을 요구하며, 인간개발은 효과적인 학교,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와 다른 사회적 지원 등을 포함하며, 특히 청소년의 인적 자원 개발이 핵심을 이룬다. 지역사회의 자기 관리는 좋은 이웃을 위한 비전, 조직, 리더십, 영향력 및 행동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III-2] 건전한 지역사회 모델

이상과 같이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과 전략은 기존의 문제 예방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을 그 사회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을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청소년발달에 대한 포괄적 접근(generic approach)은 이미 발생하고 난 후에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 범주적 혹은 목표 지향적 접근과 구별된다. 그 보다는 청소년기의 긍정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관계나 의사결정 기량 등 책임 있는 성인에게 요구되는 정체성과 기량 향상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표 III-3> 참조).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청소년의 고용, 직업이나 일 및 진로탐색 등과 같은 청소년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연계될 때 더욱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III-3>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관점과 전략

접근 방법	청소년 관점	전 략
발달적 접근 (Developmental Approach)	○ 자원으로서의 청소년 (youth as resource) - 변화 주체(change agent) - 자질기반접근 (asset-based approach) ○ 문제해결자로서의 청소년	○ 서비스 ○ 기회 ○ 자원 * 지역사회의 체제적 접근과 장기 기반적 접근을 통한 변화
예방적 접근 (Preventive Approach)	○ 문제야기자로서의 청소년 - 상처받기 쉬운 청소년 - 상처받은 청소년	○ 예방 ○ 개입 - 치료 - 교정
위기적 접근 (Crisis Approach)	○ 문제나 예방에 관심 - 공중위생 모델 - 결함모델	
교정적 접근 (Remedial Approach)	- 억제모델	

2. 청소년 진로탐색의 발달적 접근

청소년 진로발달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이 개발되어 왔고, 어떤 유형의 접근이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효과적인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인간발달 개념을 진로지도에 도입하여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Super에 의해 진로발달이론이 개발되었고 다른 많은 학자들도 진로발달 이해를 돕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런 이론들은 상담기법 및 평가전략 개발, 그리고 내담자를 도와주기 위한 정보창출 및 구조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진로지도를 학교교육과 연계시켜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지도를 시도한 학교중심 포괄적 진로교육 모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을 연결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진로인식(유치원, 초등학교 K-6), 진로탐색(중학교 7-9), 진로준비(고등학교 10-12), 진로정치의 4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진로지도 모형이 인식, 탐색 그리고 준비단계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추고 진로발달의 이해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한다. 첫째, 진로인식은 어떤 특정시기의 활동이 아니라 생애전반에 걸쳐 계속되어져야만 하는 활동이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새로운 화폐는 학습’이라는 Reich의 말처럼 연속적인 고용능력 등을 촉진시킬 기능들(융통성, 창의성, 대인 및 의사소통 기술, 지속적인 학습능력, 일·시간·돈관리 능력 등)을 학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한다. 둘째, 새로운 진로탐색 방법은 현장학습 성격의 인턴십, 도제제도 그리고 특정 직업영역에서의 근로경험 등과 같은 학교-직업세계로의 이행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21세기의 일터는 많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새로운 지식에의 동화에 필요한 개인의 사고력, 응용력,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변화되는 내용으로 인한 높은 작업로드가 주어진다. 따라서 오늘날 극도로 경쟁적인 일터에서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자기인식, 갈등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관계관리능력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일의 세계화와 새로운 기술 그리고 서비스영역 직업 수의 증가는 일의 수행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진로계획을 통한 개인과 기술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결정 및 선택은 부모나 혹은 다른 권위 있는 타자들의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아정체감이 확고하게 구축된 청소년은 특정 진로계획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을 적극적인 탐색과 의사결정에 기초

를 둔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정은 자신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어떻게 동기화된 노력을 개발하고 내면화하는가를 고려한 방법이어야만 한다. 진로탐색과정은 Ginzberg나 Super가 주장하는 진로발달의 한 단계나 Tiedeman이나 O'Hara의 주장처럼 진로의사결정의 한 단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중요한 적응기능 과정으로 진로탐색과정에는 자기이해와 자신과 관계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의 탐색을 동기화 시키고 유지시키는 개인의 동기를 참조할 수 있는 태도 관련요소 및 탐색활동을 경험하면서 개발되는 탐색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개인적 측면에서는 진로선택을 구체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해야 하지만 청소년은 진로지도 및 상담가, 지역사회인사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진로개발능력을 터득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들의 직업적 삶에 있어서 보다 자기결정적이고 주체적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태도들을 통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한 발달적 청소년 진로지도는 청소년들의 개인적·사회적·직업적·학문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접근방식으로, 주요 목적은 청소년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고 경험하는 것을 도와 진로선택 및 의사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발달적 진로지도 접근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에 대한 이해와 탐색 및 내·외적 동기화는 물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사회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체제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에게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진로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이들 지원체계가 긴밀히 협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발달적 진로지도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도와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된 청소년기를 추구하고 급변하는 일의 세계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정의적 기본 기술의 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

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달적 청소년 진로지도의 접근이 전제하는 기본 요소와 실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III-4> 발달적 청소년진로지도의 기본요소와 실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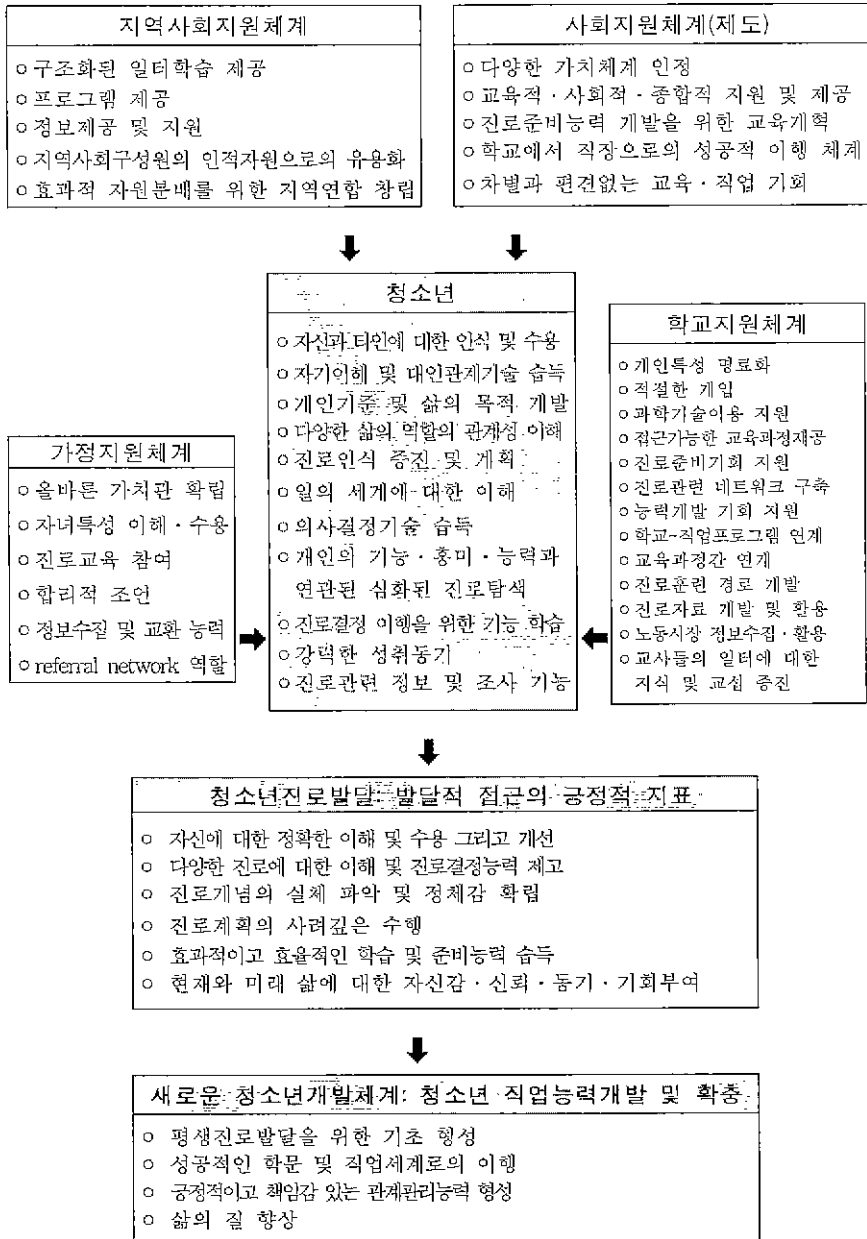
- 발달적 진로지도는 청소년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발달적 진로지도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발달적 진로지도는 시대의 주류(mainstream)에 맞추어 나간다.
- 발달적 진로지도는 다면적(multi-faceted)이다.
- 발달적 진로지도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
- 발달적 진로지도는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을 개발한다.
- 발달적 진로지도는 학교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사회까지 포함한다.
- 발달적 진로지도는 조직적이다.
- 발달적 진로지도는 관련기관 및 요소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 발달적 진로지도는 적절하고 접근가능한 정보를 이용한다.
- 발달적 진로지도는 연속성과 융통성을 갖는다.

*비고: Dusseldrop Skills Forum, 1997 자료와 발달적 상담원리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한편 발달적 청소년 진로지도는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의 접근방식과 전략 및 발달과제를 포괄하면서 청소년을 준비된 성인으로 준비시키는 관점에서 청소년의 진로(career)와 발달(development)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를 위해 발달적 진로지도는 청소년에게 진로지향적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 추구하는 발달과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과제를 진로발달의 바람직한 결과로 상정한다. 왜냐 하면, 직업 혹은 진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진로지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Zeldin and Charter, 1996). 첫째, 일이나 진로에 초점을 둔 협소한 수행 과제로서 진로지도 목표는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함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반영하기 어렵게 한다. 둘째, 진로 중심의 과제 설정은 진로지도의 체계를 지나치게 좁게 채택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실정을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를 힘들게 한다. 셋째, 청소년들은 실제적이고 광범위한 이익을 강조하는데 반해 기존의 진로지도는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계속교육 등의 지나친 강조로 청소년의 전반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지도와 교육이 시행되고 개선되어 왔지만, 청소년들이 왜 진로관련 제도적 지원망에는 등을 돌린 채 스스로 알아서 고민하면서 직업세계로 이행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어렵게 한다. 넷째, 기존의 지나치게 분절화된 진로발달단계별 수행과제 중심의 설정은 연령단계별로 구성된 학교교육 중심의 진로지도의 목표로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학교 밖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일터에서의 지원과 경험에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초등·중등·일반교육 및 직업교육 등 학교급별로 대칭되는 진로지도 과제의 설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융통성있고 유연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구조적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달적 청소년 진로지도에서는 긍정적 청소년발달 관점에서 제안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인 청소년기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서의 청소년 관점을 채택한다. 따라서 청소년 진로발달과정으로서의 진로인식·진로탐색 및 진로준비는 특정 단계의 고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청소년기라는 생애이행과정에서 언제나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 순환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림 III-3]은 청소년의 발달적 진로지도를 위한 청소년·가정·학교·지역사회·사회 각 영역에서의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III-3] 청소년 진로지도의 발달적 접근 모형

IV. 청소년 진로탐색 및 의식 실태

1. 청소년 진로탐색 및 의식조사 개요
2. 청소년 진로탐색 및 의식조사 결과분석

IV. 청소년 진로탐색 및 의식 실태

1. 청소년 진로탐색 및 의식조사 개요

1) 조사목적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의식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의식과 진로준비 및 평생진로발달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지도를 어떻게 받고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로관련 욕구는 무엇인지 그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삼아 지역별(강남·북), 학교급별(중학교·인문고·실업고), 성별로 구분하여 유의 표집하였으며 전체 표본수는 1,260명이다(<표 IV-1> 참조). 조사는 2000년 9월 25일에서 10월 7일에 걸쳐 특별활동 부장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의 크기는 중학교 532부, 인문계 고등학교 486부, 실업계 고등학교 190부로 총 1,208부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607명으로 전체의 50.3%이며, 여학생은 600명으로 전체의 49.7%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조금 더 높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532명으로

전체의 44.0%, 인문계 고등학생이 486명으로 전체의 40.2%, 실업계 고등학생이 190명으로 전체의 15.7%로 고등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다.

<표 IV-1> 설문대상 집단

(단위 : 명(%))

구 분		사례수	전 체
성 별	남학생	607(50.3%)	1207(100.0%)
	여학생	600(49.7%)	
학 교 급 별	중학교	532(44.0%)	1208(100.0%)
	인문고	486(40.2%)	
	실업고	190(15.7%)	
성적별	상	258(21.3%)	1183(100.0%)
	중	742(62.7%)	
	하	183(15.5%)	
아버지 학력별	안계심	22(1.9%)	1177(100.0%)
	중졸이하	127(10.8%)	
	전문대졸이하	433(36.8%)	
	대졸이상	595(50.6%)	
어머니 학력별	안계심	10(0.9%)	1175(100.0%)
	중졸이하	178(15.1%)	
	전문대졸이하	567(48.3%)	
	대졸이상	420(35.7%)	
경 제 수준별	상	141(12.2%)	1155(100.0%)
	중	881(76.3%)	
	하	133(11.5%)	

3)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크게 ①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인식 ② 진로선택 시기 및 선택·장애요인 ③ 진로상담 대상 및 진로정보원 ④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선호도 ⑤ 학교내에서의 진로교육 및 상담 경험 ⑥ 학교밖에서의 진로상담 경험 ⑦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⑧ 개인적인 인적사항 등의 8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항목은 연구진이 기존의 관련논문 등을 참고로 하여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표 IV-2> 참조).

<표 IV-2>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조사영역	세부항목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인식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 ○진로선택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진로선택 시기 및 선택 · 장애요인	○진로(직업)에 대해 처음 생각해 본 시기 ○진로(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시기 ○진로(직업)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진로(직업)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 ○진로(직업)선택시 가장 큰 장애요인
진로상담 대상 및 진로정보원	○진로상담 대상 ○진로탐색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통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선호도	○직업체험 선호도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용구성에 대한 선호도
학교내에서의 진로교육 및 상담 경험	○학교에서 진로교육 · 지도를 받아본 경험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시간 및 방법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희망하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시간 및 방법
학교밖에서의 진로상담 경험	○학교밖에서 진로상담을 받아본 경험 ○학교밖에서의 진로상담에 대한 만족도 ○학교밖에서 진로상담을 받은 기관유형 ○학교밖에서 받은 진로상담 내용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인적인 인적사항	○성별 · 학교급 · 성적 ○부모님의 학력 및 직업 ○경제수준

4) 조사결과 분석방법

조사결과 분석은 SPSS/Ver.10으로 하였고, 사용된 분석방법은 빈도 분석과 주요 변인별 교차분석 등이 사용되었으며, 교차분석의 통계치는 χ^2 값을 산정하여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교차분석에서 사용된 변인은 성별, 학교급별, 성적별, 아버지·어머니학력별, 경제수준별이었으나 본문에서는 성별, 학교급별, 성적별만 제시하였다.

5) 조사의 한계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조사 대상을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청소년에 한정하여 임의 표집함으로써 본 조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조사에 사용된 설문문항이 청소년의 진로인식 및 실태에 대한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요인과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한 관계로 연구결과 해석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

2. 청소년 진로탐색 및 의식조사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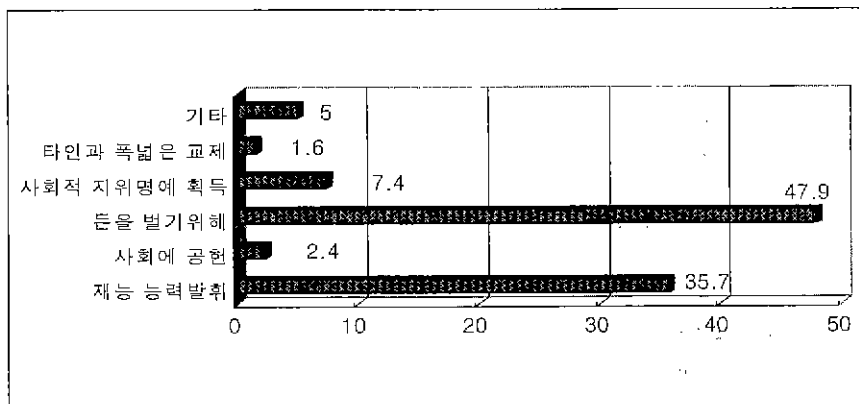
1)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인식

(1) 직업에 대한 가치관

청소년들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과반수 정도(47.9%)

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35.7%),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7.4%),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2.4%), '여러 사람들과 사귀기 위하여'(1.6%)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1>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직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경제지향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1$). 그리고 중학생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이 직업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어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여 주고 있으며, 성적이 낮을수록 직업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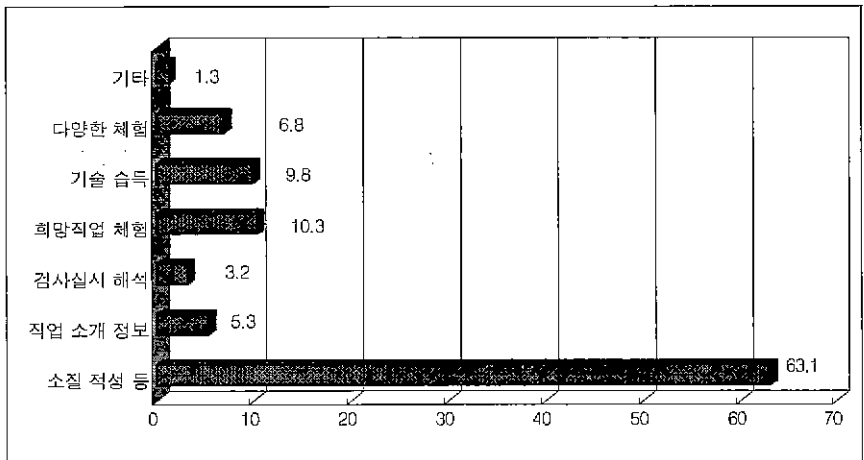
[그림 IV-1]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

(2) 진로(직업)선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청소년들의 %정도(63.1%)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자신의 소질·적성 및 특성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직업들에 대한 사전 체험'(10.3%), '직업준비를 위한 특정 기능이나 기술 습득'(9.8%), '자기개발이나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6.8%), '여러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5.3%), '진로관련 각종 검사 실시 및 해석'(3.2%)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1-2>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직업준비를 위한 특정 기능이나 기술 습득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학생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이 직업준비를 위한 특정 기능이나 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p < .001$). 또한 성적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사전 체험 희망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직업으로의 조기 이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2] 진로선택에 가장 필요한 요인

2) 진로선택 시기 및 선택 · 장애요인

(1) 진로(직업)에 대해 처음 생각해 본 시기

청소년들의 %정도는 자신의 진로(직업)에 대해 ‘초등학교 4~6학년’ 때와 ‘중학교’때 처음 생각해 보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발달단계에서 진로 인식단계에 속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어느 정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표 2-1> 참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생각해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학생의 진로인식수준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1$).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어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여 주고 있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이전과 저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p < .01$).

<표 IV-3> 직업(진로)에 대해 처음 생각해 본 시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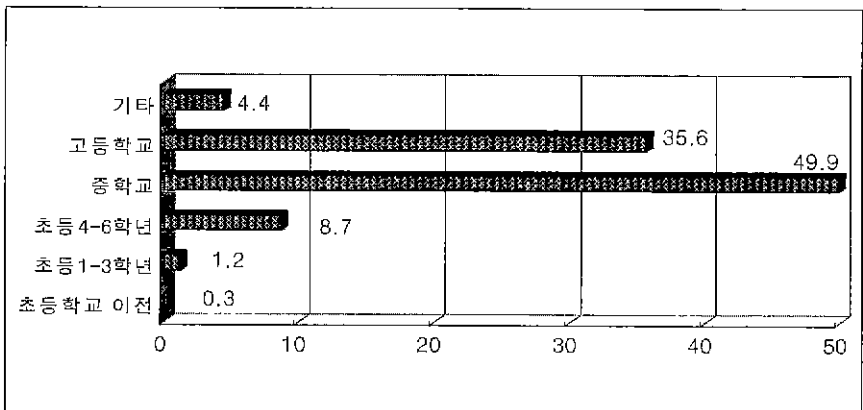
구 분	초등 학교 이전	초등 1-3 학년	초등 4-6 학년	중학교	고등 학교	기타	전 체	비 고
성 별								
남학생	13.4	14.3	30.3	32.0	8.6	1.3	603(100%)	$\chi^2 = 19.694^{***}$
여학생	18.2	18.2	30.2	28.7	4.0	.9	599(100%)	
학교 급별								
중학교	17.5	18.1	40.9	22.5	-	.9	530(100%)	$\chi^2 = 213.946^{***}$
인문고	17.8	16.9	26.2	30.4	7.4	1.2	484(100%)	
실업고	5.8	9.0	10.6	52.4	21.7	.5	189(100%)	
성 적 별								
상	22.6	19.8	27.6	24.1	4.3	1.6	257(100%)	$\chi^2 = 26.074^{**}$
중	14.9	16.3	30.8	30.8	6.6	.7	738(100%)	
하	10.4	11.5	33.9	35.5	7.7	1.1	183(100%)	
전체	15.8	16.2	30.3	30.3	6.4	1.0	1204(100%)	

** $p < .01$ *** $p < .001$

(2) 진로(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시기

청소년들의 대다수(85.5%)는 학교급별에 따라 다르지만 인문계나 실업계를 선택해야 하는 ‘중학교’(49.9%)때와 대학 입시준비를 해야하는 ‘고등학교’(35.6%)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2-2> 참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진로를 생각해 보는 비율이 더 높으며,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성적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학교급별에 따라 다르지만 중학교 시기에 인문계나 실업계를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의 선택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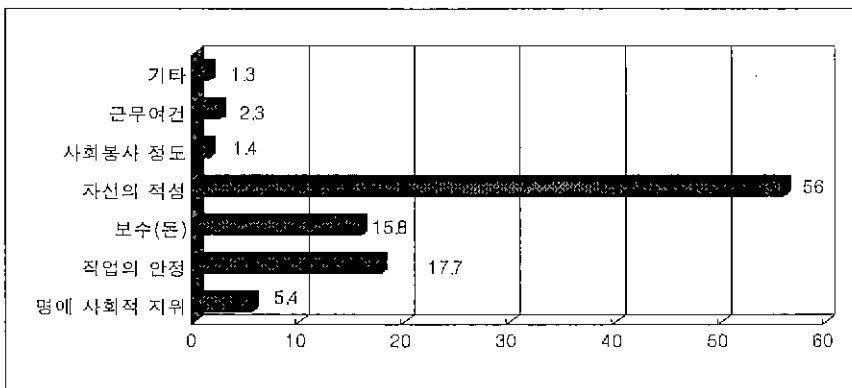
[그림 IV-3]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시기

(3) 진로(직업)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청소년들의 과반수이상(56.0%)은 진로(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는 ‘직업의 안정성’(17.7%), ‘보수’(15.8%), ‘명예와 사회적 지위’(5.4%), ‘근무여건’(2.3%), ‘사회봉사’(1.4%)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2-3>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선택시 보수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이 직업선택시 직업의 안정성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또한 성적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직업선택시 명예나 사회적 지위 보다는 보수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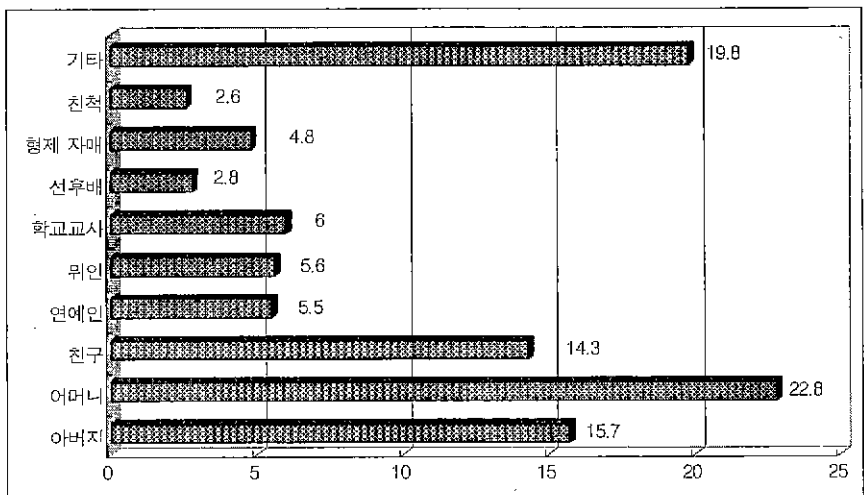
[그림 IV-4] 진로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인

(4) 진로(직업)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22.8%)와 ‘아버지’(15.7%), ‘친구’(14.3%) 순으로 나타나 자신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대상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부록표

2-4> 참조).

남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연예인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은 어머니와 연예인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은 친구나 선·후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또한 성적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직업선택시 아버지, 친구, 연예인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림 IV-5]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5) 진로(직업)선택시 가장 큰 장애요인

청소년들의 과반수 정도(41.0%)는 진로(직업)선택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학업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대한 이해 부족’(22.8%), ‘진로관련 정보 부족’(12.2%),

‘능력부족’(11.7%), ‘부모님의 기대’(4.6%), ‘경제적 여건’(4.3%), ‘신체적 조건’(1.6%)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2-5> 참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적이나 부모님의 기대를 진로선택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이 진로선택시 학업성적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p < .001$).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진로선택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관련정보 부족과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진로선택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p < .01$).

<표 IV-4> 진로(직업)선택시 가장 큰 장애요인

(단위 : %)

구 분	학업 성적	관련 정보 부족	능력 부족	자신 이해 부족	신체 조건	부모 님의 기대	경제 여건	기타	전 체	비 고
성 별										
남학생	44.3	10.2	12.2	20.3	1.5	5.3	4.6	1.5	605(100%)	$\chi^2 = 13.345$
여학생	37.7	14.2	11.1	25.2	1.7	3.9	3.9	2.4	592(100%)	
학 교 급 별										
중 학교	36.4	12.7	12.5	21.4	2.7	6.5	4.6	3.2	527(100%)	$\chi^2 = 48.931***$
인문고	49.0	11.0	8.9	22.2	.4	2.9	4.6	1.0	482(100%)	
실업고	33.3	13.8	16.4	28.0	1.6	3.7	2.6	.5	189(100%)	
성 적 별										
상	29.3	14.8	8.6	32.4	1.6	3.9	8.2	1.2	256(100%)	$\chi^2 = 71.905***$
중	41.1	12.0	13.1	22.2	1.0	5.2	3.1	2.3	734(100%)	
하	57.4	8.7	10.9	10.9	3.8	2.7	3.8	1.6	183(100%)	
전체	41.0	12.2	11.7	22.8	1.6	4.6	4.3	1.9	119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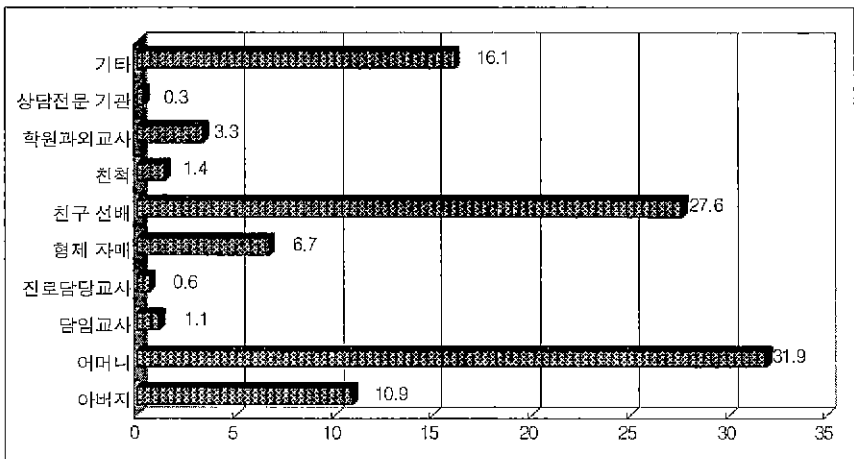
*** $p < .001$

3) 진로상담 대상 및 진로정보원

(1) 진로상담 대상

청소년들의 ½정도(31.9%)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로 ‘어머니’와 상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나 선배’(27.6%), ‘아버지’(10.9%), ‘형제자매’(6.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3-1> 참조).

남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아버지와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어머니와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은 어머니와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은 친구나 선·후배와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또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어머니와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고있다.



[그림 IV-6] 진로상담 대상

(2) 진로탐색 정보원

청소년들의 ¼정도(24.2%)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TV나 라디오 등의 매스컴’(17.7%), ‘친구·선배’(13.2%), ‘부모’(11.8%) 순으로 나타나 N세대다운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부록표 3-2> 참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진로탐색에 필요한 정보를 PC통신이나 인터넷, 부모를 통해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사적어나 잡지, 매스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 < .01$)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은 부모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은 친구나 선배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님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고있다.

<표 IV-5> 진로탐색의 주요 정보원

(단위 : %)

구 분	부 모	형제 자매	담임 교사	진로 담당 교사	친구 선배	인터넷 PC 통신	서적 잡지	매스 컴	상담 전문 기관	학원 과외 교사	친 척	기 타	전 체	비 고
성 별														
남학생	14.0	3.	3.6	1.2	14.7	26.0	7.4	17.4		5.0	1.3	6.1	605(100%)	$\chi^2 = 29.945^{**}$
여학생	9.4	4.	3.0	2.0	11.5	22.4	14.3	18.0	.3	7.4	1.3	5.9	593(100%)	
학 교 급 별														
중학교	17.4	4.	1.7	1.3	8.3	23.9	9.8	19.5	.2	5.3	1.1	6.6	528(100%)	$\chi^2 = 123.598^{***}$
인문고	8.3	2.	2.3	.8	15.0	23.7	14.1	17.7	.2	8.5	1.2	5.4	481(100%)	
실업고	4.7	3.	10.5	4.2	22.1	26.3	5.8	12.6		2.1	2.1	5.8	190(100%)	
성 적 별														
상	15.2	4.	3.9	1.2	8.2	18.4	12.1	17.2	.4	9.4	2.0	7.8	256(100%)	$\chi^2 = 38.405^*$
중	11.0	3.	2.7	1.6	14.0	27.3	10.6	18.0		4.9	.8	5.3	735(100%)	
하	10.4	3.	4.9	2.2	15.8	20.2	9.8	15.8	.5	6.6	2.7	7.1	183(100%)	
전체	11.8	3.	3.3	1.6	13.2	24.2	10.9	17.7	.2	6.2	1.3	6.0	12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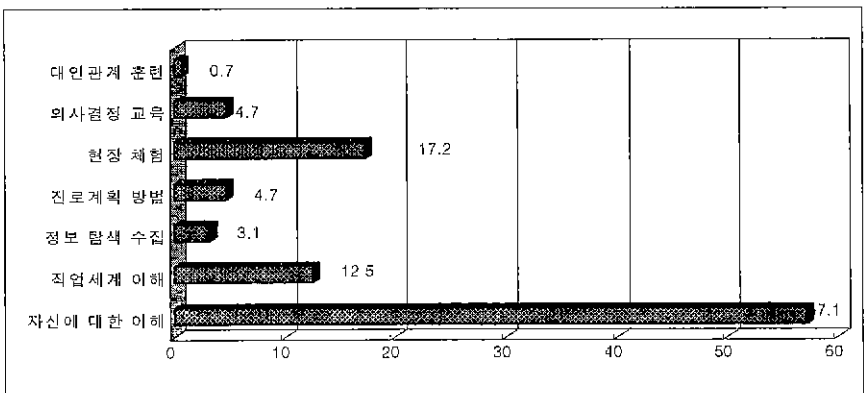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4)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선호도

(1)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용구성에 관한 선호도

청소년들의 과반수이상(57.1%)은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현장체험’(17.2%), ‘직업의 세계에 대한 소개 및 이해’(12.5%), ‘자신의 일생을 통한 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법’, ‘자신의 진로에 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4.7%) 순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4-1-1> 참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현장체험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그리고 성적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2) 직업체험 선호도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참여해보고 싶어하는 직업은 ‘컴퓨터관련직업’(12.1%), ‘교육관련직업’(11.3%), ‘디자인관련직업’(8.5%), ‘신문방송관련직업’(8.3%), ‘연예활동관련직업’(7.2%), ‘의술관련직업’(6.7%), ‘공직관련직업’(5.6%), ‘예술관련직업’(5.0%), ‘사업관련직업’(4.4%), ‘사무직·서비스봉사관련직업’(4.1%), ‘순수학문관련직업’(3.7%), ‘법관련직업’(3.6%), ‘운동관련직업’(2.9%) 순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4-2-1>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컴퓨터·운동분야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여 주고 있으며,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이 컴퓨터·서비스봉사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p < .001$). 또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의술, 교육, 공직관련 직업체험 선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이고 있다(<표 IV-6> 참조).

5) 학교내에서의 진로교육 및 상담 경험

(1) 학교에서 진로교육·지도를 받은 경험

청소년들의 과반수 정도(51.3%)가 학교에서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진로발달단계의 진로탐색과 진로준비기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의 효과적이고 정상적인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부록표 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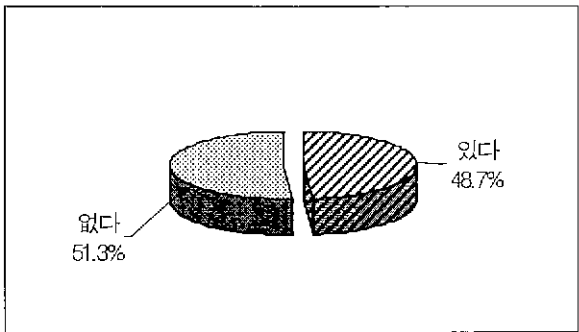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그리고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을수록 학교에서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8] 참조).

<표 IV-6> 가장 참여해보고 싶은 직업체험(성별 · 학교급별)

(단위: %)

구 분	성 별		학 교 급 별			전 체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컴퓨터관련직업	20.3	4.0	12.9	9.0	18.5	12.1
사무직관련직업	5.7	2.5	1.5	5.2	8.9	4.1
운동관련직업	5.7	.2	4.0	1.7	3.2	2.9
신문방송관련직업	4.7	12.0	7.2	11.1	4.5	8.3
연예활동관련직업	5.1	9.3	7.8	5.9	8.9	7.2
순수학문관련직업	4.5	2.8	4.6	3.8	.6	3.7
의술관련직업	5.1	8.3	7.4	6.8	3.8	6.7
건축관련직업	1.7	1.3	4.5	1.9	.6	1.5
성직관련직업	.9	.2	.8	.5		.6
벤처관련직업	2.3	.4	1.1	1.2	2.5	1.3
언어관련직업	.6	2.8	1.1	2.4	1.9	1.7
예술관련직업	4.7	5.3	6.3	4.7	1.9	5.0
서비스봉사관련직업	3.0	5.1	1.7	4.0	11.5	4.1
가계관련직업	3.0	1.1	2.3	2.4	.6	2.1
교육관련직업	5.7	16.9	12.7	12.0	5.1	11.3
디자인관련직업	.9	16.1	11.0	5.2	10.2	8.5
법관련직업	4.4	2.7	3.6	4.5	1.3	3.6
음식관련직업	2.5	1.3	2.1	.9	3.8	1.9
공직관련직업	8.7	2.5	4.9	7.3	3.2	5.6
사업관련직업	6.8	1.9	1.9	7.3	3.8	4.4
항공관련직업	1.5	2.3	2.3	1.9	.6	1.9
기타	2.1	.9	1.5	.5	4.5	1.5
전체	528	527	474	424	157	1056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chi^2 = 286.700^{***}$		$\chi^2 = 146.97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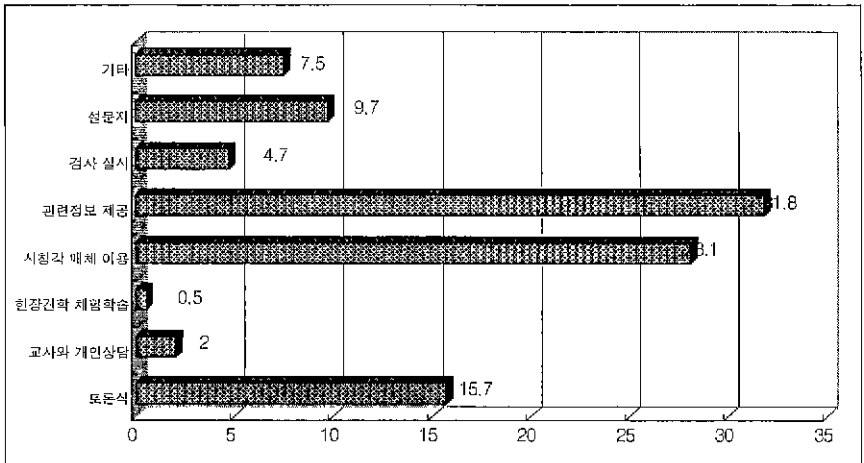


[그림 IV-8] 학교에서 진로교육·지도를 받은 경험

(2) 학교에서 진로교육·지도를 받은 시간 및 방법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진로교육은 ¼정도(25.9%)만이 ‘진로교육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HR시간’(34.9%)이나 ‘교과시간’(19.9%), ‘점심 시간이나 방과후’(11.3%) 등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5-2-1> 참조). 그리고 진로교육 방법은 주로 진로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31.8%) 비디오나 CD 등의 시청각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론식(15.7%), 개인상담(2.0%), 현장견학이나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은 0.5%수준에 그치고 있어 진로교육이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부록표 5-2-2>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교과시간에 진로교육이나 지도를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토론식으로 진로교육이나 지도를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교사와의 개인면담을 통한 진로교육 및 지도를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적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IV-9]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 방법

(3)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서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frac{1}{10}$ 정도(11.2%)만이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욕구와 진로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부록표 5-3> 참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p < .01$). 또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p < .01$)를 보이고 있다.

<표 IV-7>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지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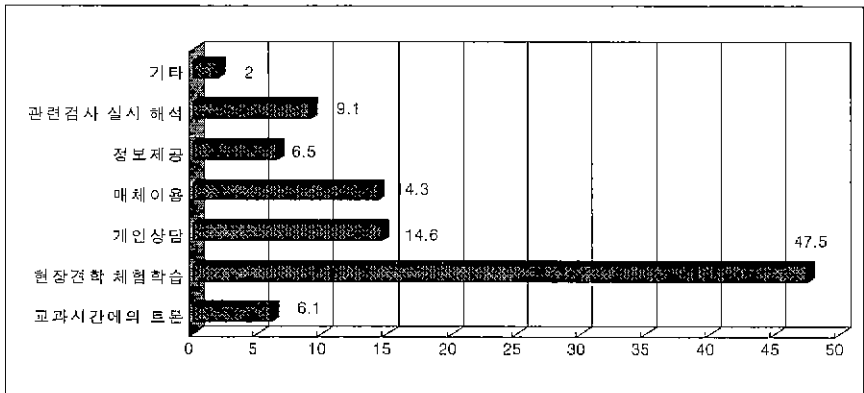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비 고
성 별							
남학생	2.0	10.4	51.8	21.5	14.3	251(100%)	$\chi^2 = 2.375$
여학생	1.2	9.3	49.2	26.4	13.8	333(100%)	
학교급별							
중학교	1.8	9.7	56.3	20.6	11.6	277(100%)	$\chi^2 = 20.255^{**}$
인문고	1.2	9.5	40.7	29.9	18.7	241(100%)	
실업고	1.5	10.6	60.6	19.7	7.6	66(100%)	
성적별							
상	3.5	12.7	43.7	27.5	12.7	142(100%)	$\chi^2 = 19.985^{**}$
중	.6	8.1	50.7	25.6	15.0	359(100%)	
하	2.9	14.3	61.4	11.4	10.0	70(100%)	
전체	1.5	9.7	50.4	24.3	14.0	585(100%)	

** $p < .01$

(4)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지도를 받는 시간 및 방법에 대한 요구

청소년들의 과반수 정도(46.3%)는 진로와 관련된 단원이 있는 교과시간(25.6%)이나 진로상담시간(20.7%)을 통해서 진로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20.3%는 'HR시간'을 통해서, 이외에도 '진로교육시간'(13.3%), '특별활동시간'(10.0%)을 통해서 진로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부록표 5-4-1> 참조).

그리고 희망하는 진로교육 방법으로는 과반수 정도(47.5%)가 '진로관련 현장견학이나 체험학습'을 원하고 있으며 '진로관련 개인상담'(14.6%)이나 '비디오나 CD 등의 매체 이용'(14.3%)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 방법과 희망하는 방법이 서로 상이한 것을 보여준다(<부록표 5-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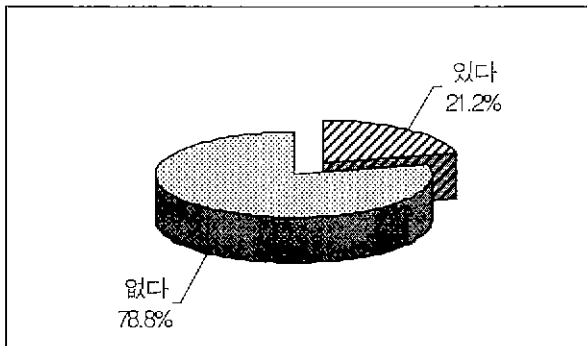
[그림 IV-10]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방법

6) 학교밖에서의 진로지도·상담 경험

(1) 학교밖에서의 진로지도·상담 경험

청소년들의 ¾정도(78.8%)는 학교이외에 지역사회나 인터넷을 통해 미래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검사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밖에서도 충분한 진로지도나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부록표 6-1>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교이외에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검사나 상담을 받은 비율이 낮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 < .01$)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역사회와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검사나 상담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p < .001$). 또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학교이외의 지역사회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진로관련 검사나 상담을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적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p < .01$)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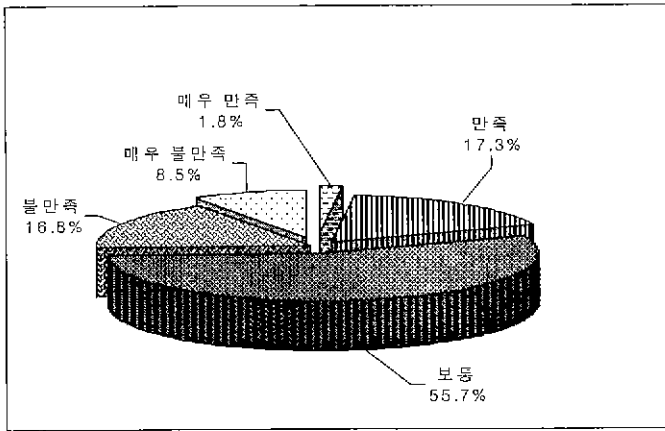


[그림 IV-11] 학교밖에서의 진로상담 경험

(2) 학교밖에서의 진로지도·상담에 대한 만족도

학교이외의 지역사회나 인터넷을 통해 장래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검사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frac{1}{5}$ 정도(19.1%)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내용·방법에서의 다양화와 청소년의 진로관련 욕구 파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부록표 6-2> 참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이외에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검사나 상담을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이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검사나 상담을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p < .01$). 또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이외의 지역사회 진로관련 및 청소년관련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받은 진로관련 검사나 상담에 대해 불만족해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진로발달단계별 진로관련 검사 실시 및 상담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그림 IV-12] 학교밖에서 받은 진로상담 만족도

(3) 학교밖에서 진로지도·상담을 받은 기관유형

학교이외의 기관에서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¼ 이상(27.7%)은 ‘진로관련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상담기관이나 진로관련단체’(20.4%)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단체’나 ‘진로정보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각 9.8%에 그쳐 학교밖에서의 청소년을 위한 진로관련지도 기관이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부록표 6-3>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이 진로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검사나 상담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관련단체나 진로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진로관련 검사나 상담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8> 학교밖에서 진로지도·상담을 받은 기관

(단위: %)

구 분	진로 관련 단체	청소년 단체	진로 정보 센터	자원 봉사 센터	교육청 하 사 관	관 련 인터넷 사이트	기 타	전체	비고
성별									
남학생	19.3	11.1	8.9	4.4	5.9	26.7	23.7	135(100%)	$\chi^2 = 3.748$
여학생	21.5	8.7	10.7	1.3	7.4	28.9	21.5	149(100%)	
학교급별									
중학교	11.0	12.0	9.0	2.0	7.0	30.0	29.0	100(100%)	$\chi^2 = 17.926$
인문고	27.6	6.2	9.0	3.4	6.9	26.9	20.0	146(100%)	
실업고	17.5	17.5	15.0	2.5	5.0	25.0	17.5	40(100%)	
성적별									
상	30.1	9.6	11.0	4.1	9.6	20.5	15.1	73(100%)	$\chi^2 = 14.675$
중	18.9	10.1	10.1	3.0	5.3	28.4	24.3	169(100%)	
하	8.1	10.8	8.1		8.1	32.4	32.4	37(100%)	
전체	20.4	9.8	9.8	2.8	6.7	27.7	22.8	285(100%)	

(4) 학교밖에서 받은 진로지도·상담 내용

청소년들이 학교이외의 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받은 진로지도 내용은 과반수이상(53.3%)이 진로관련 검사를 받은 것이었으며, 이 밖에는 진로관련정보(17.0%)를 얻거나 진로상담(15.4%)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밖에서의 진로관련지도 및 상담 내용도 관련검사 실시·해석과 진로관련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록표 6-4>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관련 체험활동이나 진로관련정보를 획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검사를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5$). 또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은 진로관련 검사를 받은 비율이 성적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은 직업체험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고 있다.

<표 IV-9> 학교밖에서 받은 진로지도·상담 내용

(단위: %)

구 분	진로 관련 검사	진로 상담	진로 정보 획득	직업 체 험 동 활	진로 프로 그램	기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43.8	15.3	18.1	11.1	3.5	8.3	144(100%)	$\chi^2 = 21.103^{***}$
여학생	62.1	15.5	16.1	1.9	1.9	2.5	161(100%)	
학교급별								
중학교	50.0	16.4	15.5	8.2	2.7	7.3	110(100%)	$\chi^2 = 20.802^*$
인문고	60.9	13.9	15.2	4.0	.7	5.3	151(100%)	
실업고	35.6	17.8	26.7	8.9	8.9	2.2	45(100%)	
성적별								
상	60.0	13.8	16.3	5.0	2.5	2.5	80(100%)	$\chi^2 = 19.039^*$
중	53.3	17.8	14.4	5.0	3.3	6.1	180(100%)	
하	35.0	10.0	30.0	15.0		10.0	40(100%)	
전체	53.3	15.4	17.0	6.2	2.6	5.6	30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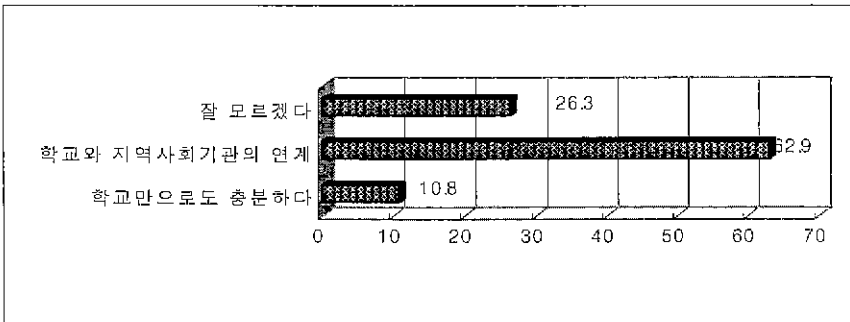
* p < .05 *** p < .001

7) 학교·지역사회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의 %정도(62.9%)가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의 연계를 통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지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역사회내의 현장과 연계된 진로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7-1> 참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p < .01$)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이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을 연계시킴으로써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1$). 또한 성

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성적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의 연계를 통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 함으로써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13]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필요성

V. 외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

1. 최근 선진국의 진로지도 동향
2. 외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
3. 외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 사례의 시사점

V. 외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¹⁾

1. 최근 선진국의 진로지도 동향

최근 OECD 각국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교육개혁을 전개하고 있는데,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주제가 진로지도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산업사회에서의 효과적인 국가적·개인적 대응은 일과 학습과의 연계가 기반이 되는 평생학습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양자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의 강화는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진로지도에 관해서 최근 들어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를 참조하면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프로그램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참조하고자 하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선정하였는 바, 이들 세 국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진로지도 체제 및 실제상의 특징으로 인해 우리 나라 상황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미국은 1994년 ‘학교로부터 일터로의 이행기회 지원법(STOWA: School-to-Work Transition Opportunities Act)’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고용시장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진로지도 정책과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진로지도 체제가 강화

1) 이 장은 진미석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집필하였음.

되어온 국가로서 최근 들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정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이다. 이 장에서는 각국의 진로지도에 관련된 정책, 산학협동 프로그램,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외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

1) 미국

(1) 학교로부터 일터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인적 자원의 질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청소년들을 대상 집단으로 하는 직업교육개혁안에서도 볼 수 있다. 미연방정부는 1994년 School-to-Work Transition Opportunities Act(학교로부터 일터로의 이행기회 지원법: 이하 STOW라 약함)를 발효하였는 바, STOW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력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적과, 만족스럽고 성과 있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돕자는 두 가지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개선뿐 아니라, 산업 현장학습이 필요하고 두 영역에서의 학습이 유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STOW의 핵심적 요소는 [그림 V-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 STOW에서는 일반 교과목의 강화라는 측면과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의 강화라는 두 측면이 강조된다. 이중 진로교육의 경우, 진로교육의 단계를 조기화시켜, 진로탐색과 카운슬링은 중학교 이전단계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2) STOW에 대한 법안 및 그림의 관련정보는 <http://www.stw.ed.gov> 참조.

단계부터는 적어도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있는 전공(career major)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의 발달상황이나 진척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하고, 특히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지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참조: 진미석, 1997).

일반교육의 강화 · 기초교과목의 성취 수준 강화 · 일반교과목과 직업교과목간의 통합교과목	○ 교육에 대한 산업체 참여 유도 ○ 학교교육과 현장교육과의 연계 ○ 일반교과목과 직업교과목간의 연계 강화 ○ 청소년 · 학교 · 산업체 · 부모간 연계 강화	직업기술교육의 강화 · 종래 직업기술교육 강화
진로교육의 강화 · 진로교육의 조기화 · 고등학교부터 진로에 적합한 전공선택 · 진로지도를 위한 카운슬링 강화		다양한 영역의 산업체 학습
		현장교수 workplace mentoring

* 비교 : School-to-Work Transition Opportunities Act of 1994, Title 1.

[그림 V-1] STOW의 핵심 요소

(2) 학교와 산업체간의 협동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

STOWA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재정적인 지원아래 현재 학교와 산업체와의 연계하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 프로그램들은 청소년과 직접 연

결되는 프로그램들로서 진로교육의 단계 즉, 진로인식(career awareness),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 진로준비(career preparation)의 단계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다음의 <표 V-1>은 산업체가 제공하는 청소년의 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표 V-1>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산업체 협력프로그램

진로 발달단계	프로그램의 특성			
	프로그램	대상·학년	길이	직원** 대 청소년의 비
진로인식 Career awareness	진로대화 Career Talks	유치원-대학생	1-2 시간	1:25명 내지30명
	진로의 날 / 행사 Career Days/Fairs	유치원-대학생	2시간-5시간	다양
	산업체/일터 방문 Workplace/Industry Tour	유치원-대학생	1-2시간	1:10내지 25
진로탐색 Career Exploration	직업안내 Job Shadowing	6학년-대학생	1일-2주	1:1 내지 5
	직업순환 Job Rotation	9-대학생	다양함	1:1 내지 8
진로준비 Career Preparation	인턴십 Internship	10학년-대학생	주당5-10시간 최소 1학기 혹은 주당40시간 4-6주 여름학기	1:1내지 8
	협동교육 Cooperative Education	10학년-대학생	주당 최소 3시간 1학기	1:1내지 8
	청소년도제 Youth Apprenticeship	10-14학년	주당5-10시간 최소 1학기	1:1 내지 8
	도제 Apprenticeship	13-16학년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
	현장교사제 Mentoring	9-16 학년	1개월간 3-4시간씩 10개월	1:1-2

*비고: National Employer Leadership Council, 1997.

** 직원이란 현장에서 청소년을 지도·교육하는 산업체의 직원을 의미함.

① 진로인식의 단계

· **진로 대화(Career Talks)** : 고용주나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회사나 산업체에 대하여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 **진로의 날/행사(Career Days/Fairs)** : 많은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매년 ‘진로의 날’의 행사에 참여한다. 각 산업체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진로의 날’에 자신의 산업체를 소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청소년들에게 설명하고 또 청소년들의 설명에 대답하는 활동이다.

· **산업체/일터 방문(Workplace/Industry Tour)** : 산업체에서 청소년들을 초빙하여 직원들과 대화할 기회와 자신의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을 관찰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② 진로탐색의 단계

· **직업안내(Job Shadowing)** : 청소년들에게 회사의 직원을 배당하여, 그 직원을 따라다니며 회사와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직업순환(Job Rotation)** : 직업안내 보다 더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한 부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과 직위를 순환하면서 각 직업이 지니는 책임, 그리고 요구되는 기술을 관찰하고, 그리고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단계를 배우고, 조직의 각 파트가 어떻게 생산성과 연결이 되는지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③진로준비의 단계

· **인턴십(Internship)** : 보통 여름방학 동안이나, 상당한 기간동안, 청소년들이 특정한 산업체에 들어가서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정해진 직책의 일을 해 봄으로써, 그 산업체나 직업에 대해 알 기회를 제공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인턴십의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보수를 제공받지 않는다.

· **협동교육(Cooperative Education)** : 청소년들은 어떤 직업이나 산업체에 관련된 과목을 선정하여 배우면서, 보통 고등학생들은 낮에는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는 그 산업체에 가서 일함으로써 현장 경험을 하도록 한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 학기 단위로 학교와 현장을 오고 가게 된다(참조: Wilson, 1988).

· **청소년 도제(Youth Apprenticeship)** : 학교에서의 일반 교과목과 직업기술 교과목간의 통합, 학교 현장의 학습과 산업현장의 학습간의 연계,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과 연계 등의 다면적인 요소를 포괄하고 있어, 산업체의 교육에 대한 참여의 여러 형태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 오고 있고, 또 가장 구조화가 잘된 프로그램이 청소년도제 제도이다(참조: U.S. Congress OTA, 1995). 이전의 일반 도제제도와 다른 점은 이전의 도제제도가 주로 직장을 갖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비해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이중계열(dual track)제도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고등학교 3, 4학년의 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와 산업체를 오고가면서 학습을 병행하고, 산업체로부터 구조화된 훈련을 받게 되고 산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도제 수습사원제는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후 직업세계로 진출할 직업준비반 청소년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업성취와 직업적 흥미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도제제도와 다른 점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이후 적어도 대학 1, 2년간의 교육과 연계되도록 하는 요소가 독일의 도제제도와 다른 점이다(참조: Center on Education and Work,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6).

· **현장교사제(Mentoring)** :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장 근로자가 교사 역할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개별적으로

기술과 지식을 설명하고 또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다. 이 활동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기 보다 STWOA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산업체 현장학습에서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체계: 윈스톱 진로지도 체계³⁾

진로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안 연구 참조

①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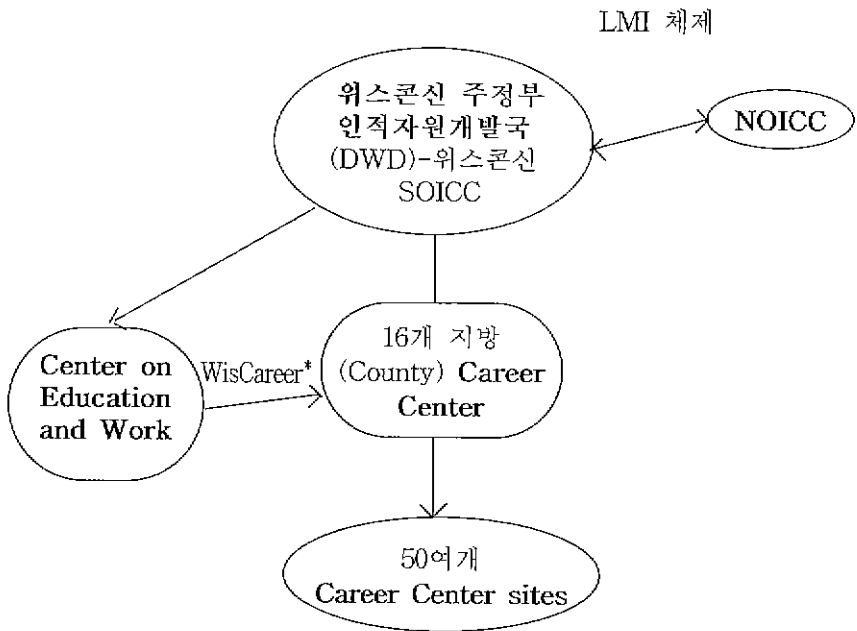
학교와 산업체간의 적극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 수행과 아울러,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와 상담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마다 다양한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소개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스콘신주의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진로정보 관련 서비스는 크게 학령기 청소년 대상의 진로지도 체계(Career Center)와 비진학 청소년 및 성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지도(Job Service)체계를 볼 수 있다. 진로지도체계는 아래 [그림 V-2]와 같은 형태로 연계되어 있다. 주 전체를 16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각 권역 당 중심 진로지도센터를 선정하고 각 센터 아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site로 연계되어 있다. 지역 분점(site)의 수는 지역마다 달라, 1개에서부터 46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진로지도 체계나 직업지도 체계는 주정부의 인적자원개발국(DWD: Department of Workforce Development)의 관리하에 놓여있다.

그리고 DWD는 중앙직업정보조정위원회(NOICC)의 위스콘신주의 파트너로 주 직업정보조정위원회(SOICC)로서 주내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여 중앙정부로 보내주는 역할도 아울러 하고 있다. Job Service나 Career Service에서 활용되는 직업진로관련 프로그램이나

3) 진미석·손유미·이장익, 1999 참조.

매체들은 주로 NOICC의 지침과 자료를 바탕으로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CEW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WisCareer : 컴퓨터진로지도정보망

[그림 V-2] 위스콘신주의 진로정보 전달체계

② 지역진로정보센터(career center site)

16개의 지역구(county) 진로센터와 각 센터당 2~30개의 지역진로(career)센터 분점(site)의 형태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가장 큰 진로지도센터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곳인 지역구(Dane County)⁴⁾에는 Dane

4) 위스콘신 주의 주 수도(state capital)가 위치하고 있는 매디슨(Madison)시를 포함하고 있는, 주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구(county)이다.

County Community Career Center(C4 Dane)라는 중앙센터가 있는데, C4 Dane은 1995년 지역진로지도센터의 시범적 모델로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C4 Dane은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공공도서관, 지역사회단체, 전문대학, 그리고 직업지도 센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분점과 연계되어 있다.

각 진로지도센터 분점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을 위해,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을 위한 모델로서 NOICC에서 제시한 국가진로개발지침에 기초하여 CEW에서 개발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진로개발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선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진로의식화(awareness), 탐색(exploration), 선택(selection), 적용(application)의 요소로 구성하여 제시되는데, 진로센터에서 청소년들은 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컴퓨터화된 프로그램을 탐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③ 직업센터(job center)

위스콘신 주의 경우, 대체로 각 지역구마다 1개 이상씩 주 전체를 통해 76개의 직업센터가 있고, 이 센터에서 위스콘신 진로정보시스템인 WisCareer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이나, 고용주들은 진로계획, 구직, 훈련 및 교육 기회에 관한 정보,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보통 성인들을 위한 직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비진학 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로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직업 및 진로정보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기관들 가운데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를 행하는 서비스센터 가운데 주 정부차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인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인증마크(hallmark)를 부여해 준다.



[그림 V-3] 위스콘신주 직업센터 인증마크

2) 영국

(1) 진로지도 활동을 강화한 개정 교육법

정부의 진로지도 실시 의무는 1973 고용훈련법(Employment Training Act)에 '교육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로 하여금 '중등·대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에게 진로지도와 정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히, 1997년에 개정된 교육법(Education Act)⁵⁾은 학교가 청소년들이 학교와 직업세계와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1997년 교육법에 포함된 진로지도 관련조항은 43조 44조 45조 세 조항으로 개념규정과 진로지도 관련 인적자원에 대한 규정, 진로관련 정보도서관 등과 같은 물적 시설에 대한 규정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3조에서는 진로교육의 개념규정과 아울러 학교의 의무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진로교육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와 같은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5) Education Act 1997, S43, S44.

이라고 규정하면서, 특수학교를 비롯한 모든 독립학교, 시립기술학교, 기타 교육시설(pupil referral units)⁶⁾에서는 의무교육의 마지막 3년간동안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4조에서는 진로상담가(Career Advisor: 이하에서 CA로 약함)에게 정보접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진로상담가의 개념규정을 내려주고 있다. 진로상담가는 관련되는 청소년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받아야 하고, 부모의 주소와 다를 경우 부모의 주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아야 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주어야 할 학교가 가진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나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그 정보가 공개되는(released) 것을 막을 수 있다. 진로상담가들은 진로지도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개인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만날 수 있다.

한편 제44조에서는 CA를 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3 10조 아래 규정된 방향이나 정책을 추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학교나 대학에 의해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청(LEA)과 계약을 맺은 회사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45조에서는 진로도서실 구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년들은 최근작의 다양한 참조자료와 지도정보(guidance information)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일선학교는 그와 같은 정보를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충실한 진로정보자료실(library)등을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학교의 진로지도 서비스체계와 학교밖의 진로지도 서비스체계와의 연계

① 학교내의 진로지도활동

6) 일반적인 형태의 학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정규학교를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학교내의 진로교육과 지도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책임 교사는 진로지도조정자(Career Coordinator: 이하에서 CO라고 약함)인데, 거의 모든 학교에서 CO를 두고 있으며 명칭은 학교에 따라 진로담당부장(head of careers)등과 같은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며, 인성사회교육부(Personal Social Education)의 부장(head) 교사가 CO가 되기도 한다.

보통 CO의 행정적인 업무는 ㉠ CS와의 연계 ㉡ 외부CA를 위해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일 ㉢ 진로의 날 행사나 외부 인사들과 인터뷰 등과 같은 이벤트의 계획과 조직 ㉣ 각 학년 교사들에 의해 사용되어질 교사용 자료 패키지 활용 ㉤ 진로정보영역의 유지와 감독 ㉬ 현장체험 학습기회를 배정하는 일등을 한다. 그리고 CA가 방문하여 학교의 진로상담실이나 진로자료실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활동을 하게 된다.

일선학교에 따라서 활용되는 진로교육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독자적으로 시간표를 가진 진로지도 시간 ㉧ 인성 및 사회교과(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PSE)내의 진로지도 시간: 진로의사 결정을 준비하고 진로에 관련된 면담, 현장경험, 이행과정등은 이와 같은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진로자료실에 대한 안내를 받기도 한다. ㉨ 통합활동(integrated activities): 진로활동은 교과목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의 세계와 진로와 관련된 측면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National Curriculum 교과목의 프로그램과 방법, 관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 ㉩ 확대활동(extended activities): 현장학습이나 개인상담은 학교 교과 시간 이외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다.

또한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는 진로도서관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OFSTED의 평가결과 진로도서관에 있는 정보의 질은 40%만이 만족스럽거나 우수한 정도이고, 25%정도가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10%는 진로정보도서관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우수한 진로정보도서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 청소년들이 흥미롭고 잘 정리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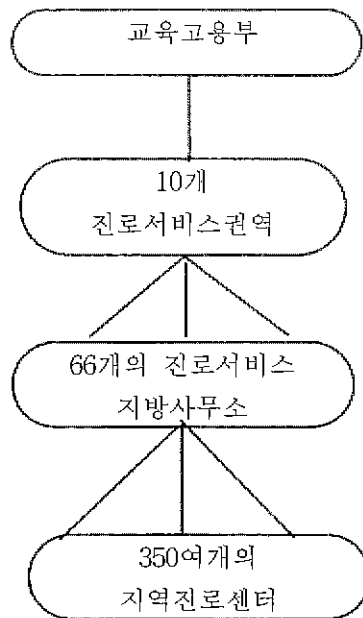
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 진로정보도서관이 학교의 본 도서관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일부로 되어 있을 때 ㉡ 도서관 진로정보 사서, 학교 사서 등과 같이 잘 훈련된 인력에 의해 유지되고 업데이트 될 때 ㉢ 자료의 사용과 공유, 계획하고 분석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질 때 ㉣ 다양한 정보가 있을 때 ㉤ 적절한 컴퓨터 시설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학교밖의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

영국의 직업진로정보관련 서비스는 크게 성인 대상의 고용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체계와 청소년대상의 고용과 진로지도서비스체제인 진로서비스 체계로 나누어진다.

· **진로서비스(Career Service) 체계** : 진로서비스 체계를 살펴보면, 교육고용부내의 선택 및 진로(Choice & Careers)국 관할 아래 16~19세의 청소년을 위한 고용과 진로지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서 진로서비스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 전국을 10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각 권역별 6~7개의 진로서비스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영국 전역에 66개의 진로서비스 지방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지방사무소는 민간 기관 특히, 진로상담 및 교육상담 회사 등에 위탁하고 있다⁷⁾. 각 지방사무소는 교육고용부 장관과 사업계약을 맺고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지방사무소 아래 5~6개의 지역 진로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약 350여개 정도의 지역진로센터(local career center)가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로서비스 체제는 [그림 V-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7)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에도 Career Service 사무국이 한 개씩 설치되어 있고 England의 Career Service 사무국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림 V-4] 영국의 진로서비스 전달체계

예컨대 10개 서비스 권역 가운데 하나인 남동(south east) 권역에는 7개의 지방사무소가 있고, 7개의 지방사무소는 3개의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한 지방사무소인 Berkshire & Yorkshire 사무소는 Thames and Career Guidance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사무소 아래 13개의 지역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진로서비스 지방사무소는 교육고용부 장관과의 계약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대신 교육고용부의 방침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관리를 받게 되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로서비스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들로 하여금 고용, 교육, 훈련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 학교를 졸업하

거나 훈련기관을 졸업할 때, 혹은 실직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㉔ 초·중등·대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세계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㉕ 기회평등을 촉진시키는 활동

③ 지역서비스 진로센터(career center)

각 지역의 진로센터에서는 ㉖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정보제공 ㉗ 진로결정을 할 때 상담과 지도 ㉘ 교육 및 훈련, 고용에 소개시키고 배치시켜 주는 활동을 그 주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로센터는 향후 Local IAG와 'Learning Direct'와 연계 가능하다. 런던지역에서 2개의 진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Prospects⁸⁾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표 V-2>와 같다.

(3) 진로지도를 위한 산업체와의 연계

영국의 학교 진로지도에 있어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강조되고 있으며 CO들은 연계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95%의 학교들은 지역산업체와 연계를 가지고 11학년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work experience)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기간은 1주에서부터 3주기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와 같은 현장학습 사업체의 연계를 위하여 Education-Business Partnership이나 Project Trident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지역 컨소시엄을 활용하고 있다.

8) <http://www.prospects.co.uk>

<표 V-2> 영국 London의 진로서비스센터 수요자 대상별 서비스

서비스대상	서비스 내용
청소년	진로상담career interviews multimedia 진로정보 집단토론과 상담 초·중등,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관한 정보와 상담 취업시장에 관한 정보와 상담 고용 및 훈련 응시
학교와 대학	진로지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고등교육 및 계속교육에 대한 정보 진로상담과 집단 상담 연수 학부모행사에의 참여 전문 진로 정보팀 전문가 자문 노동시장정보 교육과 훈련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
고용주	무료 채용서비스 고용주 hot-line 개설 전문인력 지원 TEC(training and enterprises council)과의 연결 구직자 정보, 지역노동시장 정보, 고용주 입법,
구직자	직업 및 직업훈련 기회 취업대비 지원서 및 인터뷰 준비 고용주 및 훈련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네트워크 훈련 및 도제훈련에 관한 정보
성인	훈련과 교육기회에 관한 중립적인 지도와 상담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심리검사 종합적 진로도서관, 직업훈련코스정보 제공

3) 프랑스⁹⁾

(1) 프랑스의 직업진로지도 강화 정책

프랑스의 중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지도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성적과 장래계획의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작업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사와 진로상담가는 청소년들의 성취도, 흥미, 교사의 조언에 대한 반응, 장래계획에 대한 변동 등 개별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청소년들은 필요할 경우 수시로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진로지도에 대한 학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1996년도에 발표된 포루(Fauroux)교육개혁안에 따라 중학교부터 모든 청소년들은 학년초에 개별적인 '진로계획서(projet d'orientation)'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스스로 진지하게 진로를 탐색하게 되며 그 결과로 제출된 보고서는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된다.

(2) 학교안의 진로지도 활동

① 학교내의 진로지도

중등학교의 진로지도는 교과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청소년들이 진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 직업세계, 직업활동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프랑스어, 역사·지리, 기술, 물리, 생물·지학 등의 관련교과에서 다루어진다. 각 교과목별로 관련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각 교과 담당교사들은 학년초에 진로상담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 학년에서 다룰 주제들을

9) 프랑스의 진로지도 체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미석·손유미, 2000 참조.

선정하고 그에 따라 각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교과활동 이외에 각 학교는 보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면 진로결정 시기에 임박해서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가, 외부로부터 직업세계관련 전문가를 초대한다는가, 혹은 기업체와 연계하여 도움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이 사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권한으로 실시된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교육과정이 공통이므로 청소년들은 여러 반으로 나뉘고 각 반에는 담임선생님(professeur principal)이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담임교사, CDI의 정보상담가, 혹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진로정보센터(CIO)의 진로상담가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부탁한다.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은 전공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므로 대학에서와 같이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받으며 담임선생님은 없다. 다만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고 수업시간도 많은 주요 교과목(프랑스어, 수학, 영어) 담당선생님들이 담임교사의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

② 진로계획서 작성 관리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학교성적과 장래계획의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진로지도라고 하기 어렵다. 학교교사와 진로상담가는 청소년들의 성취도, 흥미, 교사의 조언에 대한 반응, 장래계획에 대한 변동 등 개별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청소년들은 필요할 경우 수시로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들어 진로지도에 대한 학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1996년도에 발표된 포루교육개혁안에 따라 중학교부터 모든 청소년들은 학년초에 개별적인 '진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스스로 진지하게 진로를 탐색하게 되며 그 결과로 제출된 보고서는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개혁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진로교육(l'éducation de l'orientation)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종전의 진로지도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③ 정보자료센터(CDI : Centre de Documentation et d'Information)

프랑스의 모든 중등학교에는 정보자료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종래의 학교 도서관 기능을 확대 개편한 것인데 청소년들과 교사들에게 각종 학습자료와 진로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정보상담가들(documentalistes)이 있어 청소년들의 정보탐색을 도와준다. 원하는 정보를 센터 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 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학교 정보자료센터에서는 ONISEP, DRONISEP, 청소년정보문서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나온 진로관련정보를 비치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

(3) 학교밖의 진로지도 서비스 활동

① 진로정보센터(CIO: Centre d'information et d'orientation)

진로정보센터는 학교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대부분이 지방교육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실 진로정보센터를 제외하고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센터의 수는 전국에 걸쳐 518개소이다. 고등학교 1-3개마다 하나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센터의 역할은 ㉠ 학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방문자들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에 응한다. ㉡ 학교공부, 직업 교육, 자격제도, 직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적성, 취미, 능력을 파악하게 해주며,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진로계획서 작성 등을 도와준다. ㉣ 지역수준에서의 교육제도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발달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 학교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한다.

【조직 및 구성】

진로정보센터의 인적자원은 센터장, 진로상담가들, 행정직원 등 세 그룹으로 구성된다. 진로상담가는 센터를 방문하는 중등학생, 대학생, 미취업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로계획 수립과 진로변경을 도와준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소그룹지도, 개인평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담당 구역내의 학교들과 진로지도 자료를 교환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의 진로지도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지도자로 참여한다. 진로상담가들은 심리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선발하며 2년동안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거쳐 진로상담가에게 주어지는 국가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파리에 진로상담가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있으며 이 밖에 지방에 있는 2개 대학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담당한다. 행정직원들은 상담접수, 자료실운영과 그 밖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진로정보센터는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 임무를 맡고 있는 센터는 4개소이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회원국에서 프랑스에 관한 질문을 보내올 경우 그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준다. 서로 교환하는 정보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실습, 장학금, 언어연수 등과 관련되어 있다.

【시설】

각 센터에는 교육과 직업에 관한 자료실이 있어 방문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진로정보센터는 또한 앞서 살펴본 ONISEP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진로정보센터는 최근 정보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각종 서류상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다. 약 10년 전부터 기존의 자료들을 컴퓨터자료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의 발달로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자료들을 가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외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 사례의 시사점

1) 진로지도 관련법 규정 및 행정체계의 정비

위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나라에서 최근의 진로지도에 관련된 공통된 경향은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인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교육적 체계나 사회문화 풍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우 1989년과 1997년에 걸쳐 ‘진로지도를 받을 권리를 모든 청소년들이 가진다’는 것으로 진로지도를 교육 받을 권리 중의 하나의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고 지도를 받는 것은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방침법 혹은 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진로지도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들 법 조항에서 진로지도와 관련한 철학이나 관점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평생학습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생애적인 관점과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사회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활동이라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진로지도에 관련된 법령을 통해 진로지도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으나, 전자는 정교하고 제도화된 행정체계를 통해서 후자의 경우에는 민간과의 파트너십 구축-주로 재정지원-을 통해 진로지도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차이를 볼 수 있다. 비교적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하고 진로지도 관련 민간단체가 극히 미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의 형태가 보다 적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의 경우에는 진로지도를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고 직접적으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입 혹은 지원을 볼 수 있다. 중앙부처에 진로지도 담당관을 설치하여 진로지도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서나,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한 정도로 지방교육청에 위임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진로지도에 관한한은 책임과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음을 볼 때, 이들 국가에서 진로지도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진로지도에 관한 개념 규정에서부터 진로지도 방법, 시설, 인력 등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방교육청, 더 나아가 일선 진로지도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진로지도는 이들 전형을 바탕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하는 형태가 되는데,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과 학교의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9년 이후 교육부에서 지방으로 진로지도에 관련된 업무를 이양하였다고 하면서 진로지도에 관련된 정책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보면 이들 사례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안 진로지도와 학교밖 진로지도간의 원활한 연계체제 구축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는 학교내의 교사와 더불어 학교 밖의 진로상담센터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와 정보제공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진로지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학교밖에 진로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학교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교육은 진로담당주임교사 CO가 책임지고 있으며, 지역

진로센터와 그에 속한 CA들이 일선학교의 진로지도를 지원하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영국의 CO와 같은 직위는 없으나, 청소년들은 담임교사나 학교정보센터의 정보상담가등에게서 수시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자신의 지역에 있는 진로정보센터의 진로상담가(conceil d'orientation)가 수시로 청소년들을 면담하거나 학교에 찾아가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들이 정보센터에 와서 하게된다.

3) 산업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각국에서 진로지도를 활성화하고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직업세계의 장이 되는 산업체와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산업체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협조는 산업체의 사회적 의무로 파악하고 상당한 정도로 깊이 관여해 왔으므로 진로지도를 위한 산업체 현장의 할애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STOWA의 법안 제정 이후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산업체의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되고 있는 형편이다. 산업체에서 실제 직업현장을 살펴보고 또 경우에 따라 직업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체에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교육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들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미국의 Job Center 인증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체험학습장'이라는 일종의 인증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진로지도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활용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진로지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전문직업으로서 진로지도상담사(전문교사)가 양성·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에서 신분상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대학원 1년 이상의 전문과정과 실무경력을 거친 진로지도 전문인력들이 적어도 2-3,000여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진로지도가 학교내에서 그리고 학교밖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고 있다. 이 점은 진로지도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마미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참조해 볼 부분이다.

5) 진로정보의 생성 및 원활한 보급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진로지도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가깝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센터(혹은 진로도서관)설치를 강화하고 있다. 진로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을 개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 도서관내에 한 부분으로 설치해 두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또 학교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육성 차원 혹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연장선에서 청소년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과 일 및 여가를 체험활동을 통해 연계하려는 노력과 함께, 청소년의 학교-직업세계 이행 문제에 대한 규명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직업훈련 및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노력들은 여전히 학교중심의 진로지도나 교육, 청소년의 도덕성 함양과 권리신장을 위한 청소년육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의 분야별로 높은 담을 쌓고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리라는 커다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청소년과 관련하여서는 정책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의 정립은 뒤로 미루고 청소년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 탐색을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는 무시한 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문제극복을 위해 반복해 온 조각 조각의 정책과 제들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즉, 교육정책적 측면에서는 창의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입직 연령 단축과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직업교육과 산업간의 연계 강화를 비롯하여 작게는 비진학 및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 조기 영재발굴 및 기초교육 국가책임 체제 확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정책 측면에서도 청소년들이 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회와 지원에 대해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위기 진단과 분석은 도외시 한 채,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직업훈련기준과 내용의 확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정비, 훈련성과 유인책의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정책 역시 청

소년의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을 주요한 청소년육성의 지표(21세기 청소년상)로 설정하고는 있지만,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에의 사회경제적 통합에 필요한 지원에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며,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 사이 우리 사회 청소년들은 여전히 상처받기 쉽거나 상처받은 청소년으로 양분되어 예방, 보호, 교정의 틀 속에서 학업성적이나 장래의 진로문제로 가장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고민과 문제를 교육적·직업적으로 준비된 각종 제도적 지원망 보다는 주로 친구, 부모 형제 등과 의논하며 가족 구성원과 연합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재기를 꿈꾸거나 직업을 탐색하는 가족주의적 연합 진로개척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장래 진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정보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자신의 진로탐색을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통한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매우 취약하다. 실제로 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절반에도 못 미치며, 학교의 진로지도나 상담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학교 이외의 진로관련 지도나 상담 기회도 매우 취약하다. 학교 이외에서 받은 진로관련 지도나 상담도 주로 진로관련 검사를 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적 체험 기회를 통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제 학교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그 밖의 많은 제도적 지원과 서비스들이 왜

청소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을 통한 지적 능력 함양, 진로교육 및 지도 및 직업훈련,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육성적 지원 등으로 조각조각 제공해 온 노력들을 국가 인적자원개발·관리라는 총체적인 틀 속에서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역사회 중심의 효과적인 진로탐색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할 단계이다.

청소년의 진로탐색에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직업능력과 같은 진로지향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같은 자기정체성 등 청소년 발달 요소 등의 복합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해서는 진로교육·지도와 학교와 직업세계로의 이행 논의 등에서 청소년발달이론의 관점과 전략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청소년을 붙잡아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진로교육·지도와 관련 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교,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에 의한 포괄적 진로탐색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각 관련 부처의 통합적 연계 서비스를 위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의 각 진로교육·지도 관련 인프라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이다.

2. 정책 제언

：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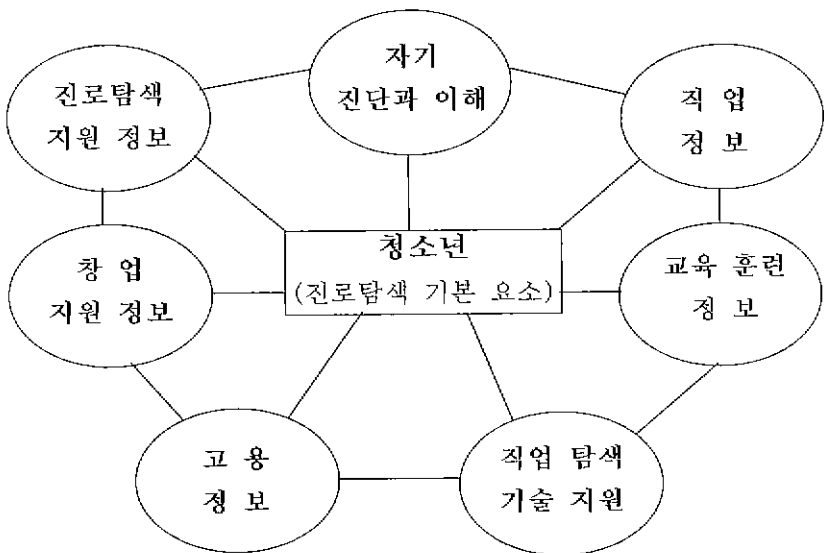
1)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요소와 방향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로탐색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자기진단과 이해 요소이다. 이 요소에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각종 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직업 체험과 체험학습 및 각종 수련활동을 통한 자기 이해와 진단이 포함된다. 그리고 직업적 목표 선택과 진로계획 개발 등의 요소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직업정보 요소이다.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각종 정보는 필수적 요소이다. 직업정보 요소에는 각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사항 및 기준 등과 함께 그 직업분야의 최근 노동시장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관련 직업분야의 해외 고용동향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 훈련 관련 요소이다. 각종 직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대학 및 관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요소도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직업탐색 기술에 대한 요소이다. 직업탐색에 필요한 구체적인 테크닉은 구체적으로 이력서나 편지 작성 요령, 면접이나 인터뷰 요령, 직업탐색을 위한 각종 네트워크 정보 및 직업알선 기관이나 정보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 구체적 고용정보 요소이다. 지역사회별, 혹은 전국 단위별로 각종 직업에 대한 고용 정보를 말한다. 이 요소에는 지역별 고용정보, 고용은행, 시간제 취업, 인턴십, 자원봉사 등 관련 고용정보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창업지원 요소이다. 향후 지식기반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벤처기업 등 창업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신의 기업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정보, 가능한 재정 지원 창구, 창업 준비에 필요한 기획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각종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이다. 지역사회에는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기관들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기간 및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일은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상과 같은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요소들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별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청소년들이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인식, 탐색, 준비 등의 과정을 포괄하는 과정적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진로탐색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 요소이기도 하다. 즉,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네트워크에는 이상과 같은 진로탐색의 기본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VI-1] 청소년 진로탐색의 기본요소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요소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청소년 진로의식과 탐색활동에 맞고, 동시에 진로탐색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관련된 조직이나 기관들이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이나 기관의 상호이익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진로탐색에 필요한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이 된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에게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진로탐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급 지방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직업알선 등 고용 관련 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과 조직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방향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청소년의 일과 학습과 각종 체험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연계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지도를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각종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 및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상호 보완과 지원을 위한 통합적 연계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왜냐 하면 청소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은 진로지향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능력 요소를 포괄하는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참가하는 기관과 조직의 상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연계된 패키지화된 통합적 프로그램의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패키지화된 통합적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 영역, 자신의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활동 영역 및 봉사 혹은 시간제 취업 등을 통한 직업체험활동 영역 등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1-2개의 단위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계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각 영역별 단위 프로그램 이수는 일정한 인증제의 도입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그 결과는 대학입학 혹은 취업 등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의 진로탐색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실제적인 직업탐색과 정보획득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훈련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정 기간의 인턴십이나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의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이나 서비스 제공 자금의 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에 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기업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 등이 지역사회에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직업교육훈련이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인적 자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 등에서 해당 지역사회에 각종 진로관련 정보를 공개 제공하거나 내부적으로 가능한 시설과 인적 자원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면 현행 우리 사회의 교육적 풍토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의 전제가 되는 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들에서 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과 고용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진로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는 학생들의 입학 혹은 취업관련 정보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기업체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영역의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고 공개적으로 선발하는지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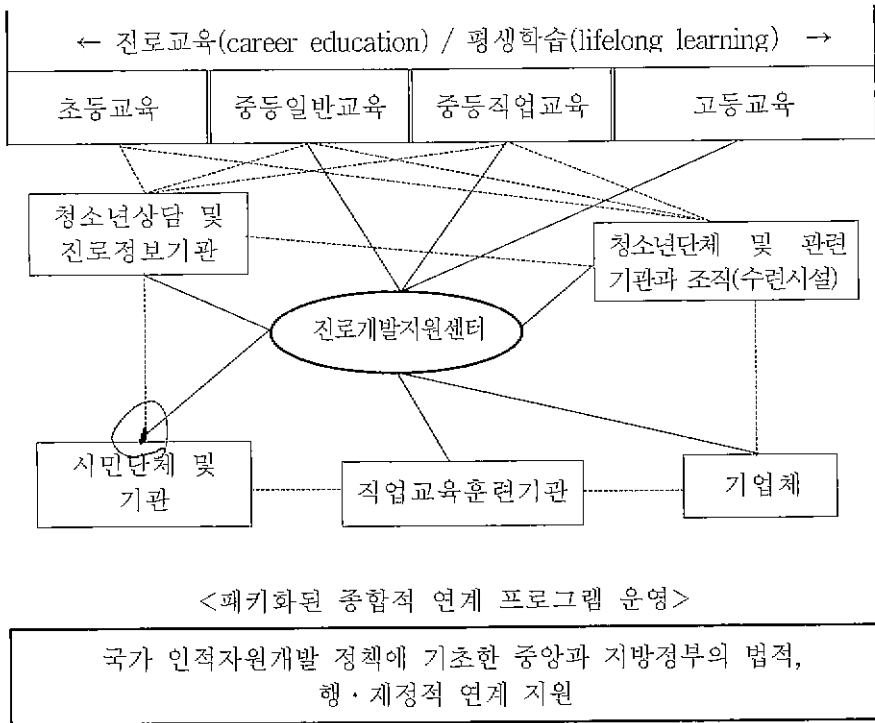
어떤 종류의 시간제 취업이나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청소년과 부모들의 일과 진로에 대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기회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부모나 청소년들은 함께 연계하여 대학이나 상급 학교에 진학 등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의 진로에 가장 큰 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대학 중심의 진로선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가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고려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여덟째, 지역사회의 중·고등학교, 대학, 직업전문학교나 기능대학 등 직업교육훈련기관, 지역사회의 전문직 관련 다양한 단체나 협의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나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관련 기관 및 진로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기관 등이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에 대한 비전과 임무 및 책무성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네트워크가 구축이 요청된다.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 행정기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수반할 수 있는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앞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방향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직업 능력, 학습능력 및 청소년발달이나 체험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 기관과 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모형은 [그림 VI-2]와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모형으로 제시된 이와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각급 학교,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기업 및 청소년관련 기관과 단체 등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관련된 기관들의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덧붙여져야 한다.



[그림 VI-2]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예시적 모형

특히 청소년의 진로교육지도,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 및 청소년진로상담 및 각종 체험활동 중심의 수련활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부, 노동부 및 문화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틀 안에서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진로탐색 네트워크 구축 과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진로탐색 네트워크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진로개발과 탐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기존의 각종 인적자원개발이나 진로개발 관련 인프라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각 인프라들간의 상호 협력과 보완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유인하고 촉진하는 체제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데에는 법적 뒷받침의 결여와 함께 강력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데 기인한 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기존의 관련 기금을 재편성하여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가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해서는 개별 인프라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관련 기관들이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일정 부분은 상호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진로개발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되, 각급 학교와 직업교육훈련기관, 청소년단체나 관련 기관들이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예산 배분상의 전략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에서는 각급 지역 교육청 단위로 ‘진로개발지원센터(가칭)’를 두어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진로개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의 각급 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청소년(진로)상담과 정보기관 등과 연계하는 체제를 갖추고,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제공되고 접

근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개발지원센터에서는 관련 기관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단위 프로그램을 운용하되, 이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묶어 청소년들에게 일정 기간 이수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진로개발과 탐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발견 프로그램, 직업체험이나 시간제 취업 혹은 인턴십,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특정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영역에 따라 1-2가지의 프로그램을 이수케하고, 이수 결과에 따라 사회적 인정 제도를 두는 통합적 연계 프로그램의 운용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용은 영국의 에딘버러 어워드 스킴(Edinburgh Award Scheme)과 같은 프로그램 중심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진로개발지원센터에서는 관련 기관들이나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대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각급 학교나 청소년관련 기관들은 실질적인 직업체험이나 체험학습을 위한 전문 강사나 기자재가 부족한 실정인데 반해 각 시민단체나 지역 기관들은 적지 않은 관련 인사나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 지원이나 대여 등은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풍부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해 가장 유효한 교육적·정책적 수단은 직접적인 직업체험을 통해 자기 인식과 이해 및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 장치를 재검토하여 양성화하고, 시간제 취업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직업적 체험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특정 직종에 국한되어 있거나,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로 치부되거나 불법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인턴십과 시간제 취업이 다양한 직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산업체와 서비스 직종 등

에 대한 유인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시범학교, 시범시설 등 개별적 기관 중심의 시범 적용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시범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기업체, 청소년관련 단체나 기관 등이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로개발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풍토에서 시범학교나 시범시설 등 개별 기관 중심의 시범운용이 다른 기관으로 관련 정보와 노하우가 전파되고 상호 공유하게 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왔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관련 기관들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제도의 마련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여섯째, 산업체와 기업체에서는 청소년층에 대한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차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각종 진로정보의 제공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각급 학교나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체와 기업체가 먼저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에 나서는 일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에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현재 청소년은 강력한 주 소비계층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은 향후 기업 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인적자원개발·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장기적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업체가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인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이나 손비 처리 및 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적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현재 청소년들의 직업선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진로탐색과 기능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각 분야의 문화예술 전문인과 청소년들이 만나 인턴십의 형태나 개

별지도의 형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에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들의 단체가 많이 구성 조직되어 있고, 이들은 개별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창작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어려운 여건을 지원하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학교에서나 지역단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문인과 청소년들이 함께 진로탐색에 나설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미국 시카고시에 운용하고 있는 갤러리 37(Gallery 37)과 같은 프로그램의 운용 체제는 우리 사회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여덟째,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각급 학교가 열린 마음으로 개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진로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산업체나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학교에 자문하고,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교사를 임명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열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각급 학교는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개발과 탐색을 위한 구심적 역할체로서 지역사회학습센터로 개방되는 등 지역사회 감각을 회복할 때 청소년들에 대한 발달적 진로지도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홉째,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시·도 차원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청소년, 관련 지역인사 및 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민간분야의 전문인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기존의 각종 협의체들이 행정기관 중심으로 짜여지고 운영됨으로써 제 역할을 못해 온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그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단위 연계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마다 그 효과를 평가하고, 전체적인 체제에 대해서는 3년 단위

로 효과를 검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조직들이 상호 비전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시에 어떤 이익이 있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네트워크 구성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공유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경애(1997). 중학교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교육 '97 여름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김봉환·김병석·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충기 편(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원사.
- 김현옥(1997).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진로교육연구 제8호. 한국진로교육학회.
- 맹영임(1998). 청소년 진로의식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창남(1999). 실업계 고졸 청소년의 직업적 성취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3). 고등학교 진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서울특별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1999). 청소년직업체험활동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 송병국(1998). 직업진로지도를 위한 산학관 연계의 제도적 지원 방안. 진로교육연구 제9호. 한국진로교육학회.
- 신명훈(1998). 일과 학습 및 자격의 연계 방안. 21세기 직업전망과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정란(1998).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 이광호 외(1998). 학생 생활실태·의식 조사.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이무근(1998). 산·관·학 지역협의체 구성 추진을 위한 산학협동 기반 실태조사 연구. 서울: 교육부.
- 이상오(1998). 미국의 산·관·학 연계 사례 분석: School-to-Work 시스템

- 템, 진로교육연구 제9호,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재창(1998). 진로교육과 직업진로지도의 문제점 및 산학 연계 방안, 진로교육연구 제9호, 한국진로교육학회.
- 장석민(1991). 진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생활연구 제2권, 건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장석민(1997). 교육과 취업을 위한 직업지도 활성화 방안, 진로교육연구 제8호, 한국진로교육학회.
-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Ⅰ):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원섭(1997). 교육과 일의 사회학, 서울: 학지사.
- 제정경제부 외(2000).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2000. 3. 3.
- 정일동(1998). 중등학교 직업진로지도를 위한 산·학·관 연계 체계와 각 기관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제9호, 한국진로교육학회.
- 진미석(1997). 교육과 산업체간의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교교육학연구 제7권 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 진미석·손유미(2000). 중등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지도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손유미·이장익(1999). 진로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충욱(2000). 다원 시민사회에서의 청소년육성 방안,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 한국교육개발원(1997). 중학교 진로지도 개선방향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1996). School-to-Work and Youth Development: Identifying Common Ground. *An Agenda for Action*. Boston: Jobs for the Future/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Cahill, M.(1995). *Thinking about School-to-Work from Youth Development Perspective*. Boston: Jobs for the Future/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Catalano, R. et al.(1998).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Finding on Evaluation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Washington, D. C.: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 Center on Education and Work,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1996). *Youth Apprenticeship in Wisconsin: A Stakeholder Assessment*. Madison, Wisconsin: Author.
- Dusseldrop Skills Forum(1997). *Career Guidance and Education for the Next Millenium*. Sydney: Dusseldrop Skills Forum.
- Erikson, E.(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lum, H. and Blustein, D. L.(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6*.
- Hamilton, S.(1995). *Youth Development and Career Opportunities*. Boston: Jobs for the Future/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Marcia, J. 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 Myrick, R. D.(1997). *Developmental Guidance and Counseling: A Practical Approach(3rd ed.)*. Minneapolis: Educational Media Corporation.
- Nagorski, M. T.(1999). Youth as Resources. *New Designs for Youth Development Vol. 15-3. Summer*.
- Pittman, K. J.(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YD Journal Vol. 1 No. 1. Winter 2000.*
- Pittman, K. J., Cahill, M. and Zeldin, S.(1994), *Youth Employment Preparation through a Youth Development Lens: Broad recommendation for Sustaining Change.* Washington, D. C.: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Reich, R. B.(1991). *The Work of Nations.* New York: Vintage Books.
- Rifkin, J.(1995). *The End of Work.* New York: Tarcher/Putnam.
- U. S. Congress OTA(1995). *Learning to Work: Making the Transition from School-to-Work.*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1997). *Understanding Youth Development: Promoting Positive Pathways of Growth.*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 Watts, A. G.(1996). Toward a Policy for Lifelong Career Development: A Transatlantic Perspectiv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5.*
- Zeldin, S. and Charter, I.(1996). *School-to-Work Opportunities through the Lens of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 C.: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Zunker, V. G.(1999).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5th ed.).* California: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인터넷검색자료

- Kauffman, E. M. et al.(1992). *Fully Prepared Youth.* <http://www.emkt.org>(검색일: 2000. 8. 22).

- National Employer Leadership Council(1997). *The What, How, Where and Who of STW for Business: Connecting Learning and Earning*. <http://www.nelc.org>(검색일: 2000. 3. 20).
- NYDIC(1999). *Youth Development Project, Programs, and Coalitions*. <http://www.nydic.org/projects.html>(검색일: 2000. 3. 29).
- Perkins, D. F.(1997). *A Method on Presenting Key Concepts Regard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o Community Audiences*. <http://www.cyfernet.mes.umnedu/youthdev/perkins.html>(검색일: 2000. 9. 16).
- Pittman, K. J.(1996). *What is Youth Development?: Preventing Problems of Promoting Develop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http://www.iyfnet.org/document.cfm/22/general/51>(검색일: 2000. 9. 8).
- Purdum, T. S.(2000). *Behind the Wheel and Driving the Nation's Culture*. <http://www.search.nytimes.com/2000/09/17/weekinreview/17PURD.html>(검색일: 2000. 10. 8).
- Search Institute(1999). *Developmental Assets: An Overview*. <http://www.search-institute.org/assets>(검색일: 2000. 8. 30).
- The National STW Learning and Information Center㉠(1996). *Career Development in School-to-Work*. <http://www.stw.ed.gov>(검색일: 2000. 3. 6).
- The National STW Learning and Information Center㉡(1996). *Incorporating a Youth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School-to-Work Systems*. <http://www.stw.ed.gov>(검색일: 2000. 3. 6).

부 록

1. 청소년 진로의식에 관한 설문지
2. 청소년 진로의식 설문조사 결과표

[부록 1]

□□□□□

청소년 진로의식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개발원에서는 그동안 청소년의 자율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생활실태와 의식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부여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진로와 직업준비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지도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개발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의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는 진로교육과 지도의 실태와 청소년의 진로의식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 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9.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2188-88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맹영임, 이광호, 임성택

● 다음은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 _____에 V 표 하여 주시거나 ()속에 직접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 1)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___ 2)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___ 3)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___ 4)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___ 5) 여러 사람들과 사귀기 위하여
 ___ 6) 기타()

2. 당신은 진로(직업)선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 1) 자신의 소질, 적성 및 특성에 대한 이해
 ___ 2) 여러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소개 및 정보
 ___ 3) 진로관련 각종 검사(적성검사, 흥미검사 등) 실시 및 해석
 ___ 4) 희망하는 직업들에 대한 사전 체험
 ___ 5) 직업준비를 위한 특정 기능이나 기술의 습득
 ___ 6) 자기계발이나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___ 7) 기타()

3. 당신이 자신의 진로(직업)에 대해 **처음 생각해 본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때**는 언제입니까? 다음 2칸의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처음 생각해 본 시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시기
☐ 1) 초등학교 이전 ☐ 2) 초등학교 1-3학년 ☐ 3) 초등학교 4-6학년 ☐ 4) 중학교 ☐ 5) 고등학교 ☐ 6) 기타()	☐ 1) 초등학교 이전 ☐ 2) 초등학교 1-3학년 ☐ 3) 초등학교 4-6학년 ☐ 4) 중학교 ☐ 5) 고등학교 ☐ 6) 기타()

4. 당신이 진로(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1) 명예와 사회적 지위
☐ 2) 직업의 안정성
☐ 3) 보수(돈)
☐ 4) 자신의 적성과 능력
☐ 5) 사회적 봉사 정도
☐ 6) 근무여건
☐ 7) 기타()

5. 당신이 자신의 진로(직업)를 선택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 ☐ 1) 학업성적
☐ 2) 진로관련 정보부족
☐ 3) 능력부족
☐ 4)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대한 이해 부족
☐ 5) 신체적 조건
☐ 6) 부모님의 기대
☐ 7) 경제적 여건
☐ 8) 기타()

6. 현재 당신의 진로(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___ 1) 아버지
- ___ 2) 어머니
- ___ 3) 친구
- ___ 4) 연예인
- ___ 5) 훌륭한 위인
- ___ 6) 학교 선생님
- ___ 7) 선·후배
- ___ 8) 형제·자매
- ___ 9) 친인척
- ___ 10) 기타()

7. 당신은 자신의 진로(직업)에 관한 상담을 주로 누구와 합니까?

- ___ 1) 아버지
- ___ 2) 어머니
- ___ 3) 담임교사
- ___ 4) 진로담당교사
- ___ 5) 형제·자매
- ___ 6) 친구·선배
- ___ 7) 친인척
- ___ 8) 학원·과외교사
- ___ 9) 상담전문기관
- ___ 10) 기타()

8. 당신은 진로(직업)탐색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___ 1) 부모
 ___ 2) 형제·자매
 ___ 3) 담임교사
 ___ 4) 진로담당교사
 ___ 5) 친구·선배
 ___ 6) PC통신·인터넷
 ___ 7) 서적·잡지
 ___ 8) 매스컴(TV·라디오 등)
 ___ 9) 진로상담전문기관
 ___ 10) 학원·과외교사
 ___ 11) 친척
 ___ 12) 기타()

9.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 볼 수 있는 직업체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에 참여해 보고 싶은지 우선 순위대로 3가지만 구체적으로 아래의 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10. 자신의 진로를 찾아보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우선 순위대로 3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시고 기타 란에 응답할 경우에는 번호를 적은 후 () 안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1) 자기 자신(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능력, 장점, 단점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 2) 직업의 세계(직업 세계의 변화, 직업의 종류, 일의 내용, 요구되는 훈련 및 교육정도 등)에 대한 소개 및 이해
- 3)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탐색·수집 및 활용방법
- 4) 자신의 일생을 통한 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법
- 5) 관심이 있는 진로(직업)에 대한 현장 체험
- 6) 자신의 진로에 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 7)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및 대인관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8) 기타()

11. 당신은 학교 이외에 지역사회나 인터넷에서 장래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검사를 받거나,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___ 1) 있다 ➔ 11-1번과 11-2번으로

___ 2) 없다 ➔ 12번으로

- 11-1. 당신이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인터넷에서 받은 진로지도 관련 내용은 다음 중 어느 것이며, 그 기관은 어디인지를 다음 보기 2칸에서 각각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V 표를 해 주십시오. 혹시 해당 사항이 없으면 기타 란에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진로관련 지도·상담 내용	진로관련 지도·상담을 받은 기관
___ 1) 흥미점사등 진로관련 검사	___ 1) 상담기관·진로관련 단체
___ 2) 진로상담	___ 2) 청소년단체
___ 3) 진로관련 정보 획득	___ 3) 진로정보센터
___ 4) 직업체험 활동 참가	___ 4) 자원봉사센터
___ 5) 진로관련 활동프로그램 참가	___ 5) 교육청 산하 진로교육 기관
___ 6) 기타()	___ 6) 진로관련 인터넷 사이트
	___ 7) 기타()

11-2.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인터넷상의 진로관련 지도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 ___ 1) 매우 만족
 ___ 2) 만족
 ___ 3) 보통
 ___ 4) 불만족
 ___ 5) 매우 불만족

12. 당신은 학교에서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___ 1) 있다 ➡ 12-1번으로
 ___ 2) 없다 ➡ 12-2번으로

12-1. 진로교육을 주로 받은 시간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을 주로 받은 시간 (예 : 교과목시간, 진로교육시간 등)	진로교육을 받은 방법 (예 : 토론식, 시청각매체이용 등)

■ 자신이 받은 진로교육에 대한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매우 만족 ☐ 2) 만족 ☐ 3) 보통
☐ 4)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12-2. 진로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받고 싶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 하나에 V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는 진로교육 시간	희망하는 진로교육 방법
☐ 1) 각 교과시간(진로와 관련된 단원이 있을 때) ☐ 2) 특별활동시간 ☐ 3) 진로상담시간 ☐ 4) 진로교육시간 ☐ 5) HR시간 ☐ 6) 자율학습시간 ☐ 7) 기타()	☐ 1) 각 교과시간(진로와 관련된 단원이 있을 때)에의 토론 ☐ 2) 진로관련 현장견학·체험학습 ☐ 3) 진로관련 개인상담 ☐ 4) 비디오나 CD등의 매체이용 ☐ 5) 진로관련정보(인쇄물) 제공 ☐ 6) 진로관련 검사 실시·해석 ☐ 7) 기타()

4. 당신의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 1) 안 계심	☐ 1) 안 계심
☐ 2) 초등학교 졸업	☐ 2) 초등학교 졸업
☐ 3)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 3)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 4)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 4)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 5) 전문대 중퇴 혹은 졸업	☐ 5) 전문대 중퇴 혹은 졸업
☐ 6)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 6)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 7) 대학원 중퇴 혹은 졸업	☐ 7) 대학원 중퇴 혹은 졸업

5. 당신의 최근의 평균 학교 성적은?

- | | |
|----------------------------------|----------------------------------|
| ☐ 1) 상의 상 | ☐ 2) 상의 하 |
| ☐ 3) 중의 상 | ☐ 4) 중의 하 |
| ☐ 5) 하의 상 | ☐ 6) 하의 하 |

6. 당신의 집의 평균 한달 수입은?

- | | |
|----------------------------------|----------------------------------|
| ☐ 1) 상의 상 | ☐ 2) 상의 하 |
| ☐ 3) 중의 상 | ☐ 4) 중의 하 |
| ☐ 5) 하의 상 | ☐ 6) 하의 하 |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부록표 1-1>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재능 능력 발휘	사회 에의 공헌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 지위명 예 획득	타인과 폭넓은 교 제	기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31.9	2.3	53.6	6.1	1.5	4.6	605(100%)	$\chi^2 = 16.551^{**}$
여학생	39.7	2.5	42.1	8.7	1.7	5.3	599(100%)	
학교급별								
중학교	40.8	2.1	43.2	6.0	1.9	6.0	532(100%)	$\chi^2 = 30.267^{***}$
인문고	32.2	3.5	49.9	9.3	0.6	4.5	485(100%)	
실업고	30.9	0.5	55.9	6.4	3.2	3.2	188(100%)	
성적별								
상	38.9	3.9	40.5	8.9	1.6	6.2	257(100%)	$\chi^2 = 15.993$
중	36.4	1.9	48.9	7.0	1.6	4.2	741(100%)	
하	30.8	1.6	53.8	4.9	1.6	7.1	182(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31.8	0.0	54.5	9.1	0.0	4.5	22(100%)	$\chi^2 = 26.551^*$
중졸이하	34.6	1.6	54.3	2.4	4.7	2.4	127(100%)	
전문대졸이하	36.2	3.2	48.0	6.0	0.7	5.8	431(100%)	
대졸이하	36.2	2.0	45.5	9.6	1.7	5.1	594(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30.0	0.0	50.0	0.0	0.0	20.0	10(100%)	$\chi^2 = 20.678$
중졸이하	37.6	2.2	51.1	2.8	2.8	3.4	178(100%)	
전문대졸이하	35.4	2.7	47.3	7.6	1.1	6.0	565(100%)	
대졸이상	36.3	2.1	45.8	9.8	1.9	4.1	419(100%)	
경제수준별								
상	38.3	2.1	42.6	10.6	2.8	3.5	141(100%)	$\chi^2 = 11.780$
중	36.1	2.4	47.7	6.9	1.5	5.4	878(100%)	
하	31.6	0.0	56.4	6.0	1.5	4.5	133(100%)	
전체	35.7	2.4	47.9	7.4	1.6	5.0	1206(1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표 1-2> 진로(직업)선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구 분	소질 적성 이해	직업 소개 정보	검사 실시 해석	희망 직업 체험	특정 기능 습득	자기 개발 체형	기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64.5	5.0	3.0	8.4	10.6	6.4	2.1	605(100%)	$\chi^2 = 12.293$
여학생	61.7	5.7	3.5	12.3	9.1	7.2	.5	595(100%)	
학교급별									
중학교	66.2	3.0	3.4	9.2	10.8	5.1	2.3	530(100%)	$\chi^2 = 39.630^{***}$
인문고	62.3	8.0	1.9	11.7	7.4	8.2	.4	486(100%)	
실업고	56.8	4.9	5.9	9.7	13.5	8.1	1.1	185(100%)	
성적별									
상	61.6	7.8	3.5	9.3	8.5	8.1	1.2	258(100%)	$\chi^2 = 11.412$
중	65.0	4.5	3.1	10.2	9.5	6.1	1.6	737(100%)	
하	58.0	5.5	2.8	11.6	12.7	8.8	.6	181(100%)	
아버지 학력별									
안계심	81.0		4.8	9.5	4.8			21(100%)	$\chi^2 = 16.699$
중졸이하	57.9	7.1	4.0	7.9	16.7	6.3		126(100%)	
전문대졸이하	63.0	5.6	2.8	10.2	9.3	7.2	1.9	430(100%)	
대졸이하	63.3	5.2	3.4	11.1	8.9	6.7	1.3	594(100%)	
어머니 학력별									
안계심	66.7			11.1	11.1	11.1		9(100%)	$\chi^2 = 16.589$
중졸이하	57.7	6.3	3.4	7.4	16.6	8.0	.6	175(100%)	
전문대졸이하	64.4	5.7	3.2	10.1	9.2	6.4	1.2	566(100%)	
대졸이상	63.0	5.0	3.3	11.7	8.1	6.9	1.9	419(100%)	
경제수준별									
상	63.1	2.8	5.7	10.6	9.2	6.4	2.1	141(100%)	$\chi^2 = 12.525$
중	63.4	5.8	3.1	10.0	9.8	6.8	1.0	878(100%)	
하	56.9	4.6	2.3	10.8	12.3	10.0	3.1	130(100%)	
전체	63.1	5.3	3.2	10.3	9.8	6.8	1.3	1202(100%)	

*** $p < .001$

<부록표 2-1> 진로(직업)에 대해 처음 생각해 본 시기

(단위: %)

구 분	초등 학교 이전	초등 1-3 학년	초등 4-6 학년	중학교	고등 학교	기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13.4	14.3	30.3	32.0	8.6	1.3	603(100%)	$\chi^2 = 19.694^{***}$
여학생	18.2	18.2	30.2	28.7	4.0	.9	599(100%)	
학교급별								
중학교	17.5	18.1	40.9	22.5		.9	530(100%)	$\chi^2 = 213.96^{***}$
인문고	17.8	16.9	26.2	30.4	7.4	1.2	484(100%)	
실업고	5.8	9.0	10.6	52.4	21.7	.5	189(100%)	
성적별								
상	22.6	19.8	27.6	24.1	4.3	1.6	257(100%)	$\chi^2 = 26.074^{**}$
중	14.9	16.3	30.8	30.8	6.6	.7	738(100%)	
하	10.4	11.5	33.9	35.5	7.7	1.1	183(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집	9.1	9.1	9.1	63.6	4.5	4.5	22(100%)	$\chi^2 = 78.874^{***}$
중졸이하	10.3	13.5	26.2	33.3	16.7		126(100%)	
전문대졸이하	11.4	13.2	32.5	34.1	7.7	1.2	431(100%)	
대졸이하	20.9	19.1	30.2	25.6	3.4	.8	593(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집		20.0		50.0	20.0	10.0	10(100%)	$\chi^2 = 82.530^{***}$
중졸이하	9.6	11.9	29.4	35.0	13.6	.6	177(100%)	
전문대졸이하	12.4	15.2	31.6	34.0	6.2	.5	564(100%)	
대졸이상	24.1	18.9	29.4	22.9	3.3	1.4	419(100%)	
경제수준별								
상	17.1	13.6	39.3	25.0	3.6	1.4	140(100%)	$\chi^2 = 31.352^{***}$
중	16.2	16.6	30.9	30.1	5.4	.8	877(100%)	
하	12.0	16.5	19.5	36.8	14.3	.8	133(100%)	
전체	15.8	16.2	30.3	30.3	6.4	1.0	1204(100%)	

** p < .01 *** p < .001

<부록표 2-2> 진로(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시기

(단위: %)

구 분	초등 학교 이전	초등 1-3 학년	초등 4-6 학년	중학교	고등 학교	기타	전 체	비 고
성 별								
남학생	.5	1.3	7.8	47.2	38.4	4.7	599(100%)	$\chi^2 = 8.891$
여학생		1.0	9.6	52.5	32.8	4.1	592(100%)	
학교급별								
중학교	.2	1.7	15.4	77.2	.9	4.6	527(100%)	$\chi^2 = 539.490^{***}$
인문고	.4	1.0	4.2	32.4	57.2	4.8	479(100%)	
실업고			1.6	17.2	78.5	2.7	186(100%)	
성적별								
상	.4	.8	11.2	49.0	33.1	5.6	251(100%)	$\chi^2 = 9.085$
중	.3	1.1	8.7	50.7	35.8	3.4	734(100%)	
하		1.6	6.0	48.4	37.9	6.0	182(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4.5	9.1	22.7	59.1	4.5	22(100%)	$\chi^2 = 46.011^{***}$
중졸이하			6.3	38.9	52.4	2.4	126(100%)	
전문대졸이하	.2	.5	5.9	51.9	38.0	3.5	424(100%)	
대졸이하	.3	1.7	11.5	51.6	29.9	4.9	589(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40.0	50.0	10.0	10(100%)	$\chi^2 = 56.396^{***}$
중졸이하	.6	.6	4.5	42.6	50.0	1.7	176(100%)	
전문대졸이하		.9	6.8	49.7	39.0	3.6	559(100%)	
대졸이상	.5	1.7	13.3	53.1	25.4	6.0	414(100%)	
경제수준별								
상	1.4	.7	10.8	58.3	23.7	5.0	139(100%)	$\chi^2 = 43.859^{***}$
중	.1	1.0	9.4	50.5	34.9	4.0	871(100%)	
하		1.5	3.8	33.3	55.3	6.1	132(100%)	
전체	.3	1.2	8.7	49.9	35.6	4.4	1193(100%)	

*** p < .001

<부록표 2-3> 진로(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위: %)

구 분	명예 사회 지위	직업 의안 정성	보수 (돈)	자신 적성 능력	사회 봉사 정도	근무 여건	기타	전 체	비 고
성 별									
남학생	6.3	17.2	20.8	50.2	1.5	2.3	1.8	606(100%)	$\chi^2 = 30.442^{***}$
여학생	4.5	18.3	10.8	61.8	1.3	2.3	.8	600(100%)	
학교급별									
중학교	3.9	16.7	13.9	60.7	1.5	1.5	1.7	532(100%)	$\chi^2 = 29.660^{**}$
인문고	7.6	16.7	17.7	53.5	1.6	2.1	.8	436(100%)	
실업고	3.7	23.3	16.4	49.2	.5	5.3	1.6	189(100%)	
성적별									
상	8.1	18.6	13.2	53.9	1.9	2.3	1.9	258(100%)	$\chi^2 = 11.462$
중	4.9	17.8	15.6	56.6	1.3	2.6	1.2	742(100%)	
하	3.	14.3	19.8	58.2	1.1	1.6	1.1	182(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13.6	18.2	63.6		4.5		22(100%)	$\chi^2 = 32.650^*$
중졸이하	1.6	18.9	11.8	59.8	2.4	4.7	.8	127(100%)	
전문대졸이하	4.2	22.5	13.7	55.6	.7	2.3	1.2	432(100%)	
대졸이하	7.2	14.1	17.5	55.8	1.8	1.8	1.7	595(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30.0	30.0	40.0				10(100%)	$\chi^2 = 25.562^*$
중졸이하	1.1	23.0	11.8	57.3	2.2	3.4	1.1	178(100%)	
전문대졸이하	5.3	17.7	14.8	57.4	.7	2.5	1.6	566(100%)	
대졸이상	7.4	15.2	16.9	55.2	2.1	1.9	1.2	420(100%)	
경제수준별									
상	6.4	18.4	18.4	51.8	1.4	2.8	.7	141(100%)	$\chi^2 = 18.881$
중	5.7	17.8	14.3	57.0	1.4	2.0	1.7	880(100%)	
하	1.5	15.8	24.1	52.6	1.5	4.5		133(100%)	
전체	5.4	17.7	15.8	56.0	1.4	2.3	1.3	1208(1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표 2-4> 진로(직업)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

(단위: %)

구 분	아버지	어머니	친구	연예인	위인	교사	선배	형제	친척	기타	전체	비고
성별												
남학생	23.3	22.1	13.3	2.8	6.2	5.2	2.3	4.0	2.8	18.0	601(100%)	$\chi^2 = 68.488^{***}$
여학생	8.0	23.6	15.3	8.3	5.1	7.0	3.2	5.6	2.4	21.6	589(100%)	
학교급별												
중학교	16.2	27.2	10.8	8.6	4.6	5.3	1.5	3.8	2.5	19.6	526(100%)	$\chi^2 = 80.425^{***}$
인문고	15.2	20.8	16.5	2.9	7.1	3.8	3.1	4.8	2.9	22.9	480(100%)	
실업고	15.2	15.8	18.5	3.8	4.9	14.1	5.4	7.6	2.2	12.5	184(100%)	
성적별												
상	14.4	21.4	12.1	3.5	7.8	8.2	3.1	5.4	2.3	21.8	257(100%)	$\chi^2 = 20.387$
중	15.3	24.1	14.2	5.8	5.0	6.1	2.3	5.2	2.8	19.4	727(100%)	
하	19.8	20.9	16.5	6.0	4.9	3.8	4.4	1.6	2.2	19.8	182(100%)	
아버지 학력별												
안계심		63.6	13.6	4.5				4.5		13.6	22(100%)	$\chi^2 = 69.174^{***}$
중졸이하	13.6	16.0	16.0	4.8	4.8	8.8	2.4	4.0	6.4	23.2	125(100%)	
전문대졸이하	13.6	20.6	18.0	6.5	3.5	7.7	3.7	5.6	2.3	18.5	428(100%)	
대졸이하	18.5	24.0	10.7	4.9	7.7	4.3	2.4	4.4	2.2	20.9	588(100%)	
어머니 학력별												
안계심	40.0		10.0		10.0				10.0	30.0	10(100%)	$\chi^2 = 56.733^{***}$
중졸이하	11.4	20.0	17.7	5.7	3.4	8.6	5.7	5.1	4.0	18.3	175(100%)	
전문대졸이하	13.5	21.4	16.8	6.1	5.3	7.3	2.7	5.3	2.3	19.3	561(100%)	
대졸이상	20.0	26.3	9.2	4.8	6.5	3.1	1.9	4.1	2.2	21.9	415(100%)	
경제수준별												
상	12.3	23.9	9.4	9.4	10.1	3.6	2.2	5.8	1.4	21.7	138(100%)	$\chi^2 = 29.474^*$
중	16.8	22.9	14.6	5.1	5.2	6.8	2.3	4.5	2.8	19.3	869(100%)	
하	13.5	20.3	15.0	3.8	3.0	6.8	6.8	5.3	3.8	21.8	133(100%)	
전체	15.7	22.8	14.3	5.5	5.6	6.0	2.8	4.8	2.6	19.8	1191(100%)	

* p < .05 *** p < .001

<부록표 2-5> 진로(직업)선택시 가장 큰 장애요인

(단위: %)

구 분	학업 성적	관련 정보 부족	능력 부족	자신 이해 부족	신체 조건	부모 님의 기대	경제 여건	기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44.3	10.2	12.2	20.3	1.5	5.3	4.6	1.5	605(100%)	$\chi^2 = 13.345$
여학생	37.7	14.2	11.1	25.2	1.7	3.9	3.9	2.4	592(100%)	
학교급별										
중학교	36.4	12.7	12.5	21.4	2.7	6.5	4.6	3.2	527(100%)	$\chi^2 = 48.931^{***}$
인문고	49.0	11.0	8.9	22.2	.4	2.9	4.6	1.0	482(100%)	
실업고	33.3	13.8	16.4	28.0	1.6	3.7	2.6	.5	189(100%)	
성적별										
상	29.3	14.8	8.6	32.4	1.6	3.9	8.2	1.2	256(100%)	$\chi^2 = 71.905^{***}$
중	41.1	12.0	13.1	22.2	1.0	5.2	3.1	2.3	734(100%)	
하	57.4	8.7	10.9	10.9	3.8	2.7	3.8	1.6	183(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31.8	18.2	13.6	22.7		9.1	4.5		22(100%)	$\chi^2 = 20.485$
중졸이하	42.9	11.1	11.9	26.2	1.6	3.2	3.2		126(100%)	
전문대졸이하	44.6	12.6	11.4	20.8	.9	3.7	4.7	1.2	428(100%)	
대졸이하	37.9	11.7	11.2	24.4	2.2	5.4	4.2	3.0	591(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60.0	10.0	20.0				10.0		10(100%)	$\chi^2 = 29.893$
중졸이하	36.2	10.7	14.1	26.6	2.8	4.5	5.1		177(100%)	
전문대졸이하	43.8	12.6	10.9	22.2	1.4	4.1	3.9	1.1	562(100%)	
대졸이상	38.0	11.3	11.1	23.8	1.4	5.5	4.3	4.1	416(100%)	
경제수준별										
상	37.1	12.9	11.4	25.7	1.4	6.4	2.9	2.1	140(100%)	$\chi^2 = 9.437$
중	41.1	12.1	11.1	23.1	1.7	4.4	4.5	1.9	873(100%)	
하	44.4	12.0	15.0	15.8	.8	4.5	6.0	1.5	133(100%)	
전체	41.0	12.2	11.7	22.8	1.6	4.6	4.3	1.9	1199(100%)	

*** p < .001

<부록표 3-1> 진로(직업)선택에 대한 주요 상담자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담임교사	진로담당교사	형제자매	친구선배	친척	학원과외교사	상담전문기관	기타	전체	비고
성별												
남학생	16.3	28.5	1.5	.5	5.9	23.6	1.8	3.0	.5	18.5	607(100%)	$\chi^2 = 55.315^{***}$
여학생	5.4	35.6	.7	.7	7.4	31.9	1.0	3.7	.2	13.5	593(100%)	
학교급별												
중학교	13.2	37.6	.4	.2	6.0	22.5	.8	2.3	.2	16.8	529(100%)	$\chi^2 = 67.987^{***}$
인문고	8.9	29.5	1.5	.4	6.0	30.1	1.7	5.8	.6	15.6	482(100%)	
실업고	9.5	22.6	2.1	2.1	10.0	35.8	2.6			15.3	190(100%)	
성적별												
상	13.3	39.8	1.6	.8	7.0	18.0	.8	3.9	.8	14.1	256(100%)	$\chi^2 = 32.886^*$
중	10.8	30.2	1.1	.4	6.8	30.4	1.6	3.3	.3	15.2	738(100%)	
하	8.2	29.1		.5	5.5	28.6	1.6	3.3		23.1	182(100%)	
아버지 학력별												
안계심		31.8			4.5	40.9	4.5			18.2	22(100%)	$\chi^2 = 44.400^*$
중졸이하	6.3	25.2	1.6	.8	10.2	29.9	.8	2.4		22.8	127(100%)	
전문대졸이하	10.2	29.6	1.2	.9	7.6	32.8	1.4	2.8	.5	13.2	433(100%)	
대졸이하	13.3	35.2	1.0	.3	5.3	21.8	1.5	4.3	.3	17.0	588(100%)	
어머니 학력별												
안계심	10.0	10.0		10.0	20.0	20.0	10.0			20.0	10(100%)	$\chi^2 = 65.843^{***}$
중졸이하	8.4	24.2	1.1	1.1	9.0	32.0	2.2	1.7		20.2	178(100%)	
전문대졸이하	9.7	31.5	1.2	.5	6.5	31.9	1.2	3.7	.4	13.3	565(100%)	
대졸이상	14.0	36.4	1.0	.2	5.3	19.3	1.2	3.9	.5	18.3	415(100%)	
경제수준별												
상	9.9	36.9	.7		12.8	19.1	.7	4.3	.7	14.9	141(100%)	$\chi^2 = 30.825^*$
중	11.5	32.2	1.1	.6	6.1	28.3	1.3	3.3	.2	15.4	876(100%)	
하	7.6	25.2	.8	.8	5.3	30.5	3.8	2.3	.8	22.9	131(100%)	
전체	10.9	31.9	1.1	.6	6.7	27.6	1.4	3.3	.3	16.1	1202(100%)	

* $p < .05$ *** $p < .001$

<부록표 3-2> 진로(직업)탐색의 주요 정보원

(단위: %)

구 분	부 모	형제 자매	담임 교사	진로 담당 교사	친구 선배	인터넷 PC 통신	서적 잡지	매 스 컴	상담 전문 기관	학원 과외 교사	친 척	기 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14.0	3.3	3.6	1.2	14.7	26.0	7.4	17.4		5.0	1.3	6.1	605(100%)	$\chi^2 = 29.945^{**}$
여학생	9.4	4.2	3.0	2.0	11.5	22.4	14.3	18.0	.3	7.4	1.3	5.9	593(100%)	
학교급별														
중학교	17.4	4.7	1.7	1.3	8.3	23.9	9.8	19.5	.2	5.3	1.1	6.6	528(100%)	$\chi^2 = 123.596^{***}$
인문고	8.3	2.7	2.3	.8	15.0	23.7	14.1	17.7	.2	8.5	1.2	5.4	481(100%)	
실업고	4.7	3.7	10.5	4.2	22.1	26.3	5.8	12.6		2.1	2.1	5.8	190(100%)	
성적별														
상	15.2	4.3	3.9	1.2	8.2	18.4	12.1	17.2	.4	9.4	2.0	7.8	256(100%)	$\chi^2 = 38.405^*$
중	11.0	3.7	2.7	1.6	14.0	27.3	10.6	18.0		4.9	.8	5.3	735(100%)	
하	10.4	3.8	4.9	2.2	15.8	20.2	9.8	15.8	.5	6.6	2.7	7.1	183(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4.5	4.5		4.5	9.1	50.0		22.7		4.5			22(100%)	$\chi^2 = 69.885^{***}$
중졸이하	7.1	4.7	7.9	4.7	20.5	16.5	12.6	11.0		5.5	3.1	6.3	127(100%)	
전문대졸이하	8.8	3.5	4.4	.9	13.7	26.6	10.0	19.4	.2	5.3	1.4	5.8	432(100%)	
대졸이하	15.1	3.9	1.9	1.4	10.7	23.1	12.1	17.7	.2	7.0	1.0	6.0	588(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10.0	10.0	10.0		10.0	30.0		10.0			20.0		10(100%)	$\chi^2 = 100.606^{***}$
중졸이하	3.9	3.4	6.2	2.8	16.3	23.0	12.9	14.6	.6	7.3	2.8	6.2	178(100%)	
전문대졸이하	8.5	3.4	3.6	2.3	13.5	26.1	10.5	20.2	.2	5.5	1.2	5.0	563(100%)	
대졸이상	19.2	4.6	1.9	.2	10.8	21.9	11.3	15.9		6.5	.5	7.2	416(100%)	
경제수준별														
상	14.9	7.8		2.8	9.9	24.8	9.9	20.6		5.0		4.3	141(100%)	$\chi^2 = 39.999^*$
중	11.7	3.4	3.8	1.3	13.2	24.8	10.8	18.1	.2	5.9	1.4	5.5	874(100%)	
하	5.3	2.3	3.8	2.3	18.0	20.3	12.8	14.3		6.8	3.0	11.3	133(100%)	
전체	11.8	3.8	3.3	1.6	13.2	24.2	10.9	17.7	.2	6.2	1.3	6.0	1200(1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표 4-1-1> 가장 선호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구 분	자기 자신 이해	직업 세계 이해	정보 수집 활용	진로 계획 설계	현장 체험	의사 결정 훈련	대인 관계 훈련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58.0	12.5	4.4	5.4	14.8	4.6	.4	596(100%)	$\chi^2 = 14.250^*$
여학생	56.1	12.5	1.8	3.9	19.8	4.9	1.1	569(100%)	
학교급별									
중학교	57.4	11.3	2.4	4.2	18.8	5.1	.8	505(100%)	$\chi^2 = 7.451$
인문고	57.2	13.8	3.7	5.5	15.5	3.9	.4	458(100%)	
실업고	56.0	12.6	3.4	4.0	17.1	5.7	1.1	175(100%)	
성적별									
상	53.7	15.4	2.8	4.9	19.9	2.8	.4	246(100%)	$\chi^2 = 15.402$
중	57.5	11.9	3.5	4.2	16.0	6.1	.8	708(100%)	
하	59.6	10.6	1.9	6.2	19.3	1.9	.6	161(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71.4	14.3		3.3	14.3			21(100%)	$\chi^2 = 13.840$
중졸이하	64.2	10.8	1.7	5.4	15.0	3.3	1.7	120(100%)	
전문대졸이하	54.5	12.8	4.4	4.8	17.2	4.9	.7	407(100%)	
대졸이하	56.7	12.3	2.7		17.8	5.3	.4	561(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55.6	11.1	11.1	22.2				9(100%)	$\chi^2 = 21.738$
중졸이하	64.1	10.8	3.6	3.0	13.8	3.6	1.2	167(100%)	
전문대졸이하	56.8	13.4	3.2	5.0	15.8	5.2	.6	537(100%)	
대졸이상	54.8	11.7	2.5	4.3	21.3	4.8	.5	394(100%)	
경제수준별									
상	63.7	8.1	3.7	4.4	16.3	2.2	1.5	135(100%)	$\chi^2 = 12.386$
중	55.9	12.9	3.1	3.9	18.1	5.4	.7	829(100%)	
하	58.9	12.9	3.2	7.3	13.7	4.0		124(100%)	
전체	57.1	12.5	3.1	4.7	17.2	4.7	.7	1138(100%)	

* $p < .05$

<부록표 4-1-2> 두 번째로 선호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구 분	자기 자신 이해	직업 세계 이해	정보 수집 활용	진로 계획 설계	현장 체험	의사 결정 훈련	대인 관계 훈련	기 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15.3	23.8	11.9	13.3	20.8	11.9	2.7	.2	562(100%)	$\chi^2 = 9.887$
여학생	18.1	23.3	11.7	8.4	24.0	10.9	3.4	.2	562(100%)	
학교급별										
중학교	15.6	23.2	13.6	10.4	23.2	10.4	3.2	.4	500(100%)	$\chi^2 = 14.561$
인문고	17.6	24.2	9.7	11.5	21.6	13.4	2.0		454(100%)	
실업고	17.4	23.8	12.2	10.5	22.1	8.7	5.2		172(100%)	
성적별										
상	16.4	29.1	9.4	10.2	20.5	11.9	2.5		244(100%)	$\chi^2 = 8.372$
중	16.7	22.4	12.1	11.4	22.5	11.3	3.3	.3	701(100%)	
하	17.1	22.8	13.3	10.1	24.7	9.5	2.5		158(100%)	
아버지학력별										
안제심	9.5	28.6	14.3	4.8	19.0	19.0	4.8		21(100%)	$\chi^2 = 16.140$
중졸이하	11.9	22.0	10.2	12.7	27.1	12.7	3.4		118(100%)	
전문대졸이하	19.2	22.1	13.2	9.0	21.1	11.7	3.7		402(100%)	
대졸이하	16.0	25.2	11.5	11.9	22.5	10.1	2.5	.4	556(100%)	
어머니학력별										
안제심	22.2	22.2		11.1	33.3	11.1			9(100%)	$\chi^2 = 27.061$
중졸이하	13.3	22.3	11.4	10.8	20.5	13.9	7.8		166(100%)	
전문대졸이하	17.0	22.8	11.9	9.2	24.9	11.7	2.3	.2	530(100%)	
대졸이상	16.4	25.9	12.8	13.1	19.7	9.5	2.3	.3	390(100%)	
경제수준별										
상	10.5	31.6	9.0	14.3	22.6	8.3	3.0	.8	133(100%)	$\chi^2 = 18.194$
중	17.3	23.6	12.4	10.2	21.8	11.6	2.9	.1	821(100%)	
하	16.3	17.9	9.8	12.2	28.5	13.0	2.4		123(100%)	
전체	16.7	23.7	11.8	10.8	22.4	11.4	3.0	.2	1126(100%)	

<부록표 4-1-3> 세 번째로 선호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구 분	자기 자신 이해	직업 세계 이해	정보 수집 활용	진로 계획 설계	현장 체험	의사 결정 훈련	대인 관계 훈련	기 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13.7	14.1	13.0	10.5	21.0	18.0	8.9	.7	561(100%)	$\chi^2 = 8.401$
여학생	11.0	17.6	15.6	9.6	21.1	17.8	7.1	.2	563(100%)	
학교급별										
중학교	14.2	15.0	13.0	10.6	22.8	16.0	7.4	.8	499(100%)	$\chi^2 = 26.056^*$
인문고	11.4	17.4	16.9	7.9	19.8	19.8	6.8		455(100%)	
실업고	9.3	14.0	11.0	14.0	19.2	19.2	12.8	.6	172(100%)	
성적별										
상	15.2	16.5	11.9	10.7	21.8	17.3	6.6		243(100%)	$\chi^2 = 18.561$
중	13.0	15.4	13.0	9.6	22.3	18.0	8.3	.6	701(100%)	
하	6.9	18.2	20.8	10.7	15.1	19.5	8.2	.6	159(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15.0	5.0	25.0	25.0	20.0	5.0	5.0		20(100%)	$\chi^2 = 24.127$
중졸이하	8.4	20.2	10.1	12.6	24.4	16.0	7.6	.8	119(100%)	
전문대졸이하	11.9	16.9	12.4	10.7	19.2	20.1	8.5	.2	402(100%)	
대졸이하	14.0	14.9	15.6	8.5	21.8	17.4	7.2	.5	556(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22.2	22.2			22.2	22.2	11.1	9(100%)	$\chi^2 = 52.644^{***}$
중졸이하	8.4	18.7	12.7	12.7	24.7	14.5	7.2	1.2	166(100%)	
전문대졸이하	12.5	15.7	12.8	11.7	19.4	20.2	7.7		530(100%)	
대졸이상	15.1	14.9	16.2	6.9	22.3	16.9	7.2	.5	390(100%)	
경제수준별										
상	11.4	20.5	16.7	10.6	15.9	15.9	7.6	1.5	132(100%)	$\chi^2 = 12.190$
중	13.0	15.3	13.7	10.1	21.5	18.4	7.7	.2	822(100%)	
하	9.8	17.1	13.8	10.6	19.5	17.1	11.4	.8	123(100%)	
전체	12.3	15.8	140.3	10.0	21.0	18.0	8.0	.4	1126(100%)	

* $p < .05$ *** $p < .001$

<부록표 4-2-1> 가장 참여해보고 싶은 직업체험(성별 · 학교급별)

(단위: %)

구 분	성 별		학교급별			전 체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컴퓨터관련직업	20.3	4.0	12.9	9.0	18.5	12.1
사무직관련직업	5.7	2.5	1.5	5.2	8.9	4.1
운동관련직업	5.7	.2	4.0	1.7	3.2	2.9
신문방송관련직업	4.7	12.0	7.2	11.1	4.5	8.3
연예활동관련직업	5.1	9.3	7.8	5.9	8.9	7.2
순수학문관련직업	4.5	2.8	4.6	3.8	.6	3.7
예술관련직업	5.1	8.3	7.4	6.8	3.8	6.7
건축관련직업	1.7	1.3	4.5	1.9	.6	1.5
섬직관련직업	.9	.2	.8	.5		.6
벤처관련직업	2.3	.4	1.1	1.2	2.5	1.3
언어관련직업	.6	2.8	1.1	2.4	1.9	1.7
예술관련직업	4.7	5.3	6.3	4.7	1.9	5.0
서비스봉사관련직업	3.0	5.1	1.7	4.0	11.5	4.1
기계관련직업	3.0	1.1	2.3	2.4	.6	2.1
교육관련직업	5.7	16.9	12.7	12.0	5.1	11.3
디자인관련직업	.9	16.1	11.0	5.2	10.2	8.5
법관련직업	4.4	2.7	3.6	4.5	1.3	3.6
음식관련직업	2.5	1.3	2.1	.9	3.8	1.9
공직관련직업	8.7	2.5	4.9	7.3	3.2	5.6
사업	6.8	1.9	1.9	7.3	3.8	4.4
항공관련직업	1.5	2.3	2.3	1.9	.6	1.9
기타	2.1	.9	1.5	.5	4.5	1.5
전체	528 (100%)	527 (100%)	474 (100%)	424 (100%)	157 (100%)	1056 (100%)
비교	$\chi^2 = 286.700^{***}$		$\chi^2 = 146.975^{***}$			

*** p < .001

<부록표 4-2-2> 가장 참여해보고 싶은 직업체험(성적별·경제수준별)

(단위: %)

구 분	성적별			경제수준			전 체
	상	중	하	상	중	하	
컴퓨터관련직업	9.5	13.8	9.7	9.0	12.4	17.3	12.1
사무직관련직업	6.8	3.6	2.6	3.3	4.3	4.5	4.1
운동관련직업	.9	2.6	7.8	5.7	2.4	4.5	2.9
신문방송관련직업	7.2	8.9	6.5	9.8	8.0	5.5	8.3
연예활동관련직업	6.3	7.0	9.1	4.1	7.6	6.4	7.2
순수학문관련직업	5.9	3.3	2.6	2.5	3.7	4.5	3.7
의술관련직업	9.0	6.5	4.5	8.2	6.7	6.4	6.7
건축관련직업	2.3	1.2	1.9	.8	1.8		1.5
성직관련직업	.9	.6		.8	.4	1.8	.6
벤처관련직업	.5	1.8	.6	.8	1.3	2.7	1.3
언어관련직업	3.2	1.5		2.5	1.5	.9	1.7
예술관련직업	2.7	5.4	7.1	6.6	4.8	6.4	5.0
서비스봉사관련직업	4.5	2.9	7.8	4.1	3.3	7.3	4.1
기계관련직업	1.4	2.0	3.9	3.3	1.9	2.7	2.1
교육관련직업	9.5	12.7	8.4	6.6	12.4	6.4	11.3
디자인관련직업	5.0	8.8	10.4	9.8	8.5	7.3	8.5
법관련직업	7.7	2.4	1.9	5.7	3.3	2.7	3.6
음식관련직업	.5	2.0	3.9	1.6	2.0	.9	1.9
공직관련직업	7.2	5.4	3.9	4.1	6.0	4.5	5.6
사업	5.4	4.5	2.6	5.7	4.6	2.7	4.4
항공관련직업	2.3	1.8	1.9	2.5	1.9	.9	1.9
기타	1.8	1.2	2.6	2.5	1.1	3.6	1.5
전 체	222 (100%)	661 (100%)	154 (100%)	122 (100%)	788 (100%)	110 (100%)	1056 (100%)
비 고	$\chi^2 = 90.831^{***}$			$\chi^2 = 43.778$			

*** p < .001

<부록표 4-2-3> 두 번째로 참여해보고 싶은 직업체험(성별 · 학교급별)

(단위: %)

구 분	성 별		학 교 급 별			전 체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컴퓨터관련직업	14.8	2.8	10.6	5.6	11.6	8.7
사무직관련직업	7.0	4.9	3.1	6.8	12.3	5.9
운동관련직업	7.6	.2	5.7	1.7	4.1	3.9
신문방송관련직업	4.6	11.8	6.8	11.5	3.4	8.2
연예활동관련직업	6.8	9.5	10.6	5.1	8.9	8.1
순수학문관련직업	5.6	3.0	4.0	6.1		4.3
의술관련직업	5.0	7.1	7.1	6.8	.7	6.0
건축관련직업	2.2	1.6	1.3	2.9	.7	1.9
성직관련직업	.4	.4	.4	.2	.7	.4
벤처관련직업	1.8	.6	1.1	1.0	2.1	1.2
언어관련직업	.6	2.4	1.1	2.2	.7	1.5
예술관련직업	3.0	8.1	4.9	7.1	3.4	5.6
서비스봉사관련직업	5.8	4.9	4.2	5.4	8.9	5.4
기계관련직업	3.8	.2	1.5	1.5	4.8	2.0
교육관련직업	6.6	18.9	12.6	13.7	11.0	12.8
디자인관련직업	1.4	11.2	6.4	6.6	5.5	6.3
법관련직업	3.6	2.4	3.1	3.4	1.4	3.0
음식관련직업	1.6	2.0	2.4	.5	2.7	1.8
공직관련직업	7.2	2.0	3.8	4.6	6.8	4.6
사업	6.4	1.8	4.2	4.9	1.4	4.1
항공관련직업	2.6	3.4	3.5	1.7	4.8	3.0
기타	1.8	1.0	1.5	.5	4.1	1.5
전체	501 (100%)	507 (100%)	453 (100%)	409 (100%)	146 (100%)	1009 (100%)

비고

$\chi^2 = 240.417***$

$\chi^2 = 120.595***$

*** $p < .001$

<부록표 4-2-4> 두 번째로 참여해보고 싶은 직업체험(성적별 · 경제수준별)

(단위: %)

구 분	성 적 별			경 제 수 준			전 체
	상	중	하	상	중	하	
컴퓨터관련직업	7.3	9.5	8.1	8.6	8.3	12.6	8.7
사무직관련직업	7.3	5.8	4.0	4.3	5.6	11.7	5.9
운동관련직업	2.7	3.5	7.4	5.2	3.6	5.8	3.9
신문방송관련직업	10.9	7.7	5.4	5.2	9.3	2.9	8.2
연예활동관련직업	5.0	8.5	10.7	10.3	7.8	5.8	8.1
순수학문관련직업	6.4	4.0	2.7	5.2	4.5	2.9	4.3
의술관련직업	8.2	5.1	6.0	5.2	6.5	2.9	6.0
건축관련직업	2.3	1.9	1.3	.9	2.0	2.9	1.9
성직관련직업		.5	.7		.3	1.0	.4
벤처관련직업	.5	1.1	2.7	1.7	1.2	1.0	1.2
언어관련직업	1.8	1.6		1.7	1.3	1.9	1.5
예술관련직업	5.0	6.1	4.7	2.6	6.2	5.8	5.6
서비스봉사관련직업	6.4	4.7	6.7	6.0	5.2	3.9	5.4
기계관련직업	.9	2.2	2.7	.9	2.1	2.9	2.0
교육관련직업	12.7	13.2	12.8	10.3	12.7	14.6	12.8
디자인관련직업	2.7	7.2	6.7	6.0	6.7	2.9	6.3
법관련직업	6.4	2.2	1.3	5.2	2.8	2.9	3.0
음식관련직업	.9	1.6	4.0	2.6	1.7	1.9	1.8
공작관련직업	5.9	4.3	3.4	5.2	4.5	4.9	4.6
사업	2.3	5.0	3.4	4.3	4.5	1.9	4.1
항공관련직업	3.6	2.9	2.0	7.8	2.1	2.9	3.0
기타	.9	1.3	3.4	.9	1.2	3.9	1.5
전 체	220 (100%)	623 (100%)	149 (100%)	116 (100%)	756 (100%)	103 (100%)	1009 (100%)
비 고	$\chi^2 = 64.319^*$			$\chi^2 = 50.302$			

*** p < .05

<부록표 4-2-5> 세 번째로 참여해보고 싶은 직업체험(성별 · 학교급별)

(단위: %)

구 분	성 별		학 교 급 별			전 체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컴퓨터관련직업	10.4	4.1	6.3	6.0	13.8	7.3
사무직관련직업	9.8	5.7	7.3	7.4	10.6	7.8
운동관련직업	4.7	.9	3.2	1.4	5.7	2.8
신문방송관련직업	4.0	9.2	5.6	8.8	3.3	6.5
연예활동관련직업	6.4	5.7	8.0	5.1	2.4	6.1
순수학문관련직업	3.6	3.7	2.4	6.3		3.6
의술관련직업	3.8	6.9	4.4	6.5	4.9	5.3
건축관련직업	1.3	1.1	.7	2.3		1.2
성직관련직업	.2	.9	1.0		0.8	.6
벤처관련직업	2.7	.2	1.9	.9	1.6	1.5
언어관련직업	.2	1.8	.5	1.4	1.6	1.0
예술관련직업	3.8	12.6	9.0	8.2	4.9	8.1
서비스봉사관련직업	8.4	8.0	7.3	7.1	14.6	8.2
기계관련직업	2.7	.2	1.5	1.1	2.4	1.5
교육관련직업	10.2	16.5	13.6	14.2	9.8	13.3
디자인관련직업	1.6	8.9	6.3	4.0	4.9	5.2
법관련직업	4.7	.9	2.9	3.4	.8	2.8
음식관련직업	2.9	2.5	4.6	1.1	.8	2.7
공직관련직업	7.6	3.0	4.9	5.4	6.5	5.3
사업	7.8	1.1	4.1	5.1	4.1	4.5
항공관련직업	1.1	3.2	1.2	2.8	3.3	2.1
기타	2.2	2.7	3.2	1.4	3.3	2.5
전체	450 (100%)	437 (100%)	411 (100%)	352 (100%)	123 (100%)	887 (100%)
비고	$\chi^2 = 163.986^{***}$		$\chi^2 = 87.348^{***}$			

*** p < .001

<부록표 4-2-6> 세 번째로 참여해보고 싶은 직업체험(성적별 · 경제수준별)

(단위: %)

구 분	성적별			경제수준			전 체
	상	중	하	상	중	하	
컴퓨터관련직업	10.5	6.4	7.4	9.7	6.9	10.5	7.3
사무직관련직업	10.0	7.6	4.1	11.7	7.0	10.5	7.8
운동관련직업	1.0	3.3	4.1	1.0	2.8	5.8	2.8
신문방송관련직업	8.5	6.5	2.5	3.9	7.3	3.5	6.5
연예활동관련직업	6.0	6.2	5.7	7.8	5.4	7.0	6.1
순수학문관련직업	4.0	3.8	.8	4.9	3.4	1.2	3.6
예술관련직업	7.5	4.4	5.7	6.8	5.4	3.5	5.3
건축관련직업	1.0	1.1	2.5	1.0	1.2	1.2	1.2
청직관련직업		.9			.6	1.2	.6
벤처관련직업	3.0	.9	1.6	3.9	1.2	1.2	1.5
언어관련직업	.5	1.1	1.6		.9	3.5	1.0
예술관련직업	4.0	9.8	7.4	6.8	8.8	5.8	8.1
서비스봉사관련직업	7.0	8.2	10.7	5.8	7.6	11.6	8.2
기계관련직업		1.8	2.5	1.9	1.5	1.2	1.5
교육관련직업	15.0	12.9	13.9	11.7	14.2	10.5	13.3
디자인관련직업	3.5	4.9	6.6	4.9	5.4	2.3	5.2
법관련직업	5.5	2.2	1.6	6.8	2.4	2.3	2.8
음식관련직업	1.5	3.3	2.5		3.1	3.5	2.7
공직관련직업	5.0	5.8	4.1	2.9	5.7	5.8	5.3
사업	3.0	4.2	9.0	4.9	4.5	5.8	4.5
항공관련직업	2.5	1.8	3.3		2.5		2.1
기타	1.0	3.1	2.5	3.9	2.2	2.3	2.5
전 체	200	551	122	103	670	86	88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 고	$\chi^2 = 62.585^*$			$\chi^2 = 50.353$			

*** p < .05

<부록표 5-1> 학교에서 진로교육·지도를 받은 경험

(단위: %)

구 분	있 다	없 다	전 체	비 고
성 별				
남학생	42.6	57.4	561(100%)	$\chi^2 = 17.171^{***}$
여학생	55.1	44.9	541(100%)	
학교급별				
중학교	52.1	47.9	489(100%)	$\chi^2 = 11.485^{**}$
인문고	49.3	50.7	442(100%)	
실업고	37.2	62.8	172(100%)	
성적별				
상	55.9	44.1	229(100%)	$\chi^2 = 11.046^{**}$
중	48.5	51.5	680(100%)	
하	39.1	60.9	169(100%)	
아버지 학력별				
안계심	38.9	61.1	18(100%)	$\chi^2 = 2.330$
중졸이하	48.7	51.3	115(100%)	
전문대졸이하	46.3	53.8	400(100%)	
대졸이하	50.6	49.4	540(100%)	
어머니 학력별				
안계심	44.4	55.6	9(100%)	$\chi^2 = 2.661$
중졸이하	45.7	54.3	162(100%)	
전문대졸이하	47.1	52.9	526(100%)	
대졸이상	51.9	48.1	374(100%)	
경제수준별				
상	46.2	53.8	130(100%)	$\chi^2 = 2.456$
중	49.9	50.1	803(100%)	
하	42.9	57.1	119(100%)	
전체	48.7	51.3	1104(100%)	

** p < .01 *** p < .001

<부록표 5-2-1> 학교에서 진로교육·지도를 주로 받은 시간

(단위: %)

구 분	교과 시간	특별 활동 시간	진로 상담 시간	진로 교육 시간	HR 시간	점심 시간 방과후	기 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29.5	.4	.8	23.6	21.9	16.5	7.2	237(100%)	$\chi^2 = 51.297^{***}$
여학생	12.7	1.2	.6	27.6	44.4	7.5	5.9	322(100%)	
학교급별									
중학교	17.5	.7	1.1	26.5	33.6	10.8	9.7	263(100%)	$\chi^2 = 24.727^*$
인문고	19.6	1.3	.4	27.0	38.7	11.3	1.7	230(100%)	
실업고	31.7			20.0	25.0	13.3	10.0	60(100%)	
성적별									
상	21.6			36.7	29.5	9.4	2.9	139(100%)	$\chi^2 = 19.036$
중	19.4	1.4	.9	22.0	37.3	11.8	7.2	346(100%)	
하	19.7		1.6	24.6	36.1	9.8	8.2	61(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44.4	22.2	33.3		9(100%)	$\chi^2 = 15.938$
중졸이하	23.6	1.8		29.1	27.3	12.7	5.5	55(100%)	
전문대졸이하	20.5	1.1	1.1	24.2	26.8	7.9	8.4	190(100%)	
대졸이하	20.1	.7	.7	26.3	33.9	13.1	5.2	289(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25.0			25.0	50.0			4(100%)	$\chi^2 = 14.436$
중졸이하	28.6	1.4		27.1	32.9	8.6	1.4	70(100%)	
전문대졸이하	17.3	1.1	.8	25.6	38.0	10.2	7.1	266(100%)	
대졸이상	23.1	.5	1.0	26.2	29.7	14.9	6.4	202(100%)	
경제수준별									
상	24.6			18.5	35.4	15.4	6.2	65(100%)	$\chi^2 = 8.090$
중	20.5	1.0	1.0	26.3	34.8	9.8	6.7	419(100%)	
하	15.7			33.3	35.3	11.8	3.9	51(100%)	
전체	19.9	.9	.7	25.9	34.9	11.3	6.4	559(100%)	

* $p < .05$ *** $p < .001$

<부록표 5-2-2>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지도 방법

(단위: %)

구 분	토 론 석	교사 개인 상담	현장 체험 학습	시청각 매체 이용	관련 정보 제공	검사 실시	설 문 지	가 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13.9	3.8		36.3	18.6	3.4	13.5	10.5	237(100%)	$\chi^2 = 55.473^{***}$
여학생	17.1	.6	.9	22.0	41.6	5.6	6.8	5.3	322(100%)	
학교급별										
중학교	12.3	1.5	.4	35.8	26.9	3.7	8.2	11.2	268(100%)	$\chi^2 = 78.634^{***}$
인문고	15.2	2.6	.4	17.0	43.0	7.0	12.6	2.2	230(100%)	
실업고	33.3	1.7	1.7	36.7	10.0		5.0	11.7	60(100%)	
성적별										
상	16.5	1.4	2.2	26.6	30.2	7.9	12.2	2.9	139(100%)	$\chi^2 = 33.267^{***}$
중	15.6	2.0		30.3	32.4	3.2	9.0	7.5	346(100%)	
하	16.4	3.3		14.8	32.8	4.9	9.8	18.0	61(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11.1			44.4	33.3	11.1			9(100%)	$\chi^2 = 19.115$
중졸이하	18.2	1.8		30.9	36.4	1.8	3.6	7.3	55(100%)	
전문대졸이하	20.0	1.1		23.2	33.2	5.3	8.9	8.4	190(100%)	
대졸이하	12.8	2.8	1.0	30.4	29.8	4.8	11.1	7.3	289(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25.0			25.0			50.0		4	$\chi^2 = 21.804$
중졸이하	15.7	1.4		25.7	41.4	4.3	4.3	7.1	70	
전문대졸이하	16.9	1.5	.8	26.3	33.5	4.1	8.3	8.6	266	
대졸이상	14.4	3.0	.5	31.2	26.7	5.9	11.9	6.4	202	
경제수준별										
상	16.9	3.1	4.6	23.1	27.7	6.2	10.8	7.7	65(100%)	$\chi^2 = 27.918^*$
중	15.8	1.9		28.6	31.0	4.5	10.3	7.9	419(100%)	
하	17.6	2.0		23.5	43.1	3.9	5.9	3.9	51(100%)	
전체	15.7	2.0	.5	28.1	31.8	4.7	9.7	7.5	559(100%)	

* $p < .05$ *** $p < .001$

<부록표 5-3>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지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 우 불만족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2.0	10.4	51.8	21.5	14.3	251(100%)	$\chi^2 = 2.375$
여학생	1.2	9.3	49.2	26.4	13.8	333(100%)	
학교급별							
중학교	1.8	9.7	56.3	20.6	11.6	277(100%)	$\chi^2 = 20.255^{**}$
인문고	1.2	9.5	40.7	29.9	18.7	241(100%)	
실업고	1.5	10.6	60.6	19.7	7.6	66(100%)	
성적별							
상	3.5	12.7	43.7	27.5	12.7	142(100%)	$\chi^2 = 19.985^{**}$
중	.6	8.1	50.7	25.6	15.0	359(100%)	
하	2.9	14.3	61.4	11.4	10.0	70(100%)	
아버지 학력별							
안계심		22.2	44.4	22.2	11.1	9(100%)	$\chi^2 = 12.709$
중졸이하	1.7	12.1	53.4	22.4	10.3	58(100%)	
전문대졸이하	.5	9.9	56.9	22.8	9.9	202(100%)	
대졸이하	2.0	9.4	46.1	24.9	17.5	297(100%)	
어머니 학력별							
안계심			50.0	25.0	25.0	4(100%)	$\chi^2 = 20.075$
중졸이하	1.3	9.1	61.0	15.6	13.0	77(100%)	
전문대졸이하	.4	12.1	52.6	24.6	10.3	272(100%)	
대졸이상	2.8	8.0	44.3	26.4	18.4	212(100%)	
경제수준별							
상	3.0	10.6	40.9	22.7	22.7	66(100%)	$\chi^2 = 8.037$
중	1.6	10.0	51.7	24.6	12.1	439(100%)	
하		11.1	50.0	24.1	14.8	54(100%)	
전체	1.5	9.7	50.4	24.3	14.0	585(100%)	

** $p < .01$

<부록표 5-4-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지도 시간에 대한 요구

(단위: %)

구 분	교과 시간	특별 활동 시간	진로 상담 시간	진로 교육 시간	HR 시간	자율 학습 시간	기 타	전 체	비 고
성 별									
남학생	27.4	12.3	18.3	11.0	19.7	7.0	4.2	471(100%)	$\chi^2 = 16.272^*$
여학생	23.9	7.6	22.8	15.6	21.0	4.1	5.0	461(100%)	
학교급별									
중학교	26.0	9.3	18.7	11.6	23.5	6.6	4.3	396(100%)	$\chi^2 = 22.334^*$
인문고	23.8	8.9	23.2	15.9	20.1	3.7	4.4	383(100%)	
실업고	29.2	14.3	19.5	11.1	12.3	7.8	5.8	154(100%)	
성적별									
상	20.0	9.0	26.5	16.0	19.5	5.5	3.5	200(100%)	$\chi^2 = 26.591^{**}$
중	27.5	9.2	19.9	13.0	21.5	5.3	3.7	568(100%)	
하	27.6	14.5	15.2	10.3	15.9	6.9	9.7	145(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21.1	5.3	36.8	10.5	26.3		5.9	19(100%)	$\chi^2 = 26.884$
중졸이하	31.4	11.8	14.7	10.8	14.7	10.8	4.7	102(100%)	
전문대졸이하	22.4	11.9	23.8	12.2	20.9	4.1	4.0	344(100%)	
대졸이하	27.6	7.8	19.5	15.2	20.4	5.4		446(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10.0	10.0	10.0	10.0	10.0	20.0	30.0	10(100%)	$\chi^2 = 34.616^*$
중졸이하	26.5	12.1	19.7	12.1	17.4	8.3	3.8	132(100%)	
전문대졸이하	24.0	10.5	22.3	12.7	22.7	4.1	3.7	456(100%)	
대졸이상	29.1	7.1	19.7	15.2	18.1	5.8	4.9	309(100%)	
경제수준별									
상	27.4	10.3	14.5	17.9	20.5	5.1	4.3	117(100%)	$\chi^2 = 16.112$
중	26.0	9.8	22.7	12.6	19.7	5.4	3.9	666(100%)	
하	23.9	11.9	14.7	12.8	20.2	6.4	10.1	109(100%)	
전체	25.6	10.0	20.7	13.3	20.3	5.6	4.6	934(100%)	

* $p < .05$ ** $p < .01$

<부록표 5-4-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지도 방법에 대한 요구

(단위: %)

구 분	교과 시간 토론	현장 체험 학습	개인 상담	배치 이용	정보 제공	검사 실시 해석	기 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8.4	42.1	16.2	16.2	6.7	8.0	2.4	463(100%)	$\chi^2 = 19.842^{**}$
여학생	3.8	53.0	13.0	12.3	6.0	10.3	1.6	447(100%)	
학교급별									
중학교	7.1	45.5	12.9	19.7	4.7	8.4	1.6	380(100%)	$\chi^2 = 40.540^{***}$
인문고	4.0	47.9	18.8	8.2	8.7	10.3	2.1	378(100%)	
실업고	9.2	51.6	8.5	15.0	5.2	7.8	2.6	153(100%)	
성적별									
상	6.2	43.8	19.1	9.8	6.7	12.4	2.1	194(100%)	$\chi^2 = 17.221$
중	6.8	48.2	13.1	14.9	6.1	9.1	1.8	558(100%)	
하	3.6	46.8	12.9	19.4	8.6	5.8	2.9	139(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5.9	47.1	23.5	11.8		11.8		17(100%)	$\chi^2 = 13.216$
중졸이하	8.4	49.5	10.5	16.8	6.3	5.3	3.2	95(100%)	
전문대졸이하	5.2	46.9	16.6	15.5	5.8	8.2	1.7	343(100%)	
대졸이하	6.7	47.7	13.8	12.2	6.9	11.1	1.6	434(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14.3	57.1	14.3	14.3				7(100%)	$\chi^2 = 9.759$
중졸이하	6.3	51.2	15.0	11.0	4.7	10.2	1.6	127(100%)	
전문대졸이하	5.5	46.7	15.9	15.4	6.6	7.9	2.0	454(100%)	
대졸이상	7.3	47.3	13.0	12.3	7.0	11.3	1.7	300(100%)	
검제수준별									
상	8.0	45.1	15.9	17.7	3.5	8.8	.9	113(100%)	$\chi^2 = 17.361$
중	6.6	46.5	13.8	15.0	7.5	8.6	2.1	654(100%)	
하	2.9	52.9	17.3	6.7	3.8	14.4	1.9	104(100%)	
전체	6.1	47.5	14.6	14.3	6.5	9.1	2.0	912(100%)	

** p < .01 *** p < .001

<부록표 6-1> 학교밖에서의 진로관련 지도·상담 경험

(단위: %)

구 분	있 다	없 다	전 체	비 고
성별				
남학생	17.5	82.5	578(100%)	$\chi^2 = 9.674^{**}$
여학생	25.0	75.0	577(100%)	
학교급별				
중학교	15.7	84.3	515(100%)	$\chi^2 = 24.212^{***}$
인문고	28.4	71.6	462(100%)	
실업고	18.4	81.6	179(100%)	
성적별				
상	27.8	72.2	248(100%)	$\chi^2 = 11.732^{**}$
중	20.4	79.6	714(100%)	
하	14.2	85.8	169(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33.3	66.7	21(100%)	$\chi^2 = 2.396$
증졸이하	18.5	81.5	119(100%)	
전문대졸이하	21.6	78.4	416(100%)	
대졸이하	21.6	78.4	569(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100	9(100%)	$\chi^2 = 4.200$
증졸이하	22.5	77.5	169(100%)	
전문대졸이하	20.1	79.9	542(100%)	
대졸이상	23.6	76.4	403(100%)	
경제수준별				
상	24.5	75.5	139(100%)	$\chi^2 = 1.289$
중	21.5	78.5	842(100%)	
하	18.7	81.3	123(100%)	
전체	21.2	78.8	1157(100%)	

** p < .01 *** p < .001

<부록표 6-2> 학교밖에서 받은 진로지도·상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비 고
성 별							
남학생	3.6	18.1	57.5	9.8	10.9	193(100%)	$\chi^2 = 21.639^{***}$
여학생		16.5	54.1	23.7	5.7	194(100%)	
학교급별							
중학교	2.1	20.6	56.7	10.6	9.9	141(100%)	$\chi^2 = 22.602^{**}$
인문고	.6	17.7	49.1	22.3	10.3	175(100%)	
실업고	4.2	9.7	69.4	16.3	1.4	72(100%)	
성적별							
상	2.1	20.6	47.4	19.6	10.3	97(100%)	$\chi^2 = 9.120$
중	1.3	15.7	59.4	17.0	6.6	229(100%)	
하	3.7	18.5	55.6	9.3	13.0	54(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12.5	25.0	37.5	12.5	12.5	8(100%)	$\chi^2 = 17.391$
중졸이하		12.5	70.8	14.6	2.1	48(100%)	
전문대졸이하	2.0	15.6	59.2	15.6	7.5	147(100%)	
대졸이하	1.1	20.1	49.7	18.4	10.6	179(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25.0		75.0			4(100%)	$\chi^2 = 23.906^*$
중졸이하	1.4	16.9	63.4	12.7	5.6	71(100%)	
전문대졸이하	1.8	15.3	57.6	18.2	7.1	170(100%)	
대졸이상	.7	21.2	48.9	17.5	11.7	137(100%)	
경제수준별							
상		21.6	49.0	15.7	13.7	51(100%)	$\chi^2 = 6.082$
중	2.1	17.9	55.4	17.2	7.4	285(100%)	
하	2.6	10.5	63.2	13.2	10.5	38(100%)	
전체	1.8	17.3	55.7	16.8	8.5	388(10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표 6-3> 학교밖에서 진로지도·상담을 받은 기관

(단위: %)

구 분	진로 청소 관련 단체	진로 정보 년 단체 센터	자원 봉사 산 하 센터	교육청 관 하 기 관	관 련 인 터 넷 사 이 트	기 타	전체	비고
성별								
남학생	19.3	11.1	8.9	4.4	5.9	26.7	23.7	135(100%) $\chi^2 = 3.743$
여학생	21.5	8.7	10.7	1.3	7.4	28.9	21.5	149(100%)
학교급별								
중학교	11.0	12.0	9.0	2.0	7.0	30.0	29.0	100(100%) $\chi^2 = 17.926$
인문고	27.6	6.2	9.0	3.4	6.9	26.9	20.0	146(100%)
실업고	17.5	17.5	15.0	2.5	5.0	25.0	17.5	40(100%)
성적별								
상	30.1	9.6	11.0	4.1	9.6	20.5	15.1	73(100%) $\chi^2 = 14.675$
중	18.9	10.1	10.1	3.0	5.3	28.4	24.3	169(100%)
하	8.1	10.8	8.1		8.1	32.4	32.4	37(100%)
아버지 학력별								
안계심			14.3		14.3	57.1	14.3	7(100%) $\chi^2 = 19.399$
중졸이하	16.7	16.7	3.3	6.7		30.0	26.7	30(100%)
전문대졸이하	16.8	12.9	13.9	3.0	5.9	26.7	20.8	101(100%)
대졸이하	25.0	6.9	8.3	2.1	7.6	26.4	23.6	144(100%)
어머니 학력별								
안계심			50.0				50.0	2(100%) $\chi^2 = 10.788$
중졸이하	15.6	13.3	8.9	4.4	4.4	26.7	26.7	45(100%)
전문대졸이하	19.0	10.7	11.6	2.5	5.8	29.8	20.7	121(100%)
대졸이상	24.6	7.9	7.9	2.6	7.9	26.3	22.8	114(100%)
경제수준별								
상	17.4	8.7	6.5	2.2	4.3	28.3	32.6	46(100%) $\chi^2 = 9.362$
중	22.1	9.3	10.8	2.9	7.8	26.0	21.1	204(100%)
하	15.4	15.4	11.5	3.8		38.5	15.4	26(100%)
전체	20.4	9.8	9.8	2.8	6.7	27.7	22.8	285(100%)

<부록표 6-4> 학교밖에서 받은 진로지도 · 상담 내용

								(단위: %)
구 분	진로 관련 검사	진로 상담	진로 정보 획득	직업 체험 활동	진로 프로 그램	기타	전 체	비 고
성 별								
남학생	43.8	15.3	18.1	11.1	3.5	8.3	144(100%)	$\chi^2 = 21.103^{***}$
여학생	62.1	15.5	16.1	1.9	1.9	2.5	161(100%)	
학교급별								
중학교	50.0	16.4	15.5	8.2	2.7	7.3	110(100%)	$\chi^2 = 20.802^*$
인문고	60.9	13.9	15.2	4.0	.7	5.3	151(100%)	
실업고	35.6	17.8	26.7	8.9	8.9	2.2	45(100%)	
성적별								
상	60.0	13.8	16.3	5.0	2.5	2.5	80(100%)	$\chi^2 = 19.069^*$
중	53.3	17.8	14.4	5.0	3.3	6.1	180(100%)	
하	35.0	10.0	30.0	15.0		10.0	40(100%)	
아버지학력별								
안계심	42.9	28.6	14.3	14.3			7(100%)	$\chi^2 = 14.875$
중졸이하	45.2	12.9	16.1	9.7	9.7	6.5	31(100%)	
전문대졸이하	48.6	18.9	18.0	5.4	3.6	5.4	111(100%)	
대졸이하	58.8	13.1	16.3	5.9	.7	5.2	153(100%)	
어머니학력별								
안계심		66.7	33.3				3(100%)	$\chi^2 = 25.530^*$
중졸이하	43.8	14.6	18.8	8.3	10.4	4.2	48(100%)	
전문대졸이하	53.4	15.8	19.5	4.5	1.5	5.3	133(100%)	
대졸이상	58.5	14.4	12.7	7.6	.8	5.9	118(100%)	
검제수준별								
상	47.9	18.8	14.6	10.4		8.3	48(100%)	$\chi^2 = 10.169$
중	53.6	14.9	18.0	4.5	3.6	5.4	222(100%)	
하	48.1	18.5	14.8	14.8		3.7	27(100%)	
전체	53.3	15.4	17.0	6.2	2.6	5.6	306(100%)	

* p < .05

*** p < .001

<부록표 7-1>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필요성

(단위: %)

구 분	필요없다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 체	비 고
성 별					
남학생	13.0	58.2	28.8	600(100%)	$\chi^2 = 12.683^{**}$
여학생	8.6	67.7	23.6	592(100%)	
학교급별					
중학교	16.3	50.5	33.3	523(100%)	$\chi^2 = 93.714^{***}$
인문고	4.4	78.8	16.8	481(100%)	
실업고	12.2	57.1	30.7	189(100%)	
성적별					
상	9.4	71.8	18.8	255(100%)	$\chi^2 = 23.952^{***}$
중	10.1	53.2	26.7	734(100%)	
하	15.1	49.2	35.8	179(100%)	
아버지 학력별					
안계심	13.6	45.5	40.9	22(100%)	$\chi^2 = 6.809$
증졸이하	14.5	57.3	28.2	124(100%)	
전문대졸이하	10.9	63.4	25.7	432(100%)	
대졸이하	9.7	65.1	25.1	585(100%)	
어머니 학력별					
안계심	30.0	30.0	40.0	10(100%)	$\chi^2 = 9.975$
증졸이하	14.3	58.3	27.4	175(100%)	
전문대졸이하	10.3	64.1	25.6	562(100%)	
대졸이상	9.4	65.2	25.4	414(100%)	
경제 수준별					
상	12.1	57.1	30.7	140(100%)	$\chi^2 = 5.559$
중	10.9	64.6	24.4	868(100%)	
하	8.3	60.6	31.1	132(100%)	
전 체	10.8	62.9	26.3	1194(100%)	

** p < .01 *** p < .001

